

기획연구 2010-09

충남의 정체성 연구

소진광 · 박철희

발 간 사

이 연구는 시·공간 함수를 통해 충남의 지역정체성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지역정체성은 여러 세대를 통해 누적된 생활방식이고, 자원이용행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가장 편한 시·공간 활용방식이고,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통해 국가 전체적인 공간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느림의 여유’와 ‘올곧은 양반기질’로 표현되는 충남의 지역정체성은 향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전략’의 맥락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세계화 시대에는 국경의 역할이 축소되고, 지방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바른 지역인식은 안으로는 주민들의 정주의식을 높이고, 밖으로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결국 국가역량을 강화하고 인접 다른 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한다. 주민들의 정주의식이 약화되어 각종 지역문제가 심각해지고, 지역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충남의 지역정체성을 재인식하여 충남도민의 정주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수단과 연계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동안 막연하게 이야기되어 왔던 충남의 ‘느린 생활’과 ‘양반기질’에 대한 시·공간적 근거를 확인하여 이를 주민들의 실생활과 연계할 수 있는 좌표를 마련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충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논리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충남의 정체성은 다른 지역의 그것과 크든 작든 차별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이 기획과제의 책임을 맡아 연구를 수행해온 경원대학교 소진광 교수와 충남발전연구원의 공동연구원인 박철희 연구위원과 원고를 정리에 도움을 준 정혜영 연구원님께 감사드리며, 이 연구가 충남의 발전전략 수립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0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박 진 도

연구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화 이후 도시의 빠른 양적 성장은 도시활력의 척도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한계적 상황을 추구하는 빠른 성장이 도시활력의 유일한 척도는 분명 아니다. 도시활력은 자체 조절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사회의 신진대사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도시활력이란 오랜 것의 역기능이나 구조적 결함을 새로운 논리를 도입하여 치유할 수 있는 자체정화능력을 의미한다. 통제할 수 없는 도시변화의 속도나 거부할 수 없는 도시변화의 방향은 분명 도시활력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계문화의 양산은 새로운 ‘혼돈’에 이르는 여러 갈래의 과정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인류문명은 주로 도시라는 공간현상을 중심으로 설명되곤 한다. 그러나 인류문명에 있어서 시간은 단지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기준점으로 여겨졌다. 시간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변화’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과 기대감으로부터 출발한다. 시간은 관리될 수 있을 뿐이지 변화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변화’의 관리로부터 출발한 인류문명은 인류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척도인 공간함수와 시간함수 중에서 상대적으로 시간함수를 가볍게 인식하여 왔다. 인간의 시간함수는 단지 ‘속도’라는 물리적 기준으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류의 진화는 “변화에 순응하는 입장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입장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인류사회에서 시간함수가 갖고 있는 의미는 ‘변화’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태도, 행위인 셈이다. 지역발전의 방향과 속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와 공간특성을 고려한 지역정체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지역정서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오고 있지만 그 동안 학계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느림의 여유’ 입장에서 충남의 정체성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지역정체성은 시간함수와 공간함수의 융복합물로 정의한다. 이러한 지역정체성은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정체성 개념과 접근 틀

1) 지역정체성과 지속가능한 인류사회의 발전

1992년 [지구정상회의]에서 천명된 ESSD(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모든 분야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시장원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지역문제를 전 지구단위에서 작동하기 마련인 시장원리에 맡긴다는 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을 감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장원리는 자원배분을 쉽게 해주지만 다음 세대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극단적으로 보면 시장원리는 현세대만의 집단 이기주의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의 맥락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발전과 지속가능성과의 상반된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발전’은 변화의 맥락에서 ‘지속가능성’은 변화를 거부해야 하는 맥락에서 잉태된 패러다임이라는 것이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일은 전지구적 생존 전략과 연동되어 있다. 따라서 21세기 지역관리의 화두가 여전히 ‘지속가능한 발전’으로부터 출발할 것이라는 예상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정작 지속가능한 발전의 표상에 대해서는 논의가 적었다. 그런 점에서 유네스코가 1995년 착수한 사회변동관리 프로그램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필요성을 인식한 계기가 되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동일성의 주체를 확인하고 차별성의 수용범위를 정의하는 단계로부터 인식된다. 따라서 사회변동 프로그램은 지역정체성을 활용하는 대표적 지역관리전략을 도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사회는 동일성에 기초하여 차별성을 수용하도록 작동한다. 지역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그만큼 사회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다. 특히 사회안전망은 지역을 관리하는 목적에 해당한다. 인류의 생태적 위협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달려있지만, 인류사회의 안전망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달려 있다.

2) 지역정체성의 개념과 시·공간함수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은 지역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의 집합이다. 지역정체성은 지역사회 역사와

공간특성을 통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개별성과 지역을 인지하는 일관된 표상 혹은 동일성의 융복합산물이다. 따라서 지역정체성은 시·공간 함수로 표현된다. 즉, 지역정체성의 두 가지 중요성분은 역사인식으로 표현되는 시간축과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지리적 특성으로 표현되는 공간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무리 훌륭한 역사를 가진 지역사회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보존하며, 소중히 여기는 역사인식이 없다면 이를 지역정체성과 연계시키지 못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에 고유한 지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를 소중히 여기는 인식이 부족하다면 주민들의 정주의식을 높일 수 없다.

원래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심리학의 자아이론(self theory)에서 나온 것으로 한 개체 또는 사회적 집단이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성이다. 다른 개체 혹은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특성은 개체 입장에서는 차별성이지만 집합적으로는 공유할 수 있는 동일성이다. 즉, 지역의 정체성은 다른 지역과의 차이점과 지역 안에서의 동일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성과 차별성은 연속선상의 동일 좌표에 속한다. 즉, 동일성과 차별성은 정도의 차이이지 차원을 달리하는 표상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정체성(regional identity)은 지역을 통해 인지되는 표상으로서 지역의 역사, 지리, 문화, 경제, 사회작동체계(지역사회 규범 등)와 연동되어 있다. 이러한 표상들은 단편적인 지표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독립변수, 즉 역사인식, 역사적 인물, 전통사상, 세시풍속, 전통예술, 언어적 특성, 역사적 사건, 역사적 인물, 기록, 유물, 유적 등을 총체적으로 투입하여 인지되는 시간함수와 지형, 기후, 인구특성을 반영하는 인문현상, 토지이용 등 공간 활용방식 등을 총체적으로 투입하여 인지되는 공간함수로 표현된다.

이 경우 지역정체성의 공간함수와 시간함수를 구성하는 개별 독립변수들은 지역 내부의 결속을 유지하기 위한 동일성과 다른 지역과의 연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차별성을 도출하는 근거에 속한다. 동일성은 일관된 인식에 근거하고 있어서 폐쇄적인 속성을 나타낼 수 있으나 차별성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러한 ‘서로 다름’을 공유함으로써 개방적 속성을 나타낸다. 결국 특정 지역의 정체성은 시간함수와 공간함수의 결합에 의해 표출된다. 그러나 대체로 특정 지역의 시간함수는 구성원들의 결속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공간함수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적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차별적 경쟁우위는 지역과 국가 전체적으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상호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방식을 가능하게 한다.

3) 지역정체성의 접근 틀

역사적 사실만으로는 지역정체성의 시간함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민속, 언어, 생활습관, 역사적 사건, 유물, 유적, 역사적 인물 등은 시간함수의 독립변수에 속하지만 이의 변환장치는 역시 사람의 인식이다. 결국 지역정체성의 시간함수는 주민들의 역사인식으로 집약된다. 다만 개별 독립변수 즉, 민속, 언어적 특성, 생활습관, 역사적 사건, 역사인물, 유물, 유적, 시간활용방식 등은 역사인식의 소재일 뿐이다.

다른 한편 지역별 공간현상에 속하는 지형, 기후, 인구분포 등 인문현상, 물리적 시설, 토지이용 방식 등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통해 공간적 차별성으로 귀결된다. 지역별로 다른 지형, 기후, 인문현상, 물리적 시설, 토지이용방식 등의 존재는 결국 인간의 공간활용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역의 공간함수는 생활환경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정체성의 접근 틀은 우선 지역주민들의 역사인식을 중축으로 하고 뚜렷하고, 공간적 차별성 정도를 횡축으로 하는 좌표를 통해 도출된다.

3. 충남 정체성의 시간함수

충남의 시간함수는 이 지역의 역사, 인물, 유물과 유적, 세시풍속과 신앙, 음식, 예술, 언어 등으로 이루어진 문화를 통해 내부의 동일성과 항상성, 그리고 외부와의 차별성을 포함하고 있다. 충남의 역사는 유구하되 일단 이롭다고 판단한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방성이 있고, 충남의 인물은 자신에겐 엄격했지만 남을 배려하는데 소홀함이 없었으며, 큰 뜻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충의정신을 타고 났다.

충남의 유물과 유적은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아니하다. 군더더기 없는 절제미가 충남의 유적에서 느껴진다. 이러한 느낌은 언어 즉, 충청도 사투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충청도 사투리는 느리다는 평을 많이 받아 왔지만 충청도 사투리의 함축적 의미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즉, 충청도 사투리는 군더더기 없는 실체어로 느린 행동을 보전해준다. 더하지도, 그렇다고 궁색하지도 않은 선비의 절제된 마음가짐이 충청도 사투리에 녹아 있다.

충남의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여유’이고, 충남의 격식은 남에게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기 위한 규율이며, 충남의 운율은 거드름이 아니라 진정성을 전하기 위한 확신을 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시조창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홍성과 서천 일대에서 형성되어 20세기 초 청양과 부여로 전파된 내포제(內浦制) 시조

창은 사설을 중심으로 음운이 근중한 것이 특징이다. 즉, 사설의 각 절마다 마지막 운을 눌러 발음함으로써 선비의 근중함을 표현하고 확신을 표현한다. 이에 비해 전라도의 완제(完制) 시조창은 목이 감기고, 경상도의 영제(嶺制)는 밋밋하며, 경제(京制)는 질러대는 운으로 알려져 있다.

4. 충남 정세성의 공간함수

충남 공간함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충남의 지형은 응집력이 있으며, 폐쇄적이지 아니하고, 해안선은 굴곡이 심하되 거칠지 아니하며, 산은 순하되 무르지 않다. 물은 굽이 흐르되, 넘치지 아니하고, 뜰은 편편히 자리 잡되, 웅졸하지 아니하다. 차령은 하늘높이를 헤아리고, 금강은 땅 길이를 마름질한다. 수많은 포구는 가늘게 뻗어있지만, 넓은 바닷을 이어주고, 짧은 계곡은 긴 여울로 땅을 적신다.

수도권과 지방을 이어주는 충남의 위상은 부족하면 채우고 남으면 건네주는 일종의 안전장치와도 같다. 사통팔달의 교통로는 균형을 이루기 위한 조절장치로 옛 것과 새 것을 구분하고, 큰 것과 작은 것을 연계한다. 따라서 충남은 호남권, 영남권, 수도권의 무게중심을 이룬다.

5. 결론

충남의 역사는 유구하되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방성이 있고, 충남의 인물은 자신에겐 엄격했지만 남을 배려하는데 소홀함이 없었으며, 큰 뜻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희생정신을 타고 났다. 충남의 유물과 유적은 정교하되 날카롭지 아니하고, 단아하되 결코 작아 보이지 않는 깊이를 포함하고 있다.

충남의 시간함수는 ‘여유’, ‘격식 보다는 자신을 다스리기 위한 규율’ 등으로 함축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한편 충남의 공간함수는 ‘충남의 지형은 응집력이 있으며, 폐쇄적이지 아니하고, 해안선은 굴곡이 심하되 거칠지 아니하며, 산은 순하되 무르지 않다. 물은 굽이 흐르되, 넘치지 아니하고, 뜰은 편편히 자리 잡되, 웅졸하지 아니하다. 수많은 포구는 가늘게 뻗어있지만, 넓은 바닷을 이어주고, 짧은 계곡은 긴 여울로 땅을 적신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남을 탓하지 않을 만큼의 먹거리와 남을 험하지 않을 만큼의 공간유산을 타고 난

곳이 충남이고, 그렇다고 남을 크게 부려 원망을 살 일도 없는 곳이 충남이다. 수도권과 지방을 이어주는 충남의 위상은 부족하면 채우고 남으면 건네주는 일종의 안전장치와도 같다. 사통팔달의 교통로는 균형을 이루기 위한 조절장치로 옛 것과 새 것을 구분하고, 큰 것과 작은 것을 연계한다. 따라서 충남은 호남권, 영남권, 수도권을 연계하고 전체의 무게중심을 이룬다.

이러한 맥락에서 충남의 시간함수는 ‘느림의 여유’로, 공간함수는 ‘절제된 단순미’로 요약된다. 김부식은 백제의 왕궁터를 돌아보고 검이불루 화이불사(儉而不陋 華而不侈)로 느낌을 표현한 바 있다. ‘느림의 여유’는 흔히 양반기질로 표현되고, ‘절제된 단순미’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생활방식으로 표현된다. 충청도 사투리는 서두르지 않되 함축적이고, 남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는 유보적 목음을 포함한다. 즉, 충남의 정체성은 ‘느림’의 여유와 선비의 올곧음, 그리고 허세부리지 않는 절제미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충남의 정체성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6. 정책제언

이 연구에서 도출된 충남의 지역정체성은 충남의 지역발전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어야 한다. 지역정체성은 여러 세대를 통해 누적된 생활방식이고, 자원이용행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가장 편한 사·공간 활용방식이고,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통해 국가 전체적인 공간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느림의 여유’와 ‘올곧은 양반기질’로 표현되는 충남의 지역정체성은 향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전략’의 맥락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첫째, 주민들의 정주의식이 약화되어 각종 지역문제가 심각해지고, 지역갈등이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충남의 지역정체성을 재인식하여 충남도민의 정주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수단과 연계되어야 한다. 둘째, 막연하게 이야기되어 왔던 충남의 ‘느린 생활’과 ‘양반기질’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확인하여 이를 주민들의 실생활과 연계할 수 있는 좌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천논리를 도출하여야 한다. 셋째, 충남의 정체성은 다른 지역의 그것과 크든 작든 차별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차 례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3
3. 연구방법	4
4. 연구의 활용방안	5

제 2 장 지역정체성 개념과 접근 틀

1. 지역정체성과 지속가능한 인류사회의 발전	7
1) 인류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역정체성	7
2) 지역 정체성을 통한 사회적 지속가능성	9
2. 지역정체성의 개념과 시·공간함수	11
3. 지역정체성의 접근 틀	14

제 3 장 충남 정체성의 시간함수

1. 충남지역의 역사	18
2. 충남의 인물	19
3. 충남의 유물과 유적	24
1) 충남의 문화재	24
2) 충남의 성곽유적	28

4. 충남의 문화	53
1) 세시풍속	54
2) 충남의 전통신앙	60
3) 충남의 음식	61
4) 충남의 예술	63
5) 충남의 언어(충청도 사투리)	66
5. 충남의 시간활용방식	67
6. 충남의 시간함수종합	68

제 4 장 충남 정체성의 공간함수

1. 충남의 위치와 면적	70
2. 충남의 지형적 특성	75
3. 충남의 인문환경	76
1) 충남의 인구분포	76
2) 충남의 인구증감	79
3) 충남의 인구이동	83
4. 충남의 지역구분	87
5. 충남의 공간함수종합	88

제 5 장 결 론

89

참고문헌

89

표 차 례

<표 2-1> 지역정체성의 시·공간 행렬(matrix)	11
<표 2-2> 지역정체성의 시·공간함수별 독립변수	13
<표 3-1> 충남의 시·군별 국가지정 문화재 현황	25
<표 3-2> 충남의 도지정 문화재	26
<표 3-3> 지리지에 수록된 충남지방 읍성의 분포 및 규모	36
<표 3-4> 부여군 소재 산성 현황	41
<표 3-5> 공주시 소재 산성 현황	42
<표 3-6> 금산군 소재 산성 현황	43
<표 3-7> 논산시 소재 산성 현황	44
<표 3-8> 당진군 소재 산성 현황	45
<표 3-9> 보령시 소재 산성 현황	46
<표 3-10> 서산시 소재 산성 현황	47
<표 3-11> 서천군 소재 산성 현황	48
<표 3-12> 아산시 소재 산성 현황	49
<표 3-13> 연기군 소재 산성 현황	50
<표 3-14> 예산군 소재 산성 현황	50
<표 3-15> 천안시 소재 산성 현황	51
<표 3-16> 청양군 소재 산성 현황	52
<표 3-17> 태안군 소재 산성 현황	52
<표 3-18> 홍성군 소재 산성 현황	53
<표 3-19> 충남 내포제 시조창의 전승계보	66
<표 4-1> 충청남도의 수리적 위치	70
<표 4-2> 충청남도 행정구역	74
<표 4-3> 충청남도 시·군별 세대 및 인구(2010년 9월 현재)	78
<표 4-4> 충청남도의 인구 증감(1925~1944년)	80

<표 4-5> 충청남도의 인구 증감(1944~1970년)	81
<표 4-6> 충청남도의 인구 증감(1970~2000년)	83
<표 4-7> 5년 전 충청남도 전출자의 현 거주지별 인구(1970~1980)	84
<표 4-8> 충청남도 전입자의 5년 전 거주지별 인구(1970~1980)	85
<표 4-9> 충청남도의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1995~2005)	86
<표 4-10> 충청남도의 연령별 인구이동(1995~2004)	86

그림 차례

<그림 2-1> 지역경제의 작동체계와 지역정체성 변화 과정	15
<그림 2-2> 지역정체성의 시·공간 좌표	17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류문명은 주로 도시라는 공간현상을 중심으로 설명되곤 한다. 인류문명에 있어서 시간은 단지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기준점으로 여겨졌다. 시간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변화’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과 기대감으로부터 출발한다. 시간은 관리될 수 있을 뿐이지 변화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변화’의 관리로부터 출발한 인류문명은 인류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척도인 공간함수와 시간함수 중에서 상대적으로 시간함수를 가볍게 인식하여 왔다. 인간의 시간함수는 단지 ‘속도’라는 물리적 기준으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류의 진화는 “변화에 순응하는 입장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입장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즉, 인류사회에서 시간함수가 갖고 있는 의미는 ‘변화’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태도, 행위인 셈이다.

인류의 이러한 진화는 개인의 집단화 과정 즉, 사회화 과정에서도 파악된다. 변화란 ‘방향’과 ‘속도’라는 두 성분으로 분해될 수 있는데, 개인은 단지 거대한 흐름에 노출되어 표류하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나, 집단은 흐름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논리를 가지게 된다. 초기 집단화, 조직화 과정에서 보면 개인은 독립변수이고, 집단은 종속변수로 이해될 수 있으나, 일단 집단이 조직화되어 새로운 논리로 거대한 변화를 시작하게 되면 개인의 행동반경은 집단의 변화방향과 속도에 함몰되게 된다.

소위 ‘정상과학(normal science)’을 추구하는 대다수 지성인들의 성향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스스로 정한 범주 안에서 다수에 동참하려는 강한 의지를 타고났다. 즉, 인간의 능력은 ‘주류(主流)’에 동참하고, 주류를 이끌 수 있는 역량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자기 모순적인 행위과정(sequence of actions)을 노출하곤 한다. 즉, ‘주류’에 동참하기 위해 기존가치를 신봉하고, ‘주류’를 이끌기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시간함수에서 변화에 대한 인간의 실천대응이 대중사회(mass society)의 쏠림현상을 부추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새로운 논리는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서 잉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인류문명은 개인을 집단화하고 집단을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발달하게 된

셈이다. 그만큼 인간의 집단화와 조직화는 개인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방향’이 설정되고 ‘속도’가 붙기 마련이다. ‘다수’를 근거로 하고 있는 ‘주류’의 횡포는 이러한 과정을 즐긴다. 역설적으로 인류문명은 개인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방향’과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가속도’에 의해 이끌려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거부할 수 있는 개인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대세를 일찍 감지하고 이를 빨리 활용할 줄 알아야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세상이 되었다. 이러한 경쟁은 변화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부추길 뿐이다.

도시가 인류문명의 공간표현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 전부터이다. 도시는 ‘빠른’ 문화의 집합체이고, 새로운 논리와 현상을 경쟁적으로 창출하는 공간이 되었다. 새로운 논리를 잉태하지 못하고, 새로운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는 도시는 더 이상 활력이 없는 ‘죽은’ 공간처럼 여겨지기도 하였다. 인류문명의 이러한 구조적 경쟁은 급기야 불나방에 비유되기도 한다. 무모하게 경쟁에 뛰어들어 결국 종말을 맞는 불나방의 어리석음을 거부할 현명한 선택을 그 어느 도시에서도 기대하기는 어렵다. 도시는 인류문명의 꽃이자 인류문명의 무덤인 것이다.

많은 인구가 한정된 공간에 모여 살게 되어 집단화, 조직화는 도시사회의 필수 과정이고, 도시인은 집단에 함몰되고 조직에 흡수되어 독자적 고유성보다는 누구와도 대체될 수 있는 익명성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도시사회에서의 이러한 익명성은 전체 변화에 대한 개인의 책임성보다는 구조적 변화를 고착화하고 가속시키는 경향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책임이 없고 행위만 있을 뿐이다. 도시문화가 한계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시에서 이와 같은 한계적 상황이 창출되다보니 아무도 도시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는 관리될 수도 없다. 변화를 관리하면서 출발한 인류의 문명은 더 이상 통제될 수 없는 커다란 변화의 방향과 속도로 인해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도시가 인류문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서서히 커지고 있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제까지 도시의 빠른 양적 성장은 도시활력의 척도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한계적 상황을 추구하는 빠른 성장이 도시활력의 유일한 척도는 분명 아니다. 도시활력은 자체 조절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사회의 신진대사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도시활력이란 오랜 것의 역기능이나 구조적 결함을 새로운 논리를 도입하여 치유할 수 있는 자체정화능력을 의미한다. 통제할 수 없는 도시변화의 속도나 거부할 수 없는 도시변화의 방향은 분명 도시활력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계문화의 양산은 새로운 ‘혼돈’에 이르는 여러 갈래의 과정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

큰 것을 추구하다보면 발생의 근본을 잊기 쉽고, 빠른 것을 추구하다보면 과정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다. 근본을 잊고, 과정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삶은 단지 죽음뿐이다. 근본을 바로 세우고, 세대를 이으며 후대를 경계함이 ‘삶의 도리’라 하여 인

간사회의 범위를 규율하고 변화를 관리하던 인류문명이 위기를 맞고 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 출발한 것 같은 인생은 결국 아무 것도 얻은 바 없이 새로운 생명의 뒤로 사라진다. 또한 많이 얻고, 빨리 도달하려는 인간의 욕심은 인류가 추구하고자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빠르게 지나가는 과정은 목표점에 마름질되기 일쑤다. 이왕에 가야할 길도 천천히 걷게 되면 자신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느리지만 근본을 헤아리게 되면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느린 변화과정에서 얻게 되는 여유가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다. 문화란 만들고 느끼는 과정이지, 결과물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여유 없이 문화를 논할 수 없다. 여유 있는 삶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커다란 흐름을 거부할 수 없는 개인이 느린 행보로 여유를 찾기란 지난한 세상이 되었다. 점심 한 끼에 서너 시간을 들일 도시인을 상상하기가 어렵다. 빠른 교통수단을 거부하고 천천히 걸어서 직장에 가도 되는 도시공간구조 역시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라도 느리지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도시를 가꾸고 지역사회를 회복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 ‘느린 도시 가꾸기 운동(slow city movement)’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흔히 ‘느림’으로 표현되어 온 충청도에 대한 인식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흔히 방향 감각이 없는 속도경쟁이 ‘발전의 표상’처럼 간주되곤 한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지역정서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오고 있지만 그 동안 학계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느림의 여유’ 입장에서 충남의 정체성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주로 충남의 정체성을 ‘느림’의 입장에서 접근해야하는 근거와 ‘느림’의 사고와 행동이 ‘여유’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도출하는 과정을 탐구한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지역 정체성에 대한 접근논리를 정립하는 연구이다. 지역의 정체성은 시·공간 좌표로 인식되고 있는 바, 시간함수에 대한 동질성과 함께 차별적인 공간인식에 대한 논거를 포함하고 있다. 시간함수의 동질성은 구성원의 통합근거이고, 공간함수의 차별성은 ‘열린 선택’의 근거이다. 구성원의 ‘열린 선택’은 지역발전의 동력으로서 지역정체성을 반영한 ‘지역 브랜드’의 가치는 이러한 ‘열린 선택’을 통해 경쟁우위를 갖

게 된다. 즉, 지역정체성은 시간함수와 공간함수의 융복합물로 접근된다.

둘째는 시간함수 측면에서 충남의 역사인식과, 인물, 유물과 유적, 그리고 세시풍속, 무속신앙, 음식, 예술 및 언어를 포괄하는 문화에서의 동질성을 도출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내용은 ‘느림’의 여유와 ‘빠름’의 졸속을 구분하는데 유용하다. 개인의 선택과 공공 혹은 집단의 정책결정은 변화를 관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변화의 성분은 방향과 속도로, 이들 두 성분의 상대적 무게에 따라 각각이 맞게 되는 미래의 품질은 달라질 것이다. 방향설정은 주로 기회비용과 관련되어 있고, 속도조절은 주로 자원투입량과 관련되어 있다. 결국 잘못된 방향설정은 자원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와 기회비용으로 인한 2중의 손실을 초래한다. 따라서 변화를 관리함에 있어서 여유로운 ‘느림’이 졸속의 ‘빠름’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셋째는 충남의 공간함수를 위치와 면적, 지형적 특성, 인문환경, 지역구분 입장에서 접근하고 이들 공간요소별로 차별성을 도출하는 연구이다. 물론 연구시간과 비용 때문에 충남의 공간함수 전반에 걸친 검토가 어렵겠지만, 충남의 독특한 공간요소를 차별성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충남 사람의 공간 활용방식을 흔히 ‘느림’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느림’의 성분 혹은 표현인자를 어느 입장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지역, 즉 인간활동의 터전을 구분하는 인식도 이러한 공간 활용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행동의 느림, 인식의 느림, 표현의 느림 등은 모두 이러한 ‘느림’의 접근논리와 ‘느림’의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는 이 연구의 목적을 도출하는 것으로 충남의 정체성을 종합하는 연구이다. 충남의 정체성은 역사인식, 유물과 유적, 문화를 통한 시간함수, 그리고 위치와 면적, 지형적 특성, 인구분포 등 인문환경, 지역구분 등으로 표현되는 시간함수로 접근될 수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과제는 방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접근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의 연구기간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주로 충남의 역사와 공간특성, 그리고 주민들의 의, 식, 주와 관련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접근한다. 그러나 이 과제의 연구기간을 고려하여 충남 정체성 접근논리에 큰 비중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보다 사실적인 근거를 조사하고 충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 식, 주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은 기존 문헌에 의존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본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다.

충남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그리 흔치 않다. 다만 충남 지역 일대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언연구와 풍속에 관한 연구, 그리고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정체성에 대한 종합적 접근논리를 수립할 때 모두

고려의 대상이다. 특히 충남의 모든 현상을 시·공간 좌표에 나타내기란 지난한 일이다. 따라서 연구기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정체성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지역 정체성 지표는 이 분야 향후 연구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표 1-1〉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충남의 역사와 전통문화 > 충남 역사와 전통문화를 기술함	문헌연구	백제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특징을 열거
	2 <과제명: 충청남도 정체성을 위한 환경색채 연구> 충남의 고유색채 도출	문헌연구와 전문가 설문	경관요소로서의 환경색채 도출
	3 <과제명: 지역정체성과 제도화: 지역지리학의 새로운 모색 내포지역 연구> 충남의 지역지리적 특성 연구	문헌연구	내포지방에 대한 지리적 접근 모색
본 연구	충남의 정체성을 도출하기 위한 시·공간 좌표를 도출하고 충남의 특성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를 이러한 시·공간 좌표상에 종합.	지역정체성에 관한 이론적 토대 구축, 기존 연구 종합, 문헌연구	충남의 시간함수와 공간함수를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종합.

기존 연구들은 충남의 정체성 관련 연구라기보다는 충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분야별 특성을 연구한 정도라서 종합적인 충남의 정체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 연구는 이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었던 충남의 정체성에 관한 단편적 연구를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충남의 정체성에 관한 선행 연구와 이 연구와의 차별성을 요약하면 〈표 1-1〉과 같다.

4. 연구의 활용방안

본 연구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주민들의 정주의식이 약화되어 각종 지역문제가 심각해지고, 지역갈등이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충남의 지역정체성을 재인식하여 충남도민의 정주의식을 회복하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 막연하게 이야기되어 왔던 충남의 ‘느린 생활’과 ‘양반기질’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이를 주민들의 실생활과 연계할 수 있는 좌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천 논리를 도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충남의 정체성은 다른 지역의 그것과 크든 작든 차별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충남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내용이 광범위하여 어느 한 분야, 어느 특정의 접근논리만으로 이를 인식하기란 불가능하다. 또한 접근 틀에 의해서도 지역 정체성의 표상과 의미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충남의 정체성을 도출하기에 앞서 충남의 시·공간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 논리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개발은 충남의 정체성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이자 필요조건이다. 이 과정에서 충남의 정체성은 색깔과 질감을 달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어느 지역의 정체성 도출이 규범적 당위성에 함몰되어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게 해준다.

제2장 지역정체성 개념과 접근 틀

1. 지역정체성과 지속가능한 인류사회의 발전

1) 인류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역정체성

도시성장과 대도시화는 21세기에든 계속 논의될 20세기 중요 쟁점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도시거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 긍정적인 것으로 고려되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성장과 대도시화는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일련의 도시계획적, 경제적 및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선진국을 막론하고 도시빈곤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그늘에 가려 치유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후진국 도시지역에서의 소외계층이 인구의 40%를 상회하고 있다는 보고가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선진국 도시들도 소외 이웃, 무주택자, 약탈자 및 약물남용 등 유사한 사회혼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상당부분은 비교우위만을 추구하는 사기업에 의해서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도시의 경제현실과 연계되어 있거나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표면화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도시정부의 권한강화나 지방자치의 구현으로 이제 도시는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키거나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당사자가 되고 있다. 확실한 것은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것을 달성할 수 없고, 도시개발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도시는 단지 혼란에 빠지고, 상응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며, 필요한 서비스 공급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와중에서 불량 주거지, 불법 주거지, 불안, 조직범죄 및 불법고용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적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거버넌스¹⁾가 필수적이다. 새로운 도시거버넌스와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논의하기 전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개념과 그 변천과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1) 여기서 도시거버넌스(Urban Governance)는 정부와 시민사회간 관계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이론적으로 시민사회의 참여가 민주적 도시거버넌스 관계를 구축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은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유엔 보고서에 기초하고 있다. 브룬트란트 보고서²⁾(the Brundtland Report)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미래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손상하지 않고 현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변화의 관리)"로 정의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천연자원이나 경제적 자원관리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관점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은 만연하고 있는 빈곤문제를 다루는 방법인데, 보고서에서도 "기술과 사회조직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관리되고 개선될 수 있다. (중략) 지속가능한 발전은 모두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그들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필요로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1993년 유럽연합은 환경에 관한 그들 행동 프로그램에서 지속가능성을 "...환경과 자연자원, 인간 활동기반 그리고 미래 발전을 손상하지 않고 지속적인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촉발하는..."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자연환경의 개념은 인간정주를 포함한 일반적인 환경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 OECD가 1991년 발간한 [1990년대 도시 환경 정책]이라는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 개념에서 필요한 도전은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도시가 지속 가능한 지구적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는 항상 지구환경의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그들 단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은 1992년 리우데 자네이로(Rio de Janeiro)에서 개최된 [지구 정상 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Agenda 21)]의 주요 주제의 하나이다. 도시의 미래관리 또한 다른 환경의 관리와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전략을 검토해 보면 사회적 분야의 지속가능성은 다른 영역 즉 경제적, 환경적 분야에서의 지속가능성에 비해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거나 외면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 시작된 유네스코(UNESCO)의 사회변동 관리프로그램(MOST)은 진정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부각시킨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문명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동미래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공간단위와 연계되어 있다. 특

2) '환경과 발전을 위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는 1983년 노르웨이 정부가 지구적 차원에서 빈곤과 개발, 그리고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유엔에 제안하여, 1987년 구성되게 되었는데, 당시 노르웨이 야당 당수였던 브룬트란트(Gro Harlem Brundtland) 여사가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보고서명을 이렇게 부르기도 있다.

정 공간 범위 안에서 확인될 수 있는 동일성과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인식할 수 없다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 또한 실체가 없다. 따라서 지역의 정체성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대전제이다.

2) 지역 정체성을 통한 사회적 지속가능성

사회는 동일성에 기초하여 차별성을 수용하도록 작동한다. 지역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그만큼 사회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다. 특히 사회 안전망은 지역을 관리하는 목적에 해당한다. 인류의 생태적 위협은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달려있지만, 인류사회의 안전망은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달려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네스코(UNESCO)는 1995년 세계 11개 도시(제네바, 볼티모어, 부다페스트, 케이프 타운, 리용, 마이애미, 몬트리올, 나이로비, 산 살바도로, 상 파울로, 토론토, 유트레이트)를 연계하여 사회변동 관리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대규모, 장기적 연구를 지원하고 그 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자료를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의 연구주제 중 하나는 가속화된 사회변동 영역에서 도시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하는 것이다.

사회변동관리 프로그램팀은 1995년 결성되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간적 정책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세계 11개 도시로부터 학자, 실무자 및 정책결정자들이 참여한 이 프로그램은 1995년 몬트리올과 토론토에서 첫 모임을 가졌고 1996년 제네바에서 집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세 번째 회의는 1998년 9월 케이프 타운(Cape Town)에서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연구성과는 [도시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다양성 및 변화의 관리]로 명명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는 중요 지역정책을 분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공간계획과 사회적 관점을 함께 고려하는 일이며, 세 번째는 도시정책경험을 비교하고 도시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단계와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네스코의 이러한 사회변동 관리프로그램은 한 마디로 대도시권 정책과 그 지방적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다양할 수밖에 없는 도시관리기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커다란 의의 중 하나는 이제까지 도시관리에서 등한시 되어온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1992년 [지구정상회의]에서 천명된 ESSD(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모든 분야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시장원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도시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도시문제를 전

지구단위에서 작동하기 마련인 시장원리에 맡긴다는 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을 감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산업혁명 이후 보편화된 일상용품의 수요·공급과 관련하여 국가간, 도시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시장원리는 자원배분을 쉽게 해주지만 다음 세대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극단적으로 보면 시장원리는 현세대만의 집단 이기주의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의 맥락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발전과 지속가능성과의 상반된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발전’은 변화의 맥락에서 ‘지속가능성’은 변화를 거부해야 하는 맥락에서 잉태된 패러다임이라는 것이다. 혹자는 이 양자의 타협 가능성을 두 개념의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찾으려 하고 있다. 즉 어떤 문제의 근원을 찾아 이전 상태로 전환까지도 발전의 맥락에서 접근한다든지 현재의 관성력을 유지하는 노력까지도 지속가능성에 포함시키려는 시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타협은 현실을 외면하기 위한 일시적 위안을 줄뿐이다.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지 실패나 좌절, 절망에 대한 ‘위로’가 아니다.

변화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변화를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인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근거다. 그러나 정작 변화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실천수단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현상일 뿐이고 이러한 현상을 지배하고 있는 요인들은 초 인류적이기 때문이다. 흔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그것이지 단지 가장 완전한 독립체인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있다는 이유 때문에 ‘주어진 것’으로 제쳐놓고 있다. 모든 개인이 독자적으로 ‘지속가능성’만을 충족시킨다고 해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러한 과정은 시장의 실패현상에서 검증된 바 있고, 정부의 실패현상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인류는 전체주의와 집단주의가 명멸하고 개인주의가 부침하는 경우를 익히 경험하였다.

개별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일은 그래서 또 다른 전지구적 생존 전략과 연동되어 있다. 따라서 21세기 도시행정의 화두가 여전히 ‘지속가능한 발전’으로부터 출발할 것이라는 예상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정작 지속가능한 발전의 표상에 대해서는 논의가 적었다. 그런 점에서 유네스코가 1995년 착수한 사회변동 관리 프로그램은 사회적 지속 가능성의 필요성을 인식한 계기가 되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동일성의 주체를 확인하고 차별성의 수용범위를 정의하는 단계로부터 인식된다. 따라서 사회변동 프로그램은 지역정체성을 활용하는 대표적 도시경영전략을 도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2. 지역정체성의 개념과 시·공간함수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은 지역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의 집합이다. 지역정체성은 지역사회 역사와 공간특성을 통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개별성과 지역을 인지하는 일관된 표상 혹은 동일성의 융복합산물이다. 따라서 지역정체성은 시·공간 함수로 표현된다. 시간함수와 공간함수는 상호작용 관계에 있다. 특정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당시 주어진 물리적 공간 환경으로부터 완전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정체성은 시간함수와 공간함수를 혼합하여 구성한 나선형(螺旋形)의 형태로 인지된다. 공간현상이 시간함수로 표현되기도 하고, 시간현상 즉, 역사적 사건 등이 공간함수로 표현되기도 한다. 환경결정론(environmental determinism)과 환경가능론(environmental possibilism)의 병립은 이러한 시·공간 함수의 상호작용에 근거하고 있다.

즉, 지역정체성의 두 가지 중요성분은 역사인식으로 표현되는 시간축과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지리적 특성으로 표현되는 공간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무리 훌륭한 역사를 가진 지역사회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보존하며, 소중히 여기는 역사인식이 없다면 이를 지역정체성과 연계시키지 못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에 고유한 지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를 소중히 여기는 인식이 부족하다면 주민들의 정주의식을 높일 수 없다. 문화란 통시적(通時的)으로 일관된 동일성의 확인이 전제되어 있다. 어느 지역의 문화는 시간함수의 특정 단면에서 보면 공간적 차이로 표현된다. 다른 지역과의 차이가 곧 특정지역의 고유문화로 인지된다. 따라서 문화는 시간함수이자 공간함수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를 구성원의 동일성 인식의 근거로 접근하여 시간함수에 포함시켰다.

〈표 2-1〉 지역정체성의 시공간 행렬(matrix)

구 분		시 간 함수	
		동일성	차별성
공간함수	동일성	①	②
	차별성	③	④

원래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심리학의 자아이론(self theory)에서 나온 것으로 한 개체 또는 사회적 집단이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성이다.³⁾ 다른 개체 혹은 다른 집단과

3) E. H. Proshansky et al., 1983, "Place-Identity : Physical World Socialization of Self",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vol. 3, pp. 57-83(계기석, 2001에서 재인용).

구별되는 특성은 개체 입장에서는 차별성이지만 집합적으로는 공유할 수 있는 동일성이다. 즉, 지역의 정체성은 다른 지역과의 차이점과 지역 안에서의 동일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결국 지역정체성의 두 가지 성분 즉, 시간함수와 공간함수는 각각 집합적 개념으로서의 동일성과 개체로서의 차별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정체성의 행렬은 <표 2-1>와 같다.

<표 2-1>의 지역정체성 시·공간 행렬에서 ①의 유형은 동일한 역사와 동일한 공간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비교적 작은 공간단위의 지역정체성을 나타내고, ②의 유형은 역사는 달라도 동일 공간조건에서 생활하는 다민족, 다문화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③의 유형은 역사를 같이 하면서도 다양한 공간특성을 보여주는 연방 국가에서 흔히 나타나고, ④의 유형은 역사적 배경과 공간적 특성이 다른 신생 지역, 혹은 신개척지의 정체성 행렬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일성과 차별성은 연속선상의 동일 좌표에 속한다. 즉, 동일성과 차별성은 정도의 차이이지 차원을 달리하는 표상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정체성(regional identity)은 지역을 통해 인지되는 표상으로서 지역의 역사, 지리, 문화, 경제, 사회작동체계(지역사회 규범 등)와 연동되어 있다. 이러한 표상들은 단편적인 지표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독립변수, 즉 역사인식, 역사적 인물, 전통사상, 세시풍속, 전통예술, 언어적 특성, 역사적 사건, 역사적 인물, 기록, 유물, 유적 등을 총체적으로 투입하여 인지되는 시간함수와 지형, 기후, 인구특성을 반영하는 인문현상, 토지이용 등 공간 활용방식 등을 총체적으로 투입하여 인지되는 공간함수로 표현된다.

이 경우 지역정체성의 공간함수와 시간함수를 구성하는 개별 독립변수들은 지역 내부의 결속을 유지하기 위한 동일성과 다른 지역과의 연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차별성을 도출하는 근거에 속한다. 동일성은 일관된 인식에 근거하고 있어서 폐쇄적인 속성을 나타낼 수 있으나 차별성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러한 ‘서로 다름’을 공유함으로써 개방적 속성을 나타낸다. 결국 특정 지역의 정체성은 시간함수와 공간함수의 결합에 의해 표출된다. 그러나 대체로 특정 지역의 시간함수는 구성원들의 결속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공간함수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적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차별적 경쟁우위는 지역과 국가 전체적으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상호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방식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종합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에서 시·공간 함수가 언제나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민속과 생활습관 등은 시간함수와 공간함수가 결합하여 표현되는 종합 지수(index)에 해당한다. 시간함수의 독립변수인 유물과 유적은 종종 공간적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나누고 각각의 특성을 강하게 발현하는 분야별로 시간함수와 공간함수를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각각의 지표들은 소

리와 색채 등을 통해서도 발현된다.

<표 2-2>에서 시·공간 함수가 언제나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민속과 생활습관 등은 시간함수와 공간함수가 결합하여 표현되는 종합 지수(index)에 해당한다. 시간함수의 독립변수인 유물과 유적은 종종 공간적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나누고 각각의 특성을 강하게 발현하는 분야별로 시간함수와 공간함수를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각각의 지표들은 소리와 색채 등을 통해서도 발현된다.

<표 2-2> 지역정체성의 시·공간함수별 독립변수

지역정체성 함수	독립변수(지표)	주요 기능
시간함수	지역의 역사, 역사적 인물, 유물과 유적, 문화(세시풍속, 토속신앙, 음식, 예술, 언어).	해당 지역 혹은 집단의 동질성에 근거한 내부결속 강화
공간함수	위치와 면적, 지형, 기후, 인문환경, 지역구분, 공간활용 방식 등	해당 지역 혹은 집단별 차별성에 근거한 경쟁우위 확보

종종 지역주의(regionalism)가 지역정체성에 편승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의는 동일 차원에서의 다른 지역을 포섭하려는 성향을 포함한다. 이에 비해 지역정체성은 우선 해당 지역 자체에 국한한 인식근거를 가지고 있다. 즉, 지역정체성은 내부의 동일성과 외부와의 차별성을 통해 인지되지만 지역주의는 통합적 공통분모를 통해 인지된다. 지역정체성은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다른 지역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지만 지역주의는 외부와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동일화를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지역주의는 개방적 네트워크 확대성향을 보여주지만, 지역정체성은 그 자체의 지적 의장(mental construct)에 국한한다. 따라서 지역정체성에 근거한 지역주의 형성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특히 지역정체성은 구성 요소별 특징을 그대로 인정하는 반면, 통합적 성향을 지닌 지역주의는 내부 구성요소의 개별 특성을 감추려한다. 지역주의는 하부 공간단위를 통합하는 성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통합의미, 즉 목적을 내세워야 하지만 지역정체성은 과거와 현재의 사실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지역주의는 규범적 성향이 강하고 지역정체성은 실증적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지역정체성에 기초한 지역의 발전방향 제시가 구성원들에게 설득력이 있다.

3. 지역정체성의 접근 틀

지역의 정체성은 한 나라의 정체성과는 달리 공간과 제도의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⁴⁾ 한 나라의 정체성이 국경이라는 다소 경직된 여과장치를 통해 인식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정체성은 나라 안에서 어떠한 지리적 경계를 인식하지 않고 넘나들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의 정체성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점(point)처럼 인식되기도 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통해 보다 광범위하게 면(surface)을 이루기도 한다.⁵⁾ 그러나 주민들의 활동과 공간은 서로 맞물려 있어서 주민활동이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기도 하고 이미 형성된 공간에 의해 주민활동이 파생되기도 한다(Friedman, J., 1972).

뿐만 아니라 주민활동은 활동내용에 따라 공간적 범위를 달리한다. 즉, 주민들의 문화활동은 작은 자연부락에서부터 몇 개의 자연부락을 합한 행사에 이르기 까지 공간 범위를 달리한다. 정치활동의 경우 지방의원과 같은 작은 단위의 선거구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구까지 공간규모가 다양하다. 경제활동의 경우 공간범위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있다. 주민들의 경제활동은 인구(노동력), 자본, 정보 및 의사결정 등과 같은 생산요소의 흐름현상(flow)으로 파악되는데 각각의 생산요소가 선호하는 흐름방향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때 나라경제라면 이들 흐름현상이 국경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겠지만 나라 안에서의 지역경제는 그렇지 않다.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경제정책이 간단치 않은 이유다. 이들 흐름의 주체는 한편 공간형성적(space forming)이고, 다른 한편 공간파생적(space contingent)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공간질서를 만들기도 하고 소극적으로 기존 공간질서에 의해 구속받기도 한다(소진광, 2010). 그만큼 지역의 경제활동을 통한 지역정체성 도출이 간단치 않은 이유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정체성을 도출하기 위한 접근논리는 경제활동과 경제공간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과정은 개별 주민들의 경제행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인간의 경제행위는 생산과 소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생산과 소비 모두 공간상에서 이루어진다. 즉, 경제활동과 관련한 지역의 정체성은 ‘어디서’라는 장소적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다. 어떠한 공간조건에서 가능한 경제활동의 내용과 규모를 분석해낼 수 있다면 그와 관련한 공간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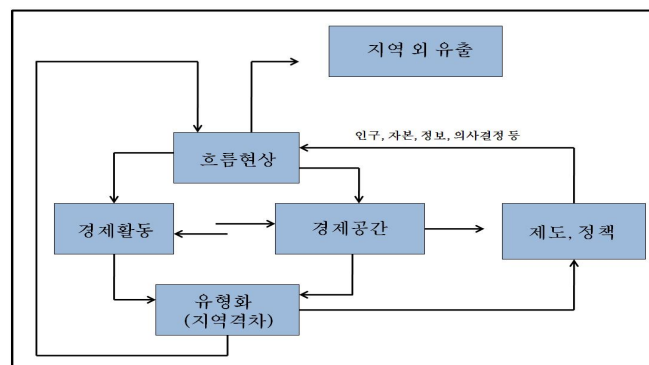
4) 지역(region)은 확정하는 목적에 따라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여러 개의 나라를 하나의 지역으로 인지할 수 있을 것이고, 한 국가 안에서 보다 작은 공간단위의 지역을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주로 한 국가의 하부 공간단위를 지역으로 인지한다.

5) 지역정체성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인식(혹은 태도)과 행태의 연결통로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민들의 활동거리에 따라 지역 정체성의 공간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생산과 소비의 공간범위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도로, 항만, 상하수도, 주택, 공업용지 등 공간변수를 조합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새로운 댐, 도로 혹은 다리를 건설하여 주민활동의 방향과 상호작용을 변화시켰던 사례에서 흔히 발견된다.

다른 한편 지역의 정체성은 다른 지역과의 경쟁적 관계에서 인식될 수 있다.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교육여건, 도로, 공업단지, 각종 편의시설 등 공간변수를 조작하여 유리한 생산요소를 가능한 한 많이 끌어들이고 다른 지역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지역정체성은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관점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촉발하는 효과를 유발한다.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에 필요한 조건과 여건들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요소에 따라 공간범위를 달리하고 그러한 공간범위 안에서 자족화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발생빈도가 작고, 대체로 효용이 매우 높은 고도의 생산, 소비는 더 넓은 공간범위 안에서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경제활동은 공간집적을 통해 누적적으로 반복된다.

공간집적효과는 인구, 자본, 정보 및 의사결정과 같은 유동적 생산요소의 흐름방향과 속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러한 유동적 생산요소는 특정 공간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경제활동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 생산요소의 흐름현상이 일정 시점에서 특정의 유형, 즉 지역경제의 경관차이(지역격차)로 인지되고, 이것이 규범적 질서를 통해 투영될 때 문제점이 도출되며, 이를 개선 내지 완화, 혹은 극복하기 위해 제도와 연계될 때 이들 인구, 자본, 정보 및 의사결정의 흐름방향과 속도는 새로운 경제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소진광, 1999). 즉, 경제변동과정과 경제활동패턴은 상호작용하여 이와 관련한 지역정체성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림 2-1>은 이러한 지역경제의 작동체계가 지역의 정체성 변화에 미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1> 지역경제의 작동체계와 지역정체성 변화 과정

지역의 정체성을 지역발전 정책과 연관하여 접근할 경우 <그림 2-1>이 시사하고 있는 바는 크다. <그림 2-1>에서 공공부문은 제도와 정책을 통해 직접적으로 공간시설을 조작하고, 혹은 공간조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산업부문정책 혹은 비공간정책(aspacial policy)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경제주체는 스스로 생산요소의 공간선호방향과 속도에 적응하며 부가가치를 생산한다. 즉, 사적 부문에서의 경제주체는 시장의 속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회체제의 유연성에 의존한다.

<그림 2-1>에서 특정 지역의 경제발전은 인구, 자본, 정보, 의사결정 등 경제활동에 유리한 유동적 생산요소의 흐름방향과 속도로 설명될 수 있다. 경제관점에서 지역발전은 지역 안에서 경제활동에 투입될 수 있는 자본, 인구(노동력 원천), 정보 및 의사결정이 유입되고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인구, 자본, 정보 및 의사결정 등 유동적 생산요소의 흐름은 유출지역과 유입지역의 상대적 위상에 달려있다. 이러한 유동적 생산요소의 흐름방향과 속도는 비교 대상 지역의 이들 생산요소 위상 차이에서 도출되는데, 이러한 위상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지역의 경쟁력과 관련되어 있다.

<그림 2-1>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특정 지역 안에서 경제순환이 지역 외 유출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독자적 공간활용능력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은 인구, 자본, 정보 및 의사결정 등 유동적 생산요소의 흐름방향과 속도를 유리하게 조작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역특성으로부터 자유롭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외생적으로 주어진 경제환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⁶⁾ 이는 중소기업이 지역의 경제환경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을 설명한다. 즉, 중소기업의 활동은 지역의 여건을 기반으로 하고 그 과실 역시 지역 안에서 재순환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활동과실은 지역 외부로의 유출이 적다. 중소기업이 지역정체성에 민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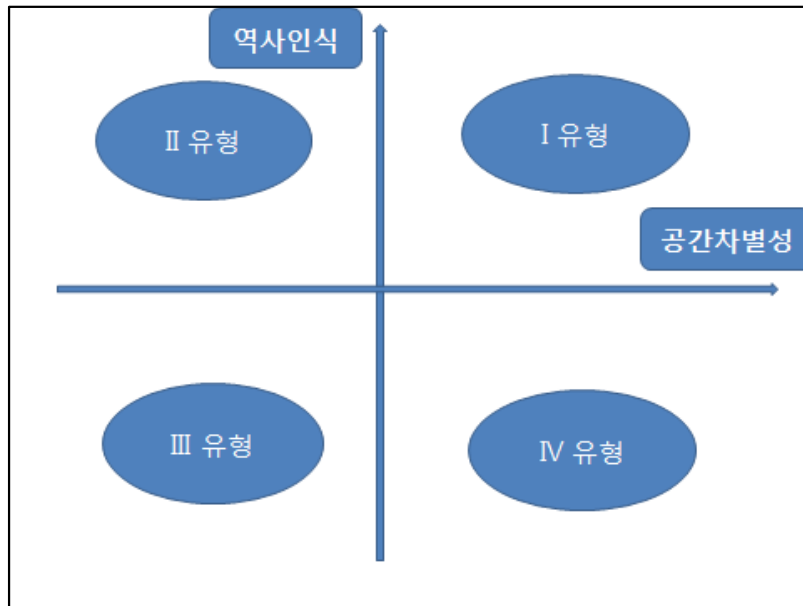
역사적 사실만으로는 지역정체성의 시간함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민속, 언어, 생활습관, 역사적 사건, 유물, 유적, 역사적 인물 등은 시간함수의 독립변수에 속하지만 이의 변환장치는 역시 사람의 인식이다. 결국 지역정체성의 시간함수는 주민들의 역사인식으로 집약된다. 다만 개별 독립변수 즉, 민속, 언어적 특성, 생활습관, 역사적 사건, 역사인물, 유물, 유적, 시간활용방식 등은 역사인식의 소재일 뿐이다(<그림 2-2> 참조).

다른 한편 지역별 공간현상에 속하는 지형, 기후, 인구분포 등 인문현상, 물리적 시설, 토지이용 방식 등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통해 공간적 차별성으로 귀결된다. 지

6) 이러한 관점에서 Galbraith(1967)는 대기업을 계획체계기업(planning system firm), 중소기업을 시장체계기업(market system firm)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대기업은 자신들의 능력에 맞게 공간을 형성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거래처 입장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공간을 선택하게 된다.

역별로 다른 지형, 기후, 인문현상, 물리적 시설, 토지이용방식 등의 존재는 결국 인간의 공간활용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역의 공간함수는 생활환경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림 2-2>의 시·공간좌표에 의한 지역정체성 유형은 우선 지역주민들의 역사인식이 뚜렷하고, 공간적 차별성이 큰 I 유형과, 반대로 주민들의 역사인식이 부족하고 공간적 차별성이 두드러진 III 유형, 주민들의 역사인식은 강하나 공간적 동질성이 두드러진 II 유형, 그리고 지역의 공간적 특성은 큰 차이를 보이지만 주민들의 역사인식이 약한 IV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정체성의 시·공간좌표는 지역별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 행태를 조사하여, 비교하고 그 상대적 위상 차이를 기반으로 접근할 경우 보다 실증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역정체성이 실증적 논리를 띠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림 2-2> 지역정체성의 시·공간 좌표

제3장 충남 정체성의 시간함수

1. 충남지역의 역사⁷⁾

충남 일대는 선사시대 서력기원전(B.C) 10세기 이전부터 수만 년에 이르는 구석기 시대 유적이 공주 석장리에서 발견되었고, 도내 전역에서 청동기 유적들이 발견됨으로 미루어 구석기시대부터 인류가 거주한 흔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삼한시대에는 충청남도의 대부분이 마한의 북변지로서 당시 마한의 중심지이며 정치적 주도권을 쥐고 있던 월지국이 지금의 천안시 직산면 일대로 추정되고, 마한의 54국 중 15개 소국 정도가 충청남도지역에 분포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부여계 고구려인이 이곳에서 나라를 세우고, 터전을 잡았는데, 백제시대 고이왕(234-286, 18대)은 6좌평을 설치하고, 16관등제를 도입하였으며 나라의 기반인 법령을 반포하였다. 이어 근초고왕(346-375)은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를 완성하였고, 서기 371년 평양성을 공격하였고, 부자상속제도를 정착시켰으며, 서기를 편찬하였다. 김류왕 원년(384)에는 불교를 공인하였고, 웅진도읍기인 서기 479년부터는 백제는 국력을 회복하였다.

백제의 동성왕은 새로운 도읍지로 사비(지금의 부여)를 선정하였고, 26대 성왕(523-554)은 538년 사비천도를 단행하여 도성을 정비하였고(5部 5巷), 방군성제(方郡城制)를 통해 지방제도를 완성하였다. 이어 성왕은 551년 신라 진흥왕과 연합작전을 실시하여, 한강유역을 회복하였으나 554년 신라와의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이 전투에서 좌평 4인 등 모두 29,6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은 전하고 있다.

백제는 각종 첨단기술이 발달하여 신라와 왜(倭)에 전수하였고, 특히 왜(倭)에는 오경(五經), 의(醫), 역(易) 분야의 박사를 파견하였고, 불경을 전파하였다. 법왕(599-600)은 살생을 금하는 칙령을 내렸고, 무왕(600-641)은 백제 정원문화의 진수인 궁남지를 조성하였으며, 미륵사와 왕흥사를 창건하였다. 의자왕(641-660)은 제위 초기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 해동증자(海東曾子)로 칭송되었고, 연개소문과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백제는 왕비인 은고(恩古)의 권력욕이 지

7) 이 부분은 주로 충청남도의 홈페이지(www.chungnam.go.kr)와 강종원, “충남의 역사와 백제문화”를 참조하여 저자의 입장에서 정리한 것임.

나쳐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되고 서기 660년 라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였다. 백제의 국력은 5부(部), 37군(郡), 200성(城), 76만호로 기록되어 있는데, 백제를 멸망시키고 세웠다는 평제비에는 24만호 600만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백제의 지방통치제도는 부제(部制), 담로제(檀魯制)를 거쳐 방군성제(方郡城制)로 이어졌다.

통일신라시대 충남 일대는 웅진도독부와 소부리주(사비주), 웅천부, 웅주 등으로 불렸으며, 후삼국시대에는 견훤이 세운 후백제의 영역에 속하였다. 고려시대 충남지역은 하남도, 양광도, 충청주도, 충청도 등으로 불렸으며, 경기도와 합침과 분리가 반복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4년(1396년)에 양광도를 충청도와 경기도로 분리하였고 선조 31년(1598년)에는 감영을 충주에서 공주로 이전하였으며, 이후에 충청도의 명칭은 공청도, 충청도, 공흥도, 충흥도, 공충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개칭되다가 순조 34년(1834년)에 공청도에서 충청도로 환원되었다. 고종 33년 1896년 칙령 제36호로 13도제로 개편됨에 따라 충청북도와 분리되어 비로소 충청남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2. 충남의 인물⁸⁾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며, 기록을 남긴다. 사람의 행적은 후대에 전해져, 시간흐름의 맥락을 이룬다. 후대에 전해지는 사람의 행적은 후대의 길잡이가 되어 통시적(通時的) 맥락을 이룬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람의 행적이 곧 지역정체성의 중요한 시간함수 독립변수이자, 종속변수이기도 하다. 사람의 기질이 지방에 따라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충남의 기질은 곧 충남에 살았던 사람들의 치적을 이룬다. 찬란한 백제문화가 꽃피었던 충청 지역이 조선시대에 이르면 선비문화의 중심지로 부각된다. 이의 논거는 이곳에 살았던 사람의 행적에 있다. 충청도는 흔히 ‘양반의 고장’, ‘선비의 고장’, ‘충절의 고장’이라고 일컬어져 왔는데, 이는 일찍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 양반, 선비, 충신·열사가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충청도를 흔히 양반의 고장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도 충청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질을 역사적 맥락에서 조명한 때문이다.

‘선비’라는 단어는 한자어가 아닌 순수한 우리말이다(임선빈). 선비가 언제부터 사용되던 용어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훈민정음이 창제된 직후인 조선초기의 기록에서는 선비의 고어가 ‘선뵤’로 유사(儒士)·유생(儒生)을 뜻하였다. 이 선비는 시대에 따라 그 개념이 변해왔는데, 조선초기에는 고려 이후 유학을 공부하여 문한(文翰)을 전업으로 하는 문사를 지칭한 것으로, 유학을 공부하여 관리가 되려는 사람이나 관리가

8) 이 절의 상당 부분은 저자가 제시한 지역정체성 시간함수에 임선빈, 2008,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대입한 것임.

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즉 유자(儒者)의 의미가 강하였다.⁹⁾ 조선후기에 이르면 선비의 계속적인 증가로 벼슬하지 못한 이들이 선비의 대종을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조선말기의 선비상은 벼슬하지 못한 자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벼슬하지 못한 선비가 증가함에 따라 ‘士’의 본래적 의미, 즉 벼슬로서의 의미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894년 유교 교양인을 관료로 선출하던 전통시대의 인재등용 시험인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근대 교육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나아가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자, 전통적인 ‘선비’ 개념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이 벼슬길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일제 시대에 식민지 관료는 현실과 타협하면서 신학문을 공부해야만 했다. 반면에 전통적인 선비는 식민지 관료가 되는 것을 치욕으로 생각하여 벼슬과는 관련이 없는 순수한 의미의 포의(布衣)로 남게 되었다. 이때부터 선비는 ‘학식이 있되 벼슬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선비들은 같은 시기 세계 다른 지역의 지배층에 비해 건장한 도덕성을 지니고 있었다. 학문을 통해 전수받은 학맥(學脈)을 고수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하여 세상을 보고, 대하는 논리를 고수했기 때문에 이들 선비들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선비정신은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현실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이룬다. 따라서 이 무렵 선비들은 오히려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을 지닌 인물이라 보수 세력의 강한 견제를 받기도 하였다.

선비문화의 전성기는 조선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 충청도는 선비문화의 중심지였다. 일찍이 여말선초 성리학이 수용되던 시기에 충남 출신 학자들은 성리학 수용과 연구에 앞장섰으니, 보령 남포의 이재 백이정(白頤正, 1247~1323)과 서천 한산의 이곡(李穀, 1298~1351)·이색(李穡, 1328~1396) 부자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석탄 이존오(李存吾, 1341~1371)는 말년에 공주 석탄(현재의 부여 저석리)에 은거했으며, 야은 길재(吉再, 1353~1419)는 전라도 금주(錦州, 지금의 충남 금산)와 인연이 있다. 선조 사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이개(李塏, 1417~1456)는 이색의 증손자요, 성삼문(成三問, 1418~1456, 홍주)과 박팽년(朴彭年, 1417~1456, 연기·회덕)도 충남과 연고가 있으며, 생육신인 매월당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은 부여 홍산 무량사에 부도와 영정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 문무를 겸비한 진정한 선비 절재 김종서(金宗瑞, 1383~1453)도 공주 출신이었다.

우리나라의 유교는 16세기에 이르면 ‘조선적 성리학’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정도로

9) 최세진의 『훈몽자회』(1527)에서도 ‘儒’가 ‘선비 유’로 풀이되어 있고, 그 뜻은 ‘도덕을 지키고 학문을 힘쓰는 사람’으로 설명되어 있다. 반면에 조선전기의 ‘士’는 유학과 관련된 경우에만 선비로 풀이되고, 사(士)의 일반적 개념은 조사(朝士), 즉 벼슬아치였다. 그러나 조선중기에 이르면 ‘士’가 선비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사(士)가 조사(朝士)에서 유학지사(儒學之士)의 개념으로 확대된 것은 16세기 이후의 조정이 성리학을 수학한 사림(士林)들의 무대가 된 역사적 맥락과 관련 있는 것이다(임선빈).

독자성을 지니게 되었는데, 16세기 기호유학은 화담계열(花潭系列)이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화담 서경덕(徐敬德)은 무인집안 출신으로, 제자를 받아들일 때 문호를 개방하여 양반뿐 아니라 양인·천인에게까지 문하에 출입하게 했다. 화담계열에는 충남의 내포지방에 살던 인물로 이지함·서기·홍가신 등이 포함된다. 토정 이지함(李之函, 1517~1578)은 한산 이씨로 보령사람이며 묘소는 보령시 주포면 고정리에 있고 아산의 인산서원(仁山書院)에 배향되어 있다. 고창 서기(徐起, 1523~1591)는 천인으로서 서자인 이중호(李仲虎)의 문인으로 화담문하에 출입했다. 고창 서기는 공주의 공암에 충남 최초의 서원을 건립한 인물로, 원래 홍주의 상전리에서 태어나 40대까지 홍주에서 살았으나, 만년에 20여 년간 계룡산 자락에서 후학을 양성하다가 그곳에 문힘으로써 ‘계룡산문화권(혹은 금강문화권)’에 성리학적 학풍을 배태시킨 인물로 이해된다. 아산의 향현으로 홍주목사를 지낸바 있는 홍가신(洪可臣, 1541~1615)은 화담의 제자인 민순(閔純, 1519~1591)의 제자이다.

한편, 16세기에 금강 유역을 중심으로 많은 유학자들이 활동했다. 계룡산의 처사 박증(朴增, 1461~1517, 노성), 후기 사림과 김정(1486~1520, 보은·회덕), 기묘명현록에 올라있는 이자(李紆 1466~1524, 한산), 김안로를 탄핵했던 송인수(宋麟壽, 1499~1547, 청주·회덕), 유성과 연고가 있는 박순(朴淳, 1523~1589) 등이 금강유역의 대표적 인물이며, 앞서 언급한 고창 서기도 만년을 계룡산 자락에서 보냈다.

우리나라의 유학은 크게 영남유학과 기호유학으로 대별되는데, 기호유학의 중심은 바로 충청도였다. 조선시대의 학문은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발달하였는데, 조선 후기 300년간의 중앙 정계는 대체로 기호세력이 주도하였다. 문신관료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던 조선시대에는 끊임없이 정치 운영 원리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조선후기 여당에 해당하던 기호학파의 유학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욱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기호학파의 기호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지방[畿內]과 충청지역에 해당하는 호서(湖西)를 가리킨다. 그런데 기호학파의 중심인물들은 호서에서 많이 배출되었다.

기호학파 가운데 율곡 이이의 적통을 계승하는 사계 김장생(金長生, 1548~1631, 연산)과 그의 제자 신독재 김집(金集, 1574~1656, 연산), 우암 송시열(宋時烈, 1607~1689, 회덕), 동춘당 송준길(宋浚吉, 1606~1672, 회덕), 초려 이유태(李惟泰, 1607~1684, 금산·공주), 송애 김경여(金慶餘, 1596~1653, 회덕), 그리고 김집 문하의 시남 유계(兪槩, 1607~1664, 임천·금산), 미촌 윤선거(尹宣舉, 1610~1669, 노성) 등이 호서의 금강유역 인물이다. 김장생·김집 부자가 연산을 중심으로 한 강학활동은 이 지역에 많은 선비들이 운집하게 하였으며, 이후 논산지역(연산, 노성)을 17세기 조선예학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이들의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다섯 사람(송시열, 송준길, 이유태, 유계, 윤선거)을 충청오현이라 했는데, 이들이 모두 금강유역의 인물이

다.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난숙기는 17세기인데, 이 시기의 주도적인 위상에 있던 유학자들은 기호, 그 중에서도 호서출신이 절대 다수였고, 선비 중의 선비라고 할 수 있는 산림(山林)이 여기에 속한다.¹⁰⁾

17세기 산림(山林)의 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조사된 38명 가운데 충청도가 17명, 경기도가 7명, 경상도가 5명, 전라도·강원도가 각각 2명, 평안도가 1명, 미상 4명이다. 충청도 출신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 김장생(연산), 박지계(신창·아산), 강학년(姜鶴年, 1585~1647, 연기·회덕), 김집(연산), 조극선(趙克善, 1595~1658, 덕산), 송준길(회덕), 송시열(회덕), 권시(權諤 1604~1672, 유성), 윤순거(尹舜舉, 1596~1668, 노성), 이윤택(금산·공주), 윤선거(노성), 윤원거(尹元舉, 1601~1672, 노성), 송기후(宋基厚, 1621~1674, 회덕), 이상(李翔, 1620~1690, 전의), 윤증(尹拯, 1629~1714, 노성), 권상하(權尙夏, 1641~1721, 청풍), 이기홍(李箕洪, 1641~1708, 연풍) 등이다.

17세기의 호서유학이 연산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인 회덕, 노성, 금산, 보은, 옥천 등지로 확산되었다고 한다면, 18세기의 호서유학은 금강유역에 머물지 않고 남한강유역과 내포지역에까지 확산되어 나갔다. 송시열의 적전은 수암 권상하(남한강 유역의 청풍)이며, 권상하의 문하에서는 이기론, 예론과 함께 조선시대 성리학계의 3대 논변 중 하나였던 인물성동이논쟁(人物性同異論爭, 일명 湖洛論爭)이 전개되었다. 이는 율곡의 주기론을 보완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경기를 중심으로 하는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 : 洛論)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하는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 : 湖論)으로 갈리었다.

호론(湖論)의 중심인물인 남당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은 내포의 결성현 남당리[현재의 홍성군 결성면 남당리] 출신이며, 그의 지지자들은 예산의 병계 윤봉구(尹鳳九, 1681~1767), 매봉 최징후, 서산의 한간 김한록(金漢祿), 봉암 채지홍(蔡之洪, 1683~1741) 등이 있다. 낙론의 지지자들은 주로 경기도에 살았지만, 중심 인물인 외암 이간(李柬, 1677~1727)은 온양의 외암리(현재의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마을) 출신이다. 한원진의 적통이면서 기철학자로 유명한 녹문 임성주(任聖周, 1711~1788) 또한 말년에 공주에 머물지만 원래는 청풍 출신이다.

10) ‘산림’은 조선시대 산곡임하(山谷林下)에 은거해 있으며 학덕을 겸비하여 국가로부터 정소를 받은 인물로 산림지사(山林之士), 산림숙덕지사(山林宿德之士), 산림독서지사(山林讀書之士)의 약칭으로 임하지인(林下之人), 임하독서지인(林下讀書之人) 등으로도 불리었다. 산림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향촌에 은거해 있으면서 유림의 추앙을 받았으며, 정계를 떠나 있어도 정치에 무관심하였던 것은 아니며, 정계에 진출해 있다 해도 항상 산림에 본거지를 가지고 있는 조선 후기 특유의 존재로서, 이들의 명성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려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수양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즉, 과거를 거치지 않았으면서도 과거를 거친 관료보다 더 존중되는 선비였다(임선빈).

이 외에도 토정 이지함의 조카로 대북의 영수이면서 영의정까지 지낸 아계 이산해(李山海, 1539~1609, 예산군 대술면 방산리에 묘소가 위치), 인조초 김장생·장현광과 함께 조정에 정소된 3대 사림으로 예학에 뛰어났던 박지계(신창, 아산의 인산서원에 배향), 효종때 소현세자의 부인 강빈의 억울함을 논하다가 죽임을 당한 학주 김홍욱((金弘郁, 1602~1654, 정조대의 벽파 김구주의 조상으로 서산 사람, 성암서원 배향, 묘소는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에 위치), 1611년(광해군 3)에 조광조·김굉필·정여창·이언적 등 4현(四賢)을 문묘에 배향할 것을 주장하다가 좌천되었고, 김육이 대동법을 실시하는데 기여한 유명한 학자관료요 교육이론가였던 포저 조익(趙翼, 1579~1655), 권필·윤근수·이호민 등과 함께 동악시단(東岳詩壇)을 만들어 문명(文名)을 날렸으며, 글씨도 잘 썼던 동악 이안눌(李安訥, 1571~1637), 박지계와 조익의 문인이며 성리학과 예설에 밝았던 야곡 조극선, 숙종 때 오래 동안 영의정을 지낸 소론의 영수로, 결성에 우거(寓居)했던 약천 남구만(南九萬, 1629~1711)), 홍주의 구봉산 아래 어재동(현재의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어재동)에서 출생해서 정조대에 10년 독상(獨相)을 지낼 정도로 유명한 남인의 영수 변암 채제공(蔡濟恭, 1720~1799), 추사체로 잘 알려진 완당 김정희(金正喜, 1786~1856, 예산) 등이 내포의 인물이다.

또한 주자학적 경전해석에 반기를 들고 자주적 학풍을 열었던 백호 윤휴(尹鑄, 1617~1680, 공주우거), 구운몽의 저자인 서포 김만중(金萬重, 1637~1692, 연산), 인문지리학자이며 택리지의 저자인 청담 이중환(李重煥, 1690~1752, 공주), 주역을 연구하여 독창적인 정역의 이론체계를 세운 일부 김항(金恒, 1826~1898, 연산) 등이 금강유역에서 활동하였다. 이 외에 북학과 실학의 선구자였던 담헌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이 천안지역에 연고를 갖고 활동한 바 있으며, 면암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은 화서 이항로의 문인으로 위정척사(衛正斥邪)에 앞장섰던 한말의 큰 유학자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유학사에서 충청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한국 정신문화가 유교를 중심으로 큰 맥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충청도는 바로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산실이다. 충청도를 일컬어 ‘양반의 고장’이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충청도 선비들은 현실을 비판하고 개혁을 내세워 종종 자신의 지위와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충청도 선비정신은 ‘문약’으로 표현되던 선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도 다르다. 즉, 충남의 선비들은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던 외적의 침략 앞에서는 자신의 안일을 추구하지 않고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일찍이 조선 중기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에는 이순신(李舜臣, 1545~1598, 아산), 김시민(金時敏, 1554~1592, 천안), 영규(靈圭, ?~1592, 공주) 등 충남의 명장과 의병이 큰 역할을 했다. 중봉 조헌(趙憲, 1544~1592)은 충남출생은 아니지만, 일찍이 홍주목 교수, 보은 현감, 공주목 제독관 등을 역임하였고,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옥

천군 안읍밤티(安邑栗峙)로 들어가 후율정사(後栗精舍)라는 서실을 짓고 제자 양성과 학문을 닦는 데 전념하여 충청도의 선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으므로, 의병을 일으켜 금산전투에서 순절할 때에 충청도의 선비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전통시대 대부분의 의병들은 원래 창칼을 들고 싸움을 하던 무인이 아니라 서책을 갖고 글을 읽던 문인이었다.

조선시대 강건(剛健)한 선비문화의 전통은 근대에 이르러 항일 구국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조선 말 일제강점기에 호국에 온몸을 던졌던 의병장이나 독립운동가로는 민종식(閔宗植, 1861~1917), 이남규(李南珪, 1855~1907), 김복한(金福漢, 1860~1924), 최익현(崔益鉉, 1833~1906), 송병선(宋秉璿, 1836~1905), 이상재(李商在, 1850~1927), 이종일(李鍾一, 1858~1925), 유관순(柳寬順, 1902~1920?), 이동녕(李東寧, 1869~1940), 김좌진(金佐鎭, 1889~1930), 한용운(韓龍雲, 1879~1944), 윤봉길(尹奉吉, 1908~1932) 등이 충남출생이거나 충남과 연고를 지니고 있다.

충청남도가 펴낸 「충남의 얼과 맥」(1996)에서는 충남의 5대 정신을 충효정신, 절의정신, 선비정신, 예의정신, 개척정신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인물을 대응시키고 있다. 즉, 백제시대 성충의 충성, 고려시대 한교의 효행, 조선시대 이순신의 충성, 근세 윤봉길의 의거 등은 충남 충효정신의 맥락을 이룬다. 또한 백제시대 도미 아내의 절개, 고려시대 길재의 지조, 조선시대 성삼문의 절의, 근세 김좌진의 정의감 등은 충남인의 절의정신을 대표하고 있다. 충남인의 선비정신은 청백리 박문수, 이상재의 신의, 이지함의 청빈, 고려시대 이색의 단심(丹心)에서 찾을 수 있다. 충남인의 예의정신은 조선시대 김장생의 예의, 김집의 예학, 송준길의 도학에서 그 맥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충남인의 개척정신은 백제시대 왜(倭)를 개화시킨 아직기, 심훈의 농촌운동, 서재필의 개혁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3. 충남의 유물과 유적

1) 충남의 문화재

충남의 유물과 유적은 이 지역의 역사성을 표현하고 있다. 충남에는 모두 221개의 국가지정 문화재가 산재해있는데, 이를 구분하면 국보가 28개, 국가지정 보물이 97개, 국가지정 사적이 48개, 중요무형문화재가 8개 등이다. 이러한 국가 지정문화재 중 부여군은 49개, 공주시는 44개를 보유하고 있다. 충남지역의 시·군별 국가지정 문화재 현황은 <표 3-1>과 같다.

한편 충남도가 지정한 문화재는 모두 390개로 이 중에서 61개는 공주시예, 55개는 부여군에, 43개는 논산시에, 그리고 36개는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다. <표 3-2>는 시·군별 도지정 문화재 현황을 보여준다. 충남의 도지정 문화재는 모두 390개로 이 중에서 유형문화재는 167개, 무형문화재는 40개, 기념물이 161개, 민속이 22개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문화재는 공주시가 36개, 부여군이 25개, 논산시가 23개, 예산군이 18개를 보유하고 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는 홍성군이 6개로 가장 많고, 부여군, 서천군이 각각 5개, 공주시가 4개, 아산시, 금산군, 청양군이 각각 3개씩 보유하고 있다.

도 지정 기념물은 모두 161개인데, 부여군이 25개로 가장 많고, 공주시가 19개, 예산군이 16개, 논산시가 15개, 천안시가 13개를 보유하고 있다. 도 지정 민속은 모두 22개 인데, 아산시와 논산시가 각각 4개를, 서산시, 청양군, 홍성군이 각각 3개씩을 보유하고 있다.

<표 3-1> 충남의 시군별 국가지정 문화재 현황

구분	합계	국가지정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중요무형	천기	중민
합계	221	28	97	48	3	8	14	23
천안시	13	1	9	1	-	-	2	-
공주시	44	16	18	8	1	1		-
보령시	8	1	3	3	-	-	1	
아산시	14	1	4	3	-	-	-	6
서산시	16	1	10	3	-	-	-	2
논산시	13	-	8	2	-	-	1	2
계룡시	0	-	-	-	-	-	-	-
금산군	5	-	1	1	-	1	2	-
연기군	3	-	2	-	-	-	1	-
부여군	49	4	17	21	1	1	1	4
서천군	8	-	2	2	-	2	1	1
청양군	10	2	7	-	-	-	-	1
홍성군	9	-	4	2	-	-	-	3
예산군	16	1	8	2	-	1	1	3
태안군	5	1	-	-	1	-	3	-
당진군	8	-	4	-	-	2	1	1

충남의 국가지정 국보를 살펴보면, 공주의 당금동보살입상(국보 247호), 족좌<왕>(국보 165호), 두침(국보 164호), 지석(국보 163호), 석수(국보 162호), 청동 신수경외 2점(국보 161호), 은제팔찌<왕비>(국보 160호), 금제뒤꽂이<왕>(국보 159호), 금제경식<왕비>(국보 158호), 금제수식부이식<왕비>(국보 157호), 금제심엽형이식

<왕>(국보156호), 금제관식<왕비>(국보 제155호), 금제관식<왕>(국보 제154호), 계유명 삼존천불비상(국보 제108호) 등이다.

<표 3-2> 충남의 도지정 문화재

구분	합계	도지정			
		유형	기념물	무형	민속
합계	390	167	161	40	22
천안시	22	8	13	1	-
공주시	61	36	19	4	2
보령시	17	9	6	1	1
아산시	18	4	7	3	4
서산시	25	11	9	2	3
논산시	43	23	15	1	4
계룡시	4	2	-	1	1
금산군	14	6	5	3	-
연기군	12	5	7	-	-
부여군	55	25	25	5	-
서천군	13	1	7	5	-
청양군	17	7	4	3	3
홍성군	23	4	10	6	3
예산군	36	18	16	2	-
태안군	14	5	6	2	1
당진군	16	3	12	1	-

또한 태안의 태안마애삼존불(국보 제307호), 청양의 장곡사 철조 약사여래좌상 부석조 대좌(국보 58호), 장곡사 미륵불괘불탱(국보 300호), 천안의 봉선홍경사사적갈비(국보 7호),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국보 49호), 아산의 이충무공난중일기부서간첩임진장초(국보 76호), 서산의 서산마애삼존불상(국보 84호)도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부여의 백제 금동 대향로(국보 287호)는 당시 백제의 문화정수를 보여주는 것으로 당의 기법과도 다른 독특한 예술미와 주조기술을 보여준다.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국보 9호), 금동 미륵보살반가상(국보 83호), 백제 창왕명석조사리감(국보 288호), 보령의 성주사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국보 8호), 공주의 감사 삼신불괘불탱(국보 298호), 노사나불괘불탱(국보 299호) 등도 충남의 시간함수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국보이다.

충남의 국가지정 보물로는 당진의 신암사 금동불좌상(보물987호), 홍성의 중봉조현관계유품(보물 1007호), 홍성 신경리 마애석불(보물 355호), 홍성 고산사 대광보전(보물 399호), 홍성 동문동 당간지주(보물 538호), 용봉사 영산 회괘불탱(보물 1262호),

청양의 정산 서정리 구층석탑(보물 18호), 장곡사 상대웅전(보물 162호), 장곡사 철조 비로자나불 좌상 부석조대좌(보물 174호), 장곡사 하대웅전(보물 181호), 청양 석조 삼존불입상(보물 197호), 장곡사 금동 약사여래좌상(보물 337호) 등이 있다.

또한 천안의 천홍사지 당간지주(보물 99호), 천홍사지 오층석탑(보물 354호), 광덕사 고려사경(보물 390호), 천원 삼대리 마애불(보물 407호), 광덕사 소장면역사패교지(보물 1246호), 광덕사 소장 조선시대사경(보물 1247호), 광덕사 소장 조선시대사경(보물 1247호), 광덕사 노사나 불패불탱(보물 1261호), 예산의 예산삼교 석조보살입상(보물 508호), 예산 김정희종가유물(보물 547호), 예산 화전리 사면석불(보물 794호), 이색영정(보물 1215호), 수덕사 노사나불패불탱(보물 1263호), 아산의 이충무공유물(보물 326호), 기사계첩(보물 639호)도 충청의 기질을 나타내주는 보물이다.

서천의 비인 오층석탑(보물 224호), 보원사지 석조(보물 102호), 보원사지 당간지주(보물 103호), 서산의 보원사지 오층석탑(보물 104호), 보원사 법인국사 보승탑(보물 105호), 보원사 법인국사 보승탑비(보물 106호), 개심사 대웅전(보물 143), 개심사 영산회괘불탱(보물 1264호), 부여의 무량사 극락전(보물 356호), 당유인원기공비(보물 21호), 보광사 대보광선사비(보물 107호)도 이 고장의 대표적 보물이다.

부여 정림사지 석불좌상(보물 108호), 부여 장하리 삼층석탑(보물 184호), 무량사 오층석탑(보물 185호), 부여석조(보물 194호), 금동석가여래입상(보물 196호),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보물 217호), 무량사 석등(보물 233호), 군수리 석조여래좌상(보물 329호), 군수리 금동미륵보살입상(보물 330호), 무량사 미륵불패불탱(보물 1265호), 보령의 성주사지 오층석탑(보물 19호), 성주사지 중앙삼층석탑(보물 20호), 성주사지 서삼층석탑(보물 47호), 당진의 안국사지 석불입상(보물 100호), 안국사지 석탑(보물 101호), 영탑사 금동삼존불(보물 409호) 등도 충남의 시간함수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논산의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보물 218호), 개태사지 석불입상(보물 219호), 관촉사 석등(보물 232호), 쌍계사 대웅전(보물 408호), 성주도씨 종중문서(보물 724호), 남양전씨 종중문서(보물 727호), 공주의 감지은니 묘법연화경(보물 269호), 공주반죽동 당간지주(보물 150호), 갑사 철당간 및 지주(보물 256호), 갑사 부도(보물 257호), 감지금니묘법연화경<권제6>(보물 270호), 갑사 동종(보물 478호), 선조2년 간월인 석보관목(보물 582호), 마곡사 오층석탑(보물 799호), 마곡사 영산전(보물 800호), 마곡사 대웅보전(보물 801호), 마곡사대광보전(보물 802호), 공주 서혈사 석불좌상(보물 979호), 마곡사 석가모니 불패불탱(보물 1260호), 청량사지 오층석탑(보물 1284호), 청량사지 칠층석탑(보물 1285호), 계룡산 중악단(보물 1293호) 등이 충남의 시간함수에 속한다.

충남에는 무형문화재도 많다. 백제시대부터 전해오는 것으로 산유화가가 있고, 충남

의 양반 음악인 내포제(內浦制) 시조가 전해오고 있다. 특히 충남일대에는 불교 관련 유물, 유적이 많다. 자연과 동화되면서도 자연에 묻히지 않는 충남인의 기질은 불교에서 묻어나는 향내와 같다. 서산의 마애삼존불상(국보 84호)에서 감추듯 잔잔하게 흐르는 미소는 어느 사학자의 표현대로 ‘백제의 미소’를 전하고 있다. 잔잔한 미소를 곁에 두고 사는 충남인의 기질이 현재 전국 희극배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2) 충남의 성곽유적¹¹⁾

(1) 도성(都城)

충남의 성곽유적은 도성(都城), 읍성(邑城)¹²⁾, 산성(山城) 등으로 구분된다. 도성(都城)은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도읍(都邑) 및 그 주위를 에워싼 성곽(城郭)을 의미하며, 군사적인 목적 외에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역할을 하는 곳이다. 백제의 도읍이었던 공주시(당시 熊津)와 부여군(당시 泗比)에는 각각 웅진도성과 사비도성이 있다.

백제는 크게 한성시기·웅진시기·사비시기 도성으로 구분되는데, 한성시기는 가장 오랜 기간을 머물러 있으면서 하북위례성·하남위례성·한성·한산이라는 도읍 명칭과 남성(南成) 및 북성(北成)이 문헌상에 나타나고 있어서 전문가들 사이에도 혼선을 빚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웅진(熊津)과 사비(泗比)에 도성이 있었다는 의견에는 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다. 웅진(熊津)시기와 사비(泗比)시기는 공산성과 부소산성 및 나성으로 의견이 모아져, 충남관내에는 백제시대의 웅진(熊津)도성과 사비(泗比)도성 2개소의 도성이 입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첫째, 웅진도성은 현재 공주시에 위치하고 있었다. 공주지역은 북으로 차령(車嶺)과 금강(錦江)이 2중으로 자연방어선을 이루고 있고, 동으로는 계룡산이 막아서고 있어 천혜의 방어요새였다. 당시 백제의 최대 현안문제는 고구려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새로운 도읍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다. 북방세력을 차령산맥과 금강 등 자연 지형을 통해 방어하고, 금강의 수운을 이용한 교통이 편리한 웅진이 당시로서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연적인 이점만을 노리고 웅

11) 충남의 성곽 유적에 대해서는 주로 「충남도지 제20권」 내용을 인용하였다.

12) 읍(邑)과 성(成)은 처음에는 동일한 개념이었다가 차츰 분화되어 국(國)과 읍(邑), 성(成)과 읍(邑), 읍(邑)과 도(都) 등의 개념에 역사성이 첨가되어 차츰 구분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즉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유통경제의 발전은 인구의 집중화 현상을 수반하였고 이에 따라 도시가 형성되었는데, 이 도시에 성벽을 둘러쌓은 것을 읍(邑)이라 하였다. 이 읍은 곧 행정체제(行政體制)를 갖추어 원초적인 국(國)을 형성하였으니 읍(邑)과 국(國)을 막론하고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란 점에서는 같은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발전 단계에서 큰 읍을 구분하여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이 있는 것을 도(都)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읍(邑)으로 칭하게 되었다(충남도지).

진으로 천도하였다고는 보기 힘들며, 이미 천도이전에 성곽이 축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당시 여건을 고려하면 웅진도읍기의 왕궁지는 공산성 내에 있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웅진도성은 해발 110m의 공산(公山) 정상부와 그 서쪽 해발 85m의 봉우리를 포용하여 축조된 포곡식 산성으로 성 둘레는 수평거리로 2,660m인데, 이 중에서 석축이 1,925m이고 토축은 내성 288m와 외성 467m를 합한 755m이다. 웅진성은 백제시대에 축성된 이래 여러 차례의 수·개축을 거듭하였기 때문에 백제 본래의 축성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토축의 외성과 내성의 남벽은 백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처음 축조 당시에 2층으로 되어 있었고, 연결지점은 외성의 조사구역 중 3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조선시대에 내성 동벽을 보충할 때 동문지로 연결하여 외성의 기능은 상실되었다. 이것은 외성 위에 축조된 만아루지가 조선시대 건물터로서 외성 상면을 정지하고 축조한 것임이 밝혀졌고, 내성의 동벽에 시설된 수구도 내성의 존재만 고려하였을 뿐 외성과의 관련성은 보이지 않는다.

백제시대 웅진성의 축조기법은 돌로 쌓은 것과 흙으로 쌓은 방식을 병용하였는데, 흙으로 쌓은 경우 외벽기저에 기석(基石)을 놓고 판축 또는 흙다짐으로 구축하였으며, 돌로 쌓은 경우는 성곽 밑 부분을 황토로 다져 조성한 후 외벽 하단에 기석을 놓고 약 10m 너비의 구간을 흙다짐 한 후 성과 밖을 편축식으로 수직되게 쌓았다. 이 때 후면의 석채 채움은 4.7m의 너비이다. 이러한 축성법은 지형에 따라 계곡이나 경사가 급한 곳은 주로 석축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곳에는 토축의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에서 확인된 성벽은 축조시기에 따라 크게 백제시대와 조선시대 성벽으로 구분된다. 우선 백제시대 성벽은 석축성벽의 내벽부와 성내부 생활면, 지반 정리작업 등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백제시대 내성벽은 석축된 형태로 확인된다. 성벽 기초시설은 지반층인 고도양 켄기층을 20~50cm 깊이 정도 ‘ㄴ’자 상으로 삭토한 후 자연석재를 사용하여 허튼층쌓기로 축조하되 할석을 ‘중석쌓기’함으로써 견고성을 높였으며, 기초석에서부터 9단(1.8m)정도의 석축렬이 잔존하고 있다. 성벽의 상단부는 조선시대 성벽의 기초부에 맞닿아 훼손된 상태로 확인되고 있어 백제시대의 성벽은 현재보다 높게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웅진시대 추정 왕궁지는 웅진성 내 동서로 갈라져 있는 2개의 산정 중 서쪽 정상에 위치하는 곳이다. 이곳은 표고 85m로 6,800㎡의 넓이를 지닌 광장이 조성되어 있던 곳으로 광장의 주변을 살펴보면, 남쪽과 서쪽방향은 8~20m 거리를 두고 웅진성의 남벽이 지나고 있다. 성과 광장 사이에는 성의 내호가 깊게 조성되어 있고, 광장 북쪽은 쌍수정 건물이 광장보다 약 7m높은 대지에 자리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성내의 얇은

중앙 계곡으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백제시대 유적으로는 반지하식 건물지와 굴건식 건물지 각 1동과 적심석 사용의 건물지 2동, 그리고 연지·목곽고 등이 조사되었다.

굴건식 건물지는 광장의 동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서 35m, 남-북 20m의 범위에 약 100여 개의 주공이 노출되었다. 이들 주공은 대체로 생토면을 파고 조성하였고, 형태는 방형, 혹은 원형이나 깊이 및 크기는 일정하지 않다. 이 중에서 가장 북단에 위치한 8칸 규모의 건물지 만이 확인되며, 건물은 전면 18m, 측면 5m 규모로 계획되었다. 이 건물지의 주공은 2.4m×5m의 간격으로 생토를 방형으로 파서 만든 것인데 깊이는 현 지표에서 80cm 가량되며 특히 주공의 동·서 열에 맞추어 ‘홈’을 두고 있다. 그런데 조사시 주공 내부나 홈안에서 와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또한 이 굴건식 주공이나 홈을 메운 후 그 위에 백제시대 적심석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이 굴건식 주공 사용의 건물은 혹시 백제가 남천하기 이전에 이미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왕궁지에서 출토·수습된 유물은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다양한 편인데, 기형별로 보면 수막새기와, 평기와, 토기류 및 청동경이 있으며, 이 가운데 수막새기와는 50여 점의 연화문 수막새기와와 20여 점의 파상문 수막새기와가 수습되었다. 토기류는 호·병·벼루·삼족토기·기대 등의 여러 가지 기형이 수습되었다. 이외에 특수한 유물로 청동에 도금을 한 봉황형 향로가 있어 이 건물지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사비도성은 부소산성을 중심으로 하여 남쪽으로 도성 시가지를 구획하고 방어를 위한 나성이 축조되어 우리나라 고대 도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내성과 외곽(外廓)이 구비된 성곽구조를 갖춘 도성이다. 그리고 도성의 방어를 위하여 동쪽으로는 바로 청마산성(靑馬山城), 동남쪽에는 석성산성(石城山城), 남쪽에는 성흥산성(聖興山城), 서북쪽에 울성산성(蔚成山城), 북쪽에 증산성(甑山城) 등의 거점산성을 축조하고, 또한 부소산성 주위에는 동북쪽의 청산성(靑山城), 서쪽의 부산성(浮山城), 서남쪽의 외리산성(外理山城) 등 작은 산성들을 배치하여 도성의 방비체제를 구축하였다.

도성내부는 추정 왕궁지 유적에서 드러난 동서 및 남북도로와 군수리에서 확인된 동서도로유구, 그리고 2001년도 궁남지 북쪽에서 조사된 동서도로 등을 종합하여 남북 113.1m, 동서 95.5m의 장방형 블록에 의해 정연하게 구획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소산성은 군창지 소재 테피식 산성과 사비루 소재 테피식 산성,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포곡식 산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포곡식 산성은 백제시대에 축조되었고, 테피식 산성은 통일신라시대에 축성되었는데, 군창지 소재 테피식 산성을 2구로 구분하기 위하여 남-북으로 축조된 성벽은 조선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포곡식

산성의 전체 길이는 토루 외곽선을 기준으로 하여 총 연장길이는 2,495.6m이다. 이 포곡식 산성에는 동·서·남·북의 4개소의 성문과 치성 2개소, 장대지 2개소가 시설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소산성의 포곡식 산성은 동·남·서벽은 해발 75m 내외의 부소산 외측 급경사면을 따라 구축되었으며, 북측으로는 큰 계곡이 형성되어 있다. 이 계곡부에는 완경사면과 몇 군데의 넓은 평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북벽은 이를 포용하여 축조되었다. 북측의 이러한 지세는 북단에 이르러서 낮은 저습지대가 펼쳐지고 금강과 연결되고 있다. 이 포곡식 산성의 조사과정에 정교한 판축기법에 의한 채성이 확인되어 백제시대 판축기법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축적할 수 있었다. 또한 동문지와 남문지 및 2개소의 치성이 확인되어 방어시설에 있어서 백제인들의 매우 수준 높은 축성기술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사비도성의 성벽은 순수한 점질토와 마사토를 교차하여 다져올린 순수 판축기법을 채용하여 구축하였다. 처음 축조된 백제시대 판축부의 기초부는 원칙적으로 부소산의 생토면인 풍화 암반층에 해당한다. 그러나 약간의 경사면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는 판축 기초부의 휩쓸림을 방지하고, 판축을 용이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30~60cm 안팎의 밝은 황갈색 마사토를 사용하여 단일층으로 성토한 후 그 상층에 본격적인 판축기법을 사용하여 쌓아 올렸다. 그리고 성벽 안쪽의 흙을 파서 성 내벽쪽에 호를 만든 한편, 그 파낸 흙을 성 내벽에 보충하였다. 성 내외측 풍화 암반층에 'U'자형 구를 마련하였는데, 이 구의 너비는 55~65cm, 깊이는 경사면에 마련하여 일정치는 않으나 성 외측의 경우 25cm, 성내측은 55cm정도 이다.

판축토루 외측과 내측에서 대칭되게 일정한 간격으로 영정주를 세웠던 목주공(木柱孔)이 확인되는데 이 목주공은 구 중앙에 125~130cm 간격마다 배치되었으며, 구보다 10~20cm정도 깊고 넓게 굴착되었고 그 내부에는 영정주를 고정시키기 위한 1~3개 정도의 할석편이 놓여 있었다. 초기 중심토루인 판축층의 경계면은 동으로는 성외측의 목주공 중심부에서 경계면을 이루고, 서측으로는 성내측 목주공 중심부에서 판축층 경계벽면이 수직으로 경계면을 이루고 있다.

동·서 목주공간의 거리는 일정하지는 않으나 580~640cm 정도로 초기 판축토루의 너비를 나타낸다. 조사결과 이 판축층은 일시에 판축을 하지 않고 2회에 걸쳐 나누어 판축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 구간의 경우 초기 판축 바닥층 너비(東西)는 580cm인데, 성내측(너비 360cm)을 먼저 판축기법으로 쌓고 성외측(너비 220cm)을 후에 축조하였다.

포곡식 산성에는 동·서·남·북의 4개소에 성문이 시설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서 두 문지는 부소산성에 좌우 양편으로 나성과 연결되는 지점의 안쪽에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나성 외부로부터 직접 산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백마강

을 이용하여 북문으로 밖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계되었다. 포곡식 산성의 남문지는 삼층사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문으로 파악된다. 남문지는 약간 서남향하여 정면 1칸, 측면 1칸으로 각기 약 3.3m의 간격을 유지하는 평면 방향으로 구성되었는데, 문지 밖에서 성내로 들어가는 입구 전면에는 5단의 계단이 시설되어 있었고 이 계단 전면에는 작은 돌들을 깔아 놓았다. 이 계단의 규모는 폭 2.2m, 길이는 5.4m인데 각 계단의 높이는 0.1m~0.15m, 계단 상면의 너비는 0.4m~0.5m 정도이다. 문지의 폭은 4.5m로 이곳에는 0.7m×0.7m, 0.8×0.8m인 2개의 방형 초석이 있는데 동편 초석은 이동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사비성의 장대지로 추정되는 곳은 앞선 동벽 치성의 서편 지점과 북문지 사비루 동편의 통일신라시대 테피식 산성의 성벽과 포곡식 산성의 성벽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동성벽의 추정 장대지는 치성과 마찬가지로 1989~1990년에 조사되었으며, 후자는 1997년에 확인되었다. 이 두 지점은 각각 부소산성 동편과 북편을 조망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

동장대지는 동벽 바깥쪽을 따라 12개의 원형초석이 1.3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그에 대칭되는 부분인 성벽 서단부에도 석축이 시설되고 그 안쪽으로 목주공이 나타난다. 1995년도 보고서에서는 이 유적을 원형초석열 유구로 보고되었으나, 이러한 원형초석과 석축시설의 존재, 지형적으로 조망하기 좋은 위치, 주변에서 각종 무기류와 기와류 등이 다량 출토된다는 점 등을 통해 이곳을 장대지로 추정하게 되었다. 그 규모는 남북 길이 14.3m, 동서 폭 4.7m 정도이다.

북장대는 부소산성 서북편 테피식 산성의 동편 끝지점에 해당하는 우회부에서 테피식 산성의 성벽과 직교하여 평면 방향으로 돌출시킨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이 장대지의 남동모퉁이에서 서쪽으로 0.5m 지점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축조한 테피식 산성의 석축성벽이 이 장대지 윗부분에 걸치면서 잇대어 구축한 것이 확인되어 이 장대지는 백제시대에 시설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유구는 심하게 파괴되어 원래 규모를 알 수는 없으나 남북 너비는 최대 8m, 동서 너비는 최소 6.26m 이상, 잔존높이는 2m 정도이며, 잘 다듬어진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 축조한 것으로 그 축조방식이 확인된 곳은 동남쪽 테피식 산성 북문지 부근, 포곡식 산성의 남벽과 남북방향 테피식 산성의 교차지점, 군창지 북편 테피식 산성, 서북편 테피식 산성, 사비루 남쪽 절개조사 지점 등이다. 이 시기 성벽의 축조는 기본적으로 성벽 하부에 석축기단부가 조성되어 있고, 그 위로 백제시대 판축에 비해 덜 정교한 수법으로 판축토루가 마련된 구조이다.

사비도성의 군창지에서 25m 정도 북편에 동-서향의 성벽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성벽은 테피식 산성의 북편 구간으로 길이는 793m이다. 군창지 남측에 해당하는 테피식 산성의 남쪽 구간은 원래 백제시대에 축조한 포곡식 산성의 남벽구간으로 테피

식 산성의 북편을 초축할 당시인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부분적으로 파손된 백제성벽을 보충하여 새로 구축한 북편의 성벽과 함께 테피식 산성을 구성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 군창터를 중심으로 한 통일신라시대에 구축된 테피식 산성의 총 길이는 1,576m이다.

이 테피식 산성의 토성구축은 경사진 지세일 경우 대부분 준 판축층(다짐층)을 형성하여 축기부를 형성한 후 그 상층에 본격적인 판축층을 구축하여 체성부를 완성시키고 있다. 이 경우 흙이 무너져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되는 곳은 체성의 외측면은 낮은 경우 1~2단, 높은 경우는 5단 정도의 석축을 구축하면서 내측에 판축작업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토성을 조성하였다. 군창지 북동편 성벽의 경우 급경사면에 토루를 높게 조성하기 위하여 먼저 석축을 2단으로 쌓고 내부를 판축하여 1차 기반을 조성한 후 그 위에 석축을 5단 정도 쌓고 판축 토루를 조성한 예도 있다. 군창지 서편으로 40m정도 떨어져 구축된 남북향 196m의 성벽은 조선시대 전반경에 초축된 것으로 이는 군창지를 의식하여 가장 훗날 조성된 성벽이다. 조선시대에 축조된 성벽으로 구획된 서쪽 테피식 산성 내부에서는 백제시대 수혈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사비루 남쪽에 둘러진 테피식 산성의 외벽은 석축을 5단 내외로 쌓고 석축 내부에 5m 이상 호박돌로 채워 올린 후 그 상부에 판축토루를 조성한 2중 성벽형태로 확인되었다. 내벽은 판축기법에 의하여 쌓아 올렸는데 표토층을 제외한 잔존 높이는 1.75m이다. 이 성벽의 외벽은 석축 및 호박돌로, 내벽은 판축기법에 의하여 다져 구축한 테피식 산성의 너비는 12m가 넘는 규모이다. 이러한 경우는 석축기법과 판축기법을 혼용한 예이기는 하지만 판축보다는 석재를 이용한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하겠다. 석축 앞 생토층 바로 위층에서 ‘회창7년(會昌七年)’명 명문와가 출토되었으며, 토루 판축층 내부에서도 백제계 평기와 및 통일신라계 평기와편과 함께 인화문 토기편 1점이 출토되어 이 테피식 산성은 통일신라 전반경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성은 부소산성을 기점으로 하여 그 동쪽으로 뻗어 내려 청산성을 경유하여 석목리에 이르는 북라성, 능산리의 서쪽 산을 타고 내려 필서봉을 경유 백마강에 이르는 동라성, 부소산의 서쪽에서 뻗어 내려 백마강의 자연제방을 따라 구아리·구교리·동남리를 거쳐 군수리에 이르는 서라성, 그리고 최근에 그 존재가 거론되고 있는 궁남지에서 동쪽으로 이어져 중정리에 이르는 남라성 등으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부소산성을 기점으로 청산성을 거쳐 동남쪽으로 우회하는 북라성과 동라성, 그리고 백마강의 유선과 평행하게 서남쪽으로 이어지는 낮은 구릉 위에 서라성이 있어 전체길이는 약 8km에 달한다. 나성 내부에는 부여시가지와 금성산, 그리고 적지 않은 면적의 농경지가 포함된다.

나성의 구조는 호성석축이 수반된 토축성벽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그 축조방법은 부분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특히 구릉과 평지에서는 서로 다른 축조방법

이 채택되어 있는 사실이 주목된다. 구릉지대에 구축된 나성의 구조는 판축 또는 판축에 준한 기법으로 축조되었으니, 필서봉 북쪽의 낮은 구릉에서 조사된 바로는 성벽 전테의 높이는 4.9m, 기저부의 넓이는 약 16m, 호성석축의 높이는 약 2.5m인데 약 60°로 경사되었다. 대략 장방형을 이루고 있는 석괴를 바른층쌓기로 구축하였는데 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것이 9단으로 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석괴들의 크기는 길이가 30cm~60cm이고 높이는 20cm~45cm이다. 면석 뒷면에는 크고 작은 막돌을 채워 보강하였는데, 이 적심부의 범위는 약 2.9m의 두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하여 평지에서 조사된 나성의 구조는 성체(成體)가 흙으로 성토된 점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내부의 구축방법에서 산성과는 계통을 달리하는 제방 축조기술이 응용된 것으로 보인다. 즉 평지 나성의 내부구조는 토층 사이에서 흑색 탄화목층이 발견되었다. 이 탄화목층에는 직경이 5cm~10cm 내외의 참나무 등의 나뭇가지가 수평으로 배열되어 있었으며, 성체의 흙이 50cm 정도 두께로 성토되었을 때마다 반복해서 그것을 깔아 놓았다. 여기에는 연한 흑회색의 점질토가 사용되었다. 이 흙은 나성 주변의 낮고 습한지역에서 채굴된 질고 수분이 많은 흙이 사용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은 흙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뭇가지를 깔면서 성토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흑회색 점질토의 성토층은 평지나성의 너비 22m 중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그 안쪽에 해당되는 2/3의 부분에 대해서는 갈색 또는 황갈색의 점질토를 사용해서 성토하였다. 이러한 식물탄화층은 김제 벽골제의 제방발굴시에 발견된 예가 있으며, 또한 백제계 이주민들에 의하여 축조된 일본 후쿠오카현 태재부(太宰府) 유적의 거대한 수성(水成)에서도 이러한 탄화목층이 발견된 예가 있다.

나성을 출입하는 성문으로는 동문과 서문이 있다. 서문지로 추측되는 곳은 백제대교 남쪽으로 약 400m의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부여에서 서쪽으로는 홍산, 서천방면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도하점(渡河點)에 면하고 있다. 동남리사지 전면을 동서로 통과하는 구도(舊道)가 이곳에 도달하고 있다. 그러나 나성의 주출입문은 동문지로 파악되며, 방어상의 중요성도 제일 높았다고 하겠다. 동문지는 부여-논산간 구도로에서 부여 염창리·현북리로 진입하는 도로 입구에서 발견되었으며, 동문지의 북쪽 측벽은 부여-논산간 구도로 하부에 묻혀 있어 조사가 불가능하고, 남쪽 측벽만이 확인되었다.

사비대의 왕궁지에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에 백제시대 초석을 사용한 조선시대의 부여현 관아가 위치하고 있었다. 1978년 부여지구 유적조사 시에 관북리 일대에서 102개에 달하는 백제시대의 방형·원형 초석과 장대석 및 기타 가공석재를 발견하였으며, 이 외에 백제의 대형 석조는 정문 밖에 있었던 것, 그리고 유인원비(劉仁遠碑)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현재의 삼충사(三忠祠)후면에 해당하는 지점

에서 발견되었다는 것 등을 들어 유추할 수 있다. 1982년 이후 현재의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방형연지, 도로유적, 북사(北舍), 부소산록 석축열, 배수구, 구아리 우물유적, 대벽건물지를 비롯한 건물지, 석제 및 목제의 저장시설 등이 밝혀지게 되어 왕궁지로 볼 수 있는 유력한 단서를 얻게 되었다고 하겠다.

(2) 읍성(邑城)

다음 충남의 성곽유적으로는 읍성(邑城)을 들 수 있다. 읍성은 지방의 주요 거점에 군사적인 기능과 행정적인 기능이 복합되어 축조된 성곽이다. 한국에서 읍성의 순수한 개념이 도입된 것은 고려시대 후기라고 하겠다. 이 시기에 축조된 읍성은 보다 군사적인 성격을 띠면서 연해안지역부터 축조되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또한, 이 때 축조된 읍성은 주로 왜구의 창궐과 깊은 관련이 있으면서 입지도 평지에 접근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읍성의 축조 양상은 조선 초기에도 이어져 세종조를 중심으로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당시의 읍성 축조는 전 국력을 기울이다시피 하는 역점사업이었으며, 우선적으로 왜구의 피해가 가장 심하였던 충청·전라·경상의 하삼도(下三道)로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335개소의 행정구역 중 읍성이 수록된 것은 96개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도별로 살펴보면 충청도 15개소, 경상도 27개소, 전라도 20개소, 황해도 4개소, 강원도 6개소, 평안도 16개소, 함길도 8개소이다. 따라서 하삼도에 축조된 읍성의 숫자는 62개소인데 그 중 충남지방에 축조된 읍성은 금산읍성·홍주읍성·결성읍성·덕산읍성·대흥읍성·서천읍성·비인읍성·보령읍성·남포읍성·태안읍성·당진읍성·홍산읍성 등 12개소로 하삼도 읍성수의 19.4%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 하삼도에 축조된 62개소의 읍성은 전체 96개소의 읍성의 64.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고려말 조선초에 출몰한 왜구에 대비하기 위한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이 읍성을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찾아 행정구역과 비교하여 보면, 행정구역 330개소 중 읍성이 있는 곳이 160개소였다. 그 중에는 2기 혹은 3기의 성곽이 있는 지역도 있어 성곽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190기이다. 지금의 경상남도과 전라남도에 해당하는 남해와 서해 남부지역에는 52기의 읍성이 자리잡고 있어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도록 배치되고 있다. 실제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하삼도에만 65개소의 읍성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중 충남지방에는 홍산읍성이 퇴락하여 고적화되고, 한산읍성·서산읍성·해미읍성·면천읍성이 새로이 첨가되어 15개소의 읍성이 수록되어 있어, 하삼도에 축조된 읍성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충남지방에 축조된 읍성들은 해안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왜구에 대비할 목적으로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지도서』에는 334개소의 고을 중 읍성이 있었던 곳은 107개소로 수록되

어 있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읍성 수보다는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임진왜란 등의 전란을 겪으면서 파괴되고 또한 즉시 수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형체만 있고 쓸모가 없게 퇴락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 107개소의 읍성 중 하삼도에 축조된 읍성의 수는 68개소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65개소보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중 충남지방에는 오히려 금산읍성·덕산읍성·대흥읍성·당진읍성 등 4개소가 고적화되어 10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성룡이 지적한 바와 같이, 충청도의 경우 곳곳에 축성은 하였으나 어느 곳도 효용성이 없었고, 민정(民丁)을 많이 동원하여 과중한 역사(役事)를 한꺼번에 실시하면서도 축성의 책임자를 얻지 못하여, 성제(成制)의 곡직(曲直)과 산세의 활협(闊狹)을 세심하게 생각하지 않은 결과 축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 무너져서, 민력(民力)만 허비하고 마침내 수비 할 수 없는 땅이 되었다고 개탄한 데에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다.

〈표 3-3〉 지리지에 수록된 충남지방 읍성의 분포 및 규모

읍성	축성 재료	세종실록 지 리 지	문종 원년 9월 경자조	신증동국 여지승람	여지도서	대동지지	축조 연대
금산읍성	토축	426보	-	1,045척	-	1,045척	공양왕 원년
홍주읍성	석축	533보	4,856척	4,915척	5,850척	5,850척	고려시대
결성읍성	석축	453보	-	3,325척	3,325척 8촌	3,325척	문종 원년
덕산읍성	석축	398보	-	2,655척	-	2,665척	고려시대말
대흥읍성	석축	244보	-	1,115척	-	1,115척	-
서천읍성	석축	160보 4척	2,265척	3,525척	3,525척	3,525척	세종조
비인읍성	석축	1,933척	1,933척 8촌	3,505척	3,505척	2,655척	세종12년
한산읍성	석축	-	-	4,070척	4,070척	4,070척	중종조
보령읍성	석축	173보	2,109척	2,109척	2,109척	2,655척	세종12년
남포읍성	석축	370보	2,476척	2,476척	2,476척	950보	세종27년
서산읍성	석축	-	-	3,710척	2,717척	2,717척	성종6년
해미읍성	석축	-	3,352척	3,172척	6,630척	2,630척	태종조
태안읍성	석축	426보	-	1,561척	1,561척	1,561척	태종17년
당진읍성	석축	289보	2,809척	1,954척	-	1,954척	세종22년
면천읍성	석축	-	3,225척	3,002척	2,526척	3,002척	세종21년
홍산읍성	석축	262보	-	-	-	1,020척	-

한편, 영조대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에는 충남지방 읍성에 관한 기사를 수록하면서 임천 성흥산성, 부여읍성, 신창읍성을 읍성으로 수록해 놓고 있으며, 홍산읍성은

고읍성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태안읍성·면천읍성·덕산읍성을 누락시키고 있다. 또한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보계치(步計値)를 수록하여 놓고 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하는 척수(尺數)로 나타내고 있는데다가, 용척(用尺)에 따라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용척에 따라 각 읍성들의 규모가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여기에서 확실하게 용척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문종실록』에 수록된 규모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읍성의 분포가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지리지를 통해 충남지방의 읍성 분포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제로 충남지방 읍성의 경우 포백척을 적용하여 환산해 본 결과 거의 비슷한 수치를 얻을 수 있었으며, 다만 홍주읍성의 예에서만 고려척(지척)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포백척 외에 영조척을 사용한 예는 서천읍성·비인읍성·서산읍성 등이 있고, 『여지도서』에서는 해미읍성이 영조척을 사용하고 있으며, 홍주읍성은 주척을 사용하고 있음을 명기하고 있어, 포백척 및 영조척과 주척을 아울러 사용하고 있으며, 『대동지지』에서도 포백척과 영조척 및 주척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를 볼 때, 당시 읍성 둘레를 측량하는데 있어서 포백척이 기준이 되고 있으면서도 영조척과 주척이 같이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겠다.

충남지방 읍성이 입지한 지형상으로 볼 때에는, 구릉상에 입지하고 있는 읍성은 서천읍성·남포읍성·덕산읍성이 있으며, 평지에 입지하고 있는 읍성은 금산읍성·홍주읍성·태안읍성·면천읍성이 있다. 그 외의 읍성들은 산릉선의 말단에 입지하여 평지에 가깝게 접근하여 있는 평산성으로 비인읍성·보령읍성·한산읍성·당진읍성 등이 있다.

읍성 내의 중요시설로는 각기 중앙정부의 임금, 고을의 수령, 그리고 고을의 향민을 상징하는 건물로 객사(客舍)·아사(衙舍)·향청(鄉廳)을 배치하고, 교육·사상·문화의 중심 역할을 담당한 향교와 서원을 두었으며, 제사를 위한 시설로는 문묘(文廟)·사직단(社稷壇)·여단(厲壇)·성황단(城隍壇)이 있다. 국가적인 제사시설인 문묘는 향교에 설치되며, 사직단은 서쪽에 놓인다. 그리고 민간신앙적인 여단은 반드시 고을의 북쪽에 설치하였으며, 마을의 수호신인 성황단은 마을이나 고을의 진산(鎭山)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서천읍성·서산읍성·해미읍성에는 읍성 내에 읍시(邑市)가 개설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시설들은 도성의 중요시설을 축약시켜 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이는 읍성이 각 지방에 있어서의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하겠다.

(3) 산성(山城) 유적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약 75%가 산지로 형성되어 있어 일찍부터 산성(山城)이 발달하였다. 산성은 멀리까지 바라다 볼 수 있어 적의 움직임을 쉽게 파악하여 미리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이 올라오는 것을 내려다보면서 공격하기 때문에 지키기에

매우 용이하다. 반대로 산성을 공격할 때에는 무장을 하고 힘들게 올라가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성 밑에 다가섰다 하더라도 경사진 지형에서 눈높이보다 높은 곳을 올려다보며 불안정한 자세로 공격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힘겨운 전투를 수행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산성의 효용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산성의 효용성에 대하여서는 『삼국사기』에 ‘고구려는 산을 의지하여 성을 축조하였기 때문에 쉽게 함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고, 『고려사(高麗史)』에 ‘당감(唐鑑)에는 고(구)려에서 산을 이용하여 성을 축조하는 것을 상책(上策)이라 하였으니, 외방(外方)의 평지에 성을 축조하는 것을 마땅히 정과시켜야 합니다.’ 라고 한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 조선시대 정종대의 좌빈객(左賓客) 이서(李舒)는 “난을 방비하는 방도는 산성(山城)이 제일”이라고 하여 산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태종 7년에 성석린(成石璘)은 ‘견고(堅固)한 것을 의지하고 험(險)한 것을 믿어, 병법(兵法)에 의하지 않고 깊고 험한 곳을 택하여 산성(山城)을 쌓아, 늙은이와 어린이를 안치(安置)하고 콩과 조를 거두어들이고, 봉화(烽火)를 들어 서로 응하며 사잇길로 가만히 통하여 불의(不意)에 출격하여 승리를 취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의 장기(長技)입니다.’ 라고 하여 산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충남지방에 축조된 산성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유적은 261개소이다. 충남에서 광역시로 독립한 대전시 관내에서 확인된 40개소의 산성을 합친다면 301개소로 집계된다. 앞으로도 미답의 산성이 새롭게 발견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숫자는 계속하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충남지방 관내 산성 261개소 중 백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분류된 것으 139개소이다.

충남 관내 시·군에 축조된 산성을 축성재료별로 살펴보면, 공주시 관내에는 토축산성 11개소, 석축산성 9개소, 토석혼축 3개소 등 23개소의 산성유적이 확인되었다. 금산군 관내에는 토축산성 8개소, 석축산성 8개소, 미상 2개소 등 18개소, 논산시 관내에는 토축산성 11개소, 석축산성 8개소, 미상 2개소 등 18개소, 당진군 관내에는 토축산성 11개소, 석축산성 4개소, 토석혼축 1개소, 미상 1개소 등 17개소, 보령시 관내에는 토축산성 4개소, 석축산성 8개소, 토석혼축 1개소 등 13개소, 부여군 관내에는 토축산성 21개소, 석축산성 5개소 등 26개소, 서산시 관내에는 토축산성 5개소, 석축산성 8개소, 미상 2개소 등 15개소, 서천군 관내에는 토축산성 13개소, 석축산성 6개소, 토석혼축 2개소 등 21개소, 아산시 관내에는 토축산성 6개소, 석축산성 15개소 등 21개소, 연기군 관내에는 토축산성 4개소, 석축산성 6개소, 토석혼축 2개소, 미상 1개소 등 13개소, 예산군 관내에는 토축산성 5개소, 석축산성 7개소 등 12개소, 천안시 관내에는 토축산성 10개소, 석축산성 13개소, 토석혼축 1개소, 미상 1개소 등 25개소, 청양군 관내에는 토축산성 6개소, 석축산성 5개소, 토석혼축 2개소 등 13개소, 태안군 관내에는 토축산성 2개소, 석축산성 8개소, 토석혼축 1개소 등 11개소, 홍

성군 관내에는 토축산성 7개소, 석축산성 6개소, 토석혼축 2개소 등 15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충남 관내 16개 시군에서 확인된 토축산성은 114개소, 석축산성은 125개소, 토석혼축은 15개소, 미상 7개소로 석축산성이 근소하나마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전 관내 산성 40개소 중 석축산성 38개소 토축산성 2개소를 더한다면 대전·충남 관내 산성 301개소 중 토축산성 116개소, 석축산성 163개소, 토석혼축 15개소, 미상 7개소로 석축산성이 월등히 많다. 이는 경기·서울·인천지역의 299개소의 성곽 중 석성이 136개소, 토성이 73개소, 토·석혼축이 2개소, 석축·전축혼축성이 2개소, 확인되지 않은 것이 59개소로 석축산성이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나고 있음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실제로 산성에 대한 축성재료상 구분은 외관상으로는 그 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것은 원래가 석축에 의하여 구축된 성벽의 경우라 할지라도 오랜 시일을 경과하는 동안에 그 위에 퇴적된 토사와 식물의 부식토(腐植土)로 매몰되어 마치 토축과 같은 외형을 보이고 있는 산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충남 관내 산성의 유형별 현황은 261개소의 산성 중 테피식 산성이 234개소, 포곡식 산성이 15개소, 복합식 산성 3개소로 테피식 산성 중심으로 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테피식 산성의 시원(始原)에 대하여, 윤무병(尹武炳)은 ‘고구려 산성과 비교할 때 백제산성은 테피식 산성 일색으로 지배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백제지역에는 약 800개소에 달하는 고대 산성이 분포하였는데 그 중 99%는 테피식 산성에 속한다고 단언해도 괜찮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고대산성의 분포추세로 미루어 볼 때 테피식 산성은 백제 지역에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백제의 테피식 산성은 신라·가야 지역보다 그 수에 있어서 단연 우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형식상으로 세분할 때 변화가 많으며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고 하여 테피식 산성의 백제 발생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대전·충청남도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302개소의 성곽 중 테피식 산성이 274개소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기도 하다.

충남 관내 산성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200m 이하가 18개소, 200~500m 121개소, 500~700m 43개소, 700~1,000m 24개소, 1,000~2,000m 18개소, 2,000~3,000m 3개소, 3,000~5,000m 이상이 1개소, 미상이 27개소로 분류된다. 그러나 산성의 규모는 고고학적인 조사에 의하여 파악된 규모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지표조사에 의한 계측에 의한 것이므로 정확한 실측을 시행한다면 다소의 출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청마산성의 경우 규모가 6,500m로 오랫동안 전수되어 왔었지만 한국 전통문화학교에서 정밀측정을 시도한 결과 9,277m로 밝혀져 정밀실측의 필요성이 새삼 부각되기도 하였다. 대체로 보루의 규모에 해당하는 200m 이하가 18개소로 나타났으며, 소형 산성의 규모에 해당하는 200~500m가 121개소로 파악되었으며, 현금

산성 규모에 해당하는 500~700m가 43개소, 군급 산성 규모에 해당하는 700~1,000m가 24개소로 파악되었으며, 거점성의 규모에 해당하는 1,000m 이상의 산성이 27개소로 파악되었다.

성곽의 유형별로는 테피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261개소의 산성 중 테피식 산성은 『삼국사기』에 축성연도가 확실한 성흥산성을 비롯하여 234개소, 포곡식 산성이 청마산성을 포함하여 15개소, 복합식 산성이 부여 석성산성을 포함하여 3개소로 테피식 산성 일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다. 이는 성곽의 규모와 직결되는데 충남지역의 성곽은 대형이 적고, 소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둘레 500m 이하가 139개소로 나타나며 대부분 백제시대 축성으로 분류되는 것은 백제시대 산성이 공격용 거점성 보다는 방어를 목적으로 한 소형 산성을 많이 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규모 500~1,000m에 해당하는 산성은 67개소 파악되는데, 조사결과 및 문헌과 대비해 볼 때 대체로 군·현급 산성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한 심도있는 고고학적 조사 및 검토가 요청된다.

한편, 총 둘레 1,000m가 넘는 대형 성곽은 각 군 단위별로 1~2, 3개에 불과하다. 백제산성으로서는 포곡식 산성인 청마산성의 규모가 9,277m로 밝혀져 단연 최대급을 나타내며, 도성을 수비하기 위한 대규모의 군사시설이 부가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앞으로 정밀조사가 요청되며, 테피식 산성으로서는 임존성으로 비정되는 대흥 봉수산성의 규모가 2,426m로 최대급을 나타내며, 웅진 천도이후 대고구려 및 대(對)신라 방어의 중심 거점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축성재료면의 특징은 대전·충남지역 전체로 보았을 때 석축이 토축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축성재료에 있어 지역적 차이는 상당히 크다. 공주나 부여 등 백제의 도성이었던 지역은 토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 비해, 대전을 비롯한 금산·연기·천안 지역은 석축의 비중이 압도적이거나 다소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다. 토축과 석축의 차이는 지리적 여건의 차이나 주변지역에서 채집할 수 있는 축성재료의 유무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석축을 위주로 하는 상기 지역들은 축성 시기와 축성목적에서 특수성이 인정된다. 즉, 대전지역은 대(對)신라 방어의 1차기지이며, 기타지역도 신라와의 교전지역 또는 접경지역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방어가 우선적인 목적이 됨으로써 방어에 효과적인 석성이 집중적으로 축조되었다. 특히 석축산성을 축조할 때에는 성흥산성 성벽과 같이 그랭이기법을 사용하여 마찰면을 많이 함으로써 면석 이탈을 방지하여 보다 견고하게 축조하고 있다. <표 3-4>부터는 충남 각 시·군별 산성 현황을 나타낸다.

〈표 3-4〉 부여군 소재 산성 현황

번호	성곽명	소재지	해발 고도(m)	유형	축성 재료	규모(m)	조축 시기	비고
1	석성산성	석성면 현내리	160	복합식	석축	테피식 580 포곡식 1,600	백제	
2	구봉산성	구룡면 구봉리	94	테피식	토축	300	백제	독산성
3	금성산성	부여읍 동남리	121	테피식	토축		백제	
4	논치산성	구룡면 논치리	75	테피식	토축	250	백제	
5	누르개재성	양화면 송정리	190	테피식	토축		백제	
6	미녀봉산성	은산면 가중리 규암면 나복리	150	테피식	토축	200	백제	
7	반산성	규암면 반산리	50	테피식	토축	150	백제	
8	봉황산성	구룡면 죽절리	142	테피식	석축	450		
9	부산성	규암면 진변리	106	테피식	토축	400	백제	
10	북고리 증산성	장암면 북고리, 장하리	100	테피식	토축	200	백제	
11	북촌리산성	홍산면 북촌리	90	테피식	토축	700	백제	
12	사자봉산성	규암면 신대리	181	테피식	토축	150	백제	
13	시랭이산성	장암면 하왕리 세도면 사산리	140.7	테피식	토축		백제	
14	외리산성	규암면 외리	30	테피식	토축	200	백제	
15	울성산성	규암면 신리	113	테피식	토축	350	백제	왕흥 사잠성
16	은산 당산성	은산면 은산리	60	테피식	토축	250	백제	
17	이목치산성	장암면 원문리	171	테피식	토축	200	백제	
18	주장산성	부여읍 정동리	123	테피식	토축	250	백제	
19	토성산성	세도면 화수리	100	테피식	토축		백제	
20	학동산성	임천면 구교리	35	테피식	토축	200	나말 려초	
21	점상리산성	장암면 점상리	100	테피식	토축	400	백제	
22	청마산성	부여읍 능산리, 용정리, 가중리, 공곡리 초촌면 신암리	232.5	포곡식	석축	9,277	백제	
23	성흥산성	임천면 군사리	140	테피식	석축	800	백제	
24	증산성	규암면 신성리	140	테피식	석축	624	백제	
25	청산성	부여읍 쌍북리	48	테피식	토축	500	백제	
26	토정산성	홍산면 북촌리	90	테피식	토축	700	백제	

<표 3-5> 공주시 소재 산성 현황

번호	성곽명	소재지	해발 고도 (m)	유형	축성 재료	규모(m)	초축 시기	비고
1	계룡산성	계룡면 · 반포면	845	포곡식	석축	내성 850 외성 3,500	나말 려초	내 · 외성
2	양화산성	계룡면 경천리	140	테피식	토·석 혼축	484	백제	
3	이인산성	이인면 용성리	230	테피식	석축	510	백제	
4	중장리산성	계룡면 중장리	160	테피식	토축	600 (외성포함)	백제	내 · 외성
5	광정리산성	정안면 광정리	80	포곡식	석축	450	백제	
6	단지리산성	우성면 단지리, 동대리	120	테피식	석축	433	백제	
7	만수리산성	이인면 만수리	172	테피식	토·석 혼축	300		
8	무성산성	우성면 한천리 사곡면 대중리	614	테피식	석축	525		
9	봉곡리산성	반포면 봉곡리 마암리 매봉	356	테피식	석축	100		
10	송정리산성	의당면 유계리 장기면 송정리	180	테피식	석축	400	백제	독현성 수현성
11	신평산성	신평면 산정리	110	테피식	석축	355	백제	
12	오인리산성	의당면 오인리 우성면 반촌리	120	테피식	석축	424	백제	상용리 산성
13	옥성리산성	우성면 옥성리	40	테피식	토축	120	백제	
14	율정리산성	의당면 율정리	192	테피식	토축	416	백제	
15	평기리산성	장기면 평기리, 대교리	50	테피식	토축	350	백제	
16	한산성	공주시 웅진동	121	테피식	토·석 혼축	105		
17	옥녀봉산성	공주시 옥룡동	83	테피식	토축	870	백제	
18	은룡리산성1	장기면 은룡리 성제산	128	테피식	토축		백제	
19	은룡리산성2	장기면 은룡리 장군산	325	테피식	토축	200		
20	수촌리토성	의당면 수촌리	30		토축			
21	용성리산성	이인면 용성리	61	테피식	토축	322	백제	
22	월성산성	공주시 소학동	312	테피식	토축	340	백제	봉수대
23	상 성	계룡면 상성리	150	테피식	토축	110		

<표 3-6> 금산군 소재 산성 현황

번호	성곽명	소재지	해발 고도 (m)	유형	축성 재료	규모(m)	초축 시기	비고
1	계원봉보루	금성면 마수리	353	테피식	석축	353	백제	
2	계진리산성	금산읍 계진리	240	테피식	석축	850	백제	
3	곡남리산성	진산면 곡남리, 다북리	320	테피식	석축	340	백제	
4	구례리산성	복수면 구례리	359	테피식	석축	350	백제	
5	금성산성	금성면 마수리	438.6	테피식	석축	250	백제	
6	대암리산성	금성면 대암리	425	테피식	석축	900		
7	마수리산성	금성면 마수리	406	테피식	석축	450	백제	핏재 산성
8	마전리산성	추부면 마전리	346	테피식	석축	580	백제	
9	만악산성	진산면 만악리	380	테피식	석축	내성 150 외성 390	삼국	내·외 성
10	수당리산성	제원면 수당리	199	테피식	토축	350	백제	
11	용문산성	군북면 천을리	469.5	테피식	석축	400	삼국	
12	저곡리산성	제원면 저곡리	200	테피식	석축	1,100		
13	지삼치산성	부리면 양곡리	505	테피식	석축	300		
14	진산성	진산면 읍내리	306	테피식	석축	705	백제	
15	천내리산성	제원면 천내리	467	테피식	석축	400	백제	
16	철마산보루	추부면 장대리	428	테피식	석축	30	백제	
17	평촌리산성	부리면 평촌리	244	테피식	석축	680	백제	
18	백령산성	남이면 역평리, 건천리	400	테피식	석축	207	백제	

<표 3-7> 논산시 소재 산성 현황

번호	성곽명	소재지	해발 고도 (m)	유형	축성 재료	규모(m)	초축 시기	비고
1	황산성	연산면 표정리	267	테피식	석축	850	백제	
2	달이산성	별곡면 수락리	600	테피식	석축	1,800		
3	매화산성	연무읍 양지리	370	테피식	석축	1,550		마야 산성
4	반야산성	은진면 관촉리 논산시 지산동	40	테피식	토축			상수도 시설
5	불암산성	성동면 개척리	57	테피식	토축	360		
6	산직리산성	양촌면 산직리	174.8	테피식	석축	600	백제	
7	모촌리산성	양촌면 모촌리	163	테피식	석축	600	백제	
8	옥녀봉산성	강경읍 북옥동	50	테피식				
9	외성리산성	부적면 외성리	120	테피식	토축	내성 300 외성 400	백제	내·외 성
10	곰티산성	별곡면 검천리 양촌면 산직리	320	테피식	석축	500	백제	
11	채운산성	강경읍 채운리	57	테피식	토축			
12	청동리산성	연산면 청동리 양촌면 명암리	146	테피식	토축	340	백제	
13	황령산성	양촌면 신암리 별곡면 한삼천리	404	테피식	토축	300	백제	
14	황화산성	논산시 등화동	80	테피식	토축	730	백제	
15	성태봉산	성연무읍 고내리, 황화정리	320	테피식	석축	237	백제	
16	신흥리산성	양촌면 신흥리	163	테피식	토축	550	백제	
17	월성리산성	성동면 월성리	70	테피식		1,400	백제	
18	노성산성	노성면 송당리	320	테피식	석축	950	백제	

<표 3-8> 당진군 소재 산성 현황

번호	성곽명	소재지	해발 고도 (m)	유형	축성 재료	규모(m)	조축 시기	비고
1	가성산성	당진읍 우두리	84.7	테피식	토축	438	백제	
2	국사봉산성	정미면 봉생리	129.6	테피식	토축			
3	성동리산성	합덕읍 성동리	67	테피식	토축	470		
4	성하리산성	면천면 성상리	100	테피식	토축	400		
5	소소리산성	합덕읍 소소리	90	테피식	석축	490	백제	퇴미 산성
6	송악산성	송악면 중흥리	150.6	테피식	석축	270		
7	수암산성	덕산면 둔리 삼교읍 신리	260	테피식	석축	535	조선	
8	응포성	석문면 통정리			토축			
9	운정리산성	신평면 운정리	36	테피식	토축	550	백제	신평현 성
10	자모산성	정미면 산성리	255.9	테피식	토축	250		
11	작문재산성	송산면 유곡리	100		토축			차단성
12	장고항성	석문면 장고항리		테피식	석축	270		멸실
13	창택산성	송산면 도문리	63.9	테피식	토축	90		
14	태성산성	당진읍 행정리	92	테피식	토축	327	백제	
15	성산리산성	석문면 성산리	60	테피식	토축	210		
16	성산성	정미면 산성리						평지성
17	몽산성	면천면 성상리	295	포곡식	토· 석 혼축	3,510		

〈표 3-9〉 보령시 소재 산성 현황

번호	성곽명	소재지	해발 고도 (m)	유형	축성 재료	규모(m)	초축 시기	비고
1	고남산성	주포면 봉당리	95	테피식	토축	400	백제	봉당 고성
2	달산리산성	남포면 달산리, 옥서리	80	테피식	토축	300	백제	
3	대봉산성	남포면 제석리, 소송리	100	테피식	석축	400	백제	
4	대천리산성	웅천읍 대천리	206	테피식	석축	200	백제	
5	삼곡리산성	주산면 삼곡리	223	테피식	토·석 혼축	250	백제	
6	성동리산성	웅천읍 성동리	338	포곡식	석축	900		
7	수부리산성	웅천읍 수부리	416	포곡식	석축	900	백제	성주 산성
8	아현산성	주포면 연지리	210	테피식	석축	360	백제	갈현리 고분군
9	오서산성	청소면 성현리	790	포곡식	석축	1,000		
10	진당산성	주포면 보령리 청라면 장산리	351	테피식	석축	890	백제	
11	창암리산성	주산면 창암리	120	테피식	토축	200	백제	
12	향천리산성	청라면 향천리	100	테피식	석축	300		
13	황율리산성	주산면 황율리	60	테피식	토축	300	백제	

<표 3-10> 서산시 소재 산성 현황

번호	성곽명	소재지	해발 고도 (m)	유형	축성 재료	규모(m)	초축 시기	비고
1	당산산성	해미면 반양리	160	테피식	석축	650	백제	
2	봉화산성	서산 고북면 신송리 홍성 갈산면 대사리	228.1	테피식	석축	530	백제	고구성
3	동암산성	운산면 갈산리	160	테피식	토축	260		
4	명림산성	서산시 예천동	100	테피식	토축	300		
5	미륵산성	대산 금탑리	140	테피식		400		
6	북주산성	서산시 읍내동	140	테피식	석축	760	백제	봉수대
7	성왕산성	음암면 상흥리	220	테피식	석축	540		
8	연암산성	해미면 대곡리	430	포곡식	석축	3,500		
9	웅소성	해미면 웅소성리	30	테피식	토축	300		어리성
10	울목리산성	음암면 울목리	140	테피식	토축	250	백제	
11	호리성	팔봉면 호리	30	테피식	석축	520		진성
12	부성산성	지곡면 산성리	118	테피식	석축	529	백제	
13	전라산성	운산면 안호리	93	테피식	석축	480		
14	진장리산성	팔봉면 진장리 2구	20	테피식	토축	560	백제	고성산 성
15	화수리산성	인지면 화수리	110	테피식				보루

<표 3-11> 서천군 소재 산성 현황

번호	성곽명	소재지	해발 고도 (m)	유형	축성 재료	규모(m)	초축 시기	비 고
1	봉남리산성	마서면 봉남리	47	테피식	토축	잔존 420	백제	
2	서태산성	마서면 옥북리	100	테피식	토축	300	백제	
3	선도리산성	비인면 선도리	30	테피식	토축	280	백제	
4	성내리산성	비인면 성내리	240	포곡식	석축	1,500		
5	저산리산성	판교면 저산리	120	테피식	토축	385		
6	태월리산성	서천읍 태월리	70	테피식	토축	280		
7	풍정리산성	시초면 풍정리	95.3	테피식	토축	520	백제	
8	한성리토성	마서면 한성리	63	테피식	토축	320		
9	덕명동산성	비인면 성내리	140	테피식	석축	600		
10	만덕리산성	판교면 만덕리	50	테피식	석축	300		
11	벽오리산성	마산면 벽오리	150	테피식	토축	300	백제	
12	성북리산성	비인면 성북리	100	테피식	토·석 혼축	350	백제	
13	송내리산성	마서면 송내리 장항읍 성주동	99.9	테피식	토축	270	백제	
14	장포리산성	비인면 장포리1구	40	테피식	토축	350	백제	
15	중태산성	마서면 덕암리	101	테피식	토축	350	백제	
16	지원리산성	문산면 지원리	135	테피식	토축	180	백제	
17	둔덕리산성	서천읍 둔덕리	80	테피식	토축	375	백제	
18	월명산성	비인면 성내리	298	테피식	석축	250		
19	장구리산성	중천면 장구리	100	테피식	석축	400	백제	
20	남산성	서천읍 남산리	146.9	테피식	석축	633		
21	건지산성	한산면 지현리	170	복합식	토·석 혼축	테피식 350 포곡식 1,384	고려	

〈표 3-12〉 아산시 소재 산성 현황

번호	성곽명	소재지	해발 고도 (m)	유형	축성 재료	규모(m)	조축 시기	비고
1	군덕리산성	선장면 군덕2리	37.3	포곡식	석축	1,150	고려	
2	금성리산성	인주면 금성리	50	테피식	토축	340		
3	기산동산성	아산시 기산동	20	테피식	토축	잔존 640		남벽 제외
4	피골산성	탕정면 용두리 음봉면 송촌리	271	포곡식	석축	340	백제	앵리성
5	무명산성	음봉면 신수리 염치읍 동정리	249	테피식	석축	190	백제	
6	물양산성	음봉면 송촌리 염치읍 동천리 탕정면 용두리	283	테피식	석축	690	백제	수한 산성
7	배방산성	배방면 신흥리	250	테피식	석축	1,500	백제	
8	백암리산성	염치읍 백암리	168	테피식	석축	390		
9	북수리산성	배방면 북수리	80	테피식	토축	150	백제	
10	성내리산성	영인면 성내리 음봉면 신정리 둔포면 신정리	190	테피식	석축	410		
11	성안말산성	아산시 읍내동	140	포곡식	석축	1,080		
12	세교리산성	배방면 세교리	110	테피식	토축	495	백제	
13	연암동산성	음봉면 동암리, 소동리	292	테피식	석축	385		
14	연암서산성	음봉면 동암리, 소동리	292	테피식	석축	150		
15	영인산성	영인면 상성리 염치읍 산양리	363.9	테피식	석축	1,000		
16	용와산성	아산 음봉면 월랑리	238.5	테피식	토축	300		
17	읍내동산성	아산시 읍내동	120	테피식	석축	970		
18	호산리산성	탕정면 호산리	128.8	테피식	석축	230		
19	매곡리산성	탕정면 매곡리	107	테피식	토축	250		
20	학성산성	신창면 읍내리	183	테피식	석축	530	백제	
21	공진창성	인주면 공세리	20	테피식	석축	500	조선	조창

<표 3-13> 연기군 소재 산성 현황

번호	성곽명	소재지	해발 고도 (m)	유형	축성 재료	규모(m)	초축 시기	비고
1	운주산성	전동면 청송리	459	복합식		석축 3,098	백제	내·외성
2	고려산성	전의면 고동리, 대정리	307	테피식	석축	250		
3	나성리산성	남면 나성리	45	테피식	토축			
4	당산성	남면 보통리	160	복합식	토·석 혼축	내성 540 외성 600	백제	외성은 토축
5	송성	전의면 달전리	383	테피식	석축	66		
6	와촌리산성	서면 와촌리	208	테피식	토축	550		
7	읍내리산성	전의면 읍내리	160	테피식	토축	800	백제	
8	이성	전동면 송성리	229	테피식	석축	510	백제	
9	작성산성	전의면 송성리	330	테피식	석축			기우제단
10	증산성	전의면 서정리	250	테피식				
11	진의리산성	남면 진의리	170	테피식	토·석 혼축	1,200		
12	황우산성	동면 함강리, 명학리	196	테피식	토축	250	백제	
13	이성골산성	금남면 봉기리	137.5	테피식	석축	350	백제	

<표 3-14> 예산군 소재 산성 현황

번호	성곽명	소재지	해발 고도 (m)	유형	축성 재료	규모(m)	초축 시기	비고
1	건지화리산성	응봉면 지화리	200	테피식	토축	180		
2	대천리산성	예산군 고덕면	62	테피식	토축	260		
3	사동리산성	덕산면 사동리	290	테피식	석축	1,090		
4	산성리산성	예산읍 산성리	62	테피식	석축	658	백제	
5	상중리산성	대흥면 상중리	200	테피식	석축			
6	시동리산성	봉산면 시동리	160	테피식	석축	853	고려	
7	신속리산성	대흥면 신속리	120	테피식	석축	668	백제	
8	장전리토성	광시면 장전리	30	테피식	토축			
9	천태산성	봉산면 시동리	126.2	테피식	토축	260		
10	봉수산성	대흥면 상중리 광시면 동산리	483.9	테피식	석축	2,450	백제	임존성
11	상성리산성	삽교읍 상성리		테피식	토축	235	백제	
12	수암산성	삽교읍 신리	260	테피식	석축	540	백제	

<표 3-15> 천안시 소재 산성 현황

번호	성곽명	소재지	해발 고도 (m)	유형	축성 재료	규모(m)	초축 시기	비고
1	광덕산성	동면 광덕리	297	테피식	석축	300	삼국	
2	대정리산성	성남면 대정리	225	테피식				
3	동성산성	동천면 도원리	237.6	테피식	석축	500	백제	
4	두남리산성	풍세면 두남리	162	테피식	토·석 혼축	200		
5	망경산성	수신면 백자리	395	테피식	석축	660		
6	봉접산성	천안시 백석동	158	테피식	토축	250		
7	서림산성	동면 수남리	330	테피식	석축	450	삼국	
8	성거산성	성거읍 천흥리	579	테피식	석축	550		
9	성산산성	직산읍 군서리		테피식	토축	600	백제	
10	월봉산성	천안시 불당동	132.5	테피식	석축	260	백제	
11	일봉산성	천안시 용곡동	133	테피식	토축	330	백제	
12	작성산성	병천면 매성리	496	테피식	석축	300	삼국	
13	청당동산성	천안시 청당동	169	테피식	석축	350	백제	
14	청룡산성	광덕면 매당리	148	테피식	석축	500		
15	하장산성	동면 장송리		테피식	토축			
16	화계리산성	동면 화계리	206	테피식	토축	600	백제	
17	흑성산성	목천면 남화리	519	테피식	석축	500	고려	
18	세성산성	성남면 화성리	219	테피식	석축 토축	-	삼국	내성50(석) 외성750(토)
19	사산성	직산면 군동리	176	포곡식	토축	1,405	백제	내성750 외성1,030
20	위례산성	북면 운룡리	525.9	테피식	석축	950		
21	목천토성	목천면 남화리		테피식	토축	450 (잔존190)	백제	멸실
22	구룡동산성	천안시 구룡동		테피식	토축			
23	삼룡동산성	천안시 삼룡동		테피식	토축			
24	용와산성	직산면 마정리	238	테피식	석축	300		
25	백석동토성	천안시 백석동	122	테피식	토축	269	백제	

<표 3-16> 청양군 소재 산성 현황

번호	성곽명	소재지	해발 고도 (m)	유형	축성 재료	규모 (m)	초축 시기	비고
1	적곡리산성	장평면 적곡리	560	포곡식	석축	4,500		
2	테피산성	청양읍 교월리, 백천리	160	테피식	토·석 혼축	600	백제	
3	계봉산성	정산면 백곡리	210	테피식	석축	560	백제	두룡 윤성
4	문성리산성	정산면 광생리 덕성리	60	테피식	토축	250		
5	백곡리산성	정산면 백곡리	80	테피식	토축	400	백제	
6	태봉토성	목면 신흥리		테피식	토축	200	백제	
7	방한리산성	비봉면 방한리	120	테피식	토축		백제	
8	새재산성	비봉면 사점리	120	테피식	토축			
9	제비재토성	청양읍 적루리, 백천리	160	테피식	토축	350	백제	
10	천마봉산성	청양읍 군량리	180	테피식	석축	250	백제	
11	갯골토성	청양읍 정좌리	170	테피식	토·석 혼축		백제	
12	좌동산성	화성면 정좌리	180	테피식	석축			
13	우산성	청양읍 읍내리	100	포곡식	석축	965	백제	

<표 3-17> 태안군 소재 산성 현황

번호	성곽명	소재지	해발 고도 (m)	유형	축성 재료	규모(m)	초축 시기	비고
1	백화산성	태안읍 동문리	270	테피식	석축	730	백제	
2	금굴산성	태안읍 삭선리3구	148.8	테피식	석축	320		
3	구수산성	근흥면 두야리	145	테피식	석축	626		
4	대왕산성	근흥면 두야리	120	테피식	석축	370		
5	달산리산성	남면 달산리	50	테피식	토축	216	백제	
6	상왕산성	운산면 원평리	396	포곡식	석축	2,190		
7	수용리산성	근흥면 수용리	80	테피식	석축	465		
8	양잠리산성	남면 양잠리	68	테피식	석축	382		
9	지령산성	근흥면 정죽리	218	테피식	석축	400		
10	포지리토성	이원면 당산리			토축			목장성
11	한의산성	원북면 양산리	150	테피식	토·석 혼축	350		

<표 3-18> 홍성군 소재 산성 현황

번호	성곽명	소재지	해발 고도 (m)	유형	축성 재료	규모(m)	초축 시기	비고
1	구룡리산성	홍성읍 구룡리	60	테피식	토축	740	삼국	
2	내법리산성	홍성읍 내법리		테피식	토축	700		
3	만경산성	홍동면 신기리	120	테피식	토축	95	백제	
4	매성봉산성	광천읍 매현리, 신곡리	220	테피식	토축	250	삼국	
5	백월산성	홍성읍 월산리 백월산	394	테피식	토·석 혼축	850	고려	
6	태봉산성1	광천읍 당산리 창곡면 호성리	170	테피식	석축	150	백제	
7	송암리산성	금마면 송암리, 장성리	136	테피식	토축	170	백제	
8	용봉산성	홍북면 신경리	369	포곡식	석축	2,800	고려	
9	천태리산성	홍성읍 장곡면 천태리 예산읍 홍시면 노전리	262	포곡식	석축	1,400		
10	태봉산성2	장곡면 천태리	193	테피식	석축	187	삼국	
11	학성산성	장곡면 산성리	212	테피식	석축	1174.7	고려	
12	대사리산성	갈산면 대사리	120	테피식	토축	210	백제	
13	효학리산성	홍동면 효학리	130	테피식	토·석 혼축	316		
14	석성산성	장곡면 산성리	208.8	포곡식	석축	1,353	통일 신라	
15	석당산성	결성면 읍내리	146	테피식	토축	700	백제	

4. 충남의 문화

조선시대에 주로 충청우도에 해당했던 충청남도는 공주목과 홍주목이 이 지역 행정의 중심지였다. 공주목과 홍주목은 고려시대부터 계수관(界首官) 고을이었는데, 이와 같은 계수관 고을은 각기 지역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충남지

역은 크게 계수관 고을이었던 홍주를 중심으로 한 ‘내포문화권[가야산문화권]’과 공주를 중심으로 한 ‘금강문화권[계룡산문화권]’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¹³⁾ 이와 같은 문화의 지리적 범위에 대해서는 제4장 공간함수 편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주로 충남의 세시풍속, 전통신앙, 음식, 언어, 예술을 중심으로 충남의 시간함수를 접근하고자 한다.

1) 세시풍속¹⁴⁾

충청남도는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완만한 산세와 금강을 중심으로 기름진 평야지대가 발달하고 있어서 사람 살기에 좋은 편이다. 그러므로 충남지역은 자연재해도 비껴갔고, 주민들의 품성도 착하고 온순하며 느리기로 소문났다. 자연재해가 적어서 충남에 사는 사람들의 성격이 여유롭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바다에 연해 있고 차령고개를 안고 사는 내포지역의 경우는 내륙지역보다는 태풍이나 파도, 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한 위기감과 충격이 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기질 또한 다르다.

충남지역의 세시풍속은 이러한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았고, 인접한 다른 지역 즉, 경기지역, 전북지역, 그리고 충북지역과의 관계 및 연계성에서 도출된다. 세시풍속은 지형적 요인과, 기후조건 등 복합 산물이다. 또한 세시풍속은 먹성(음식)과 입성(옷) 및 집의 형태와 구조를 반영하고 있어서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지형, 기후에 따라 다르다. 즉, 충남의 세시풍속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접한 세 지역의 지형적인 거리는 물론 산맥의 방향과 교통로 등이 가져다주는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정 지역의 문화가 공간함수와 무관하지 않은 이유다.

충남의 천안, 충북의 진천, 그리고 경기 안성지역은 서로 지리적으로는 근거리에 있지만 지형적으로는 금북정맥 등 교류 상 장애가 될 수 있는 산과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 이에 따른 풍속 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인다. 예를 들면 경기도 안성지역의 세시풍속은 경기 남부지역의 전형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교통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안성읍 주변에는 천안 등 충남의 풍속이, 안성 동쪽의 옛 죽산읍 주변에는 진천, 음성, 그리고 여주 등 충북지역과 경기 동부지역의 풍속이 보인다. 산간지대가 많은 충북지역은 지형상의 특징을 반영하듯 마을마다 산신제가 전 도역에 걸쳐 존재한다. 명칭은 산제(山祭) · 동산제(洞山祭) · 산고사 · 천제사(天祭祀) 등 다양하나 산신제가 가장 일반적이다.

13) 「충청남도지」, 제1권.

14) 이 부분은 주로 「충청남도지 제18권」의 정승모 글을 인용하였다.

충남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면서도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천안지역은 인접한 진천지역에 비하면 지형이 비교적 평탄하여 동쪽보다는 서쪽, 그리고 남북축으로 특히 남쪽 지역과의 연계성이 강하다. 그래서 정초에는 충남 대부분의 지역처럼 가내 평안을 위하여 안택도 하고 정월떡도 하며, 집안의 제액초복(除厄招福)을 위하여 정월 보름 안으로 서낭제 · 용왕제 · 거리제 · 횡수맥이 등도 치러진다. 하지만 충남의 남부지역과는 달리 10월에 하는 안택의 비중이 크고, 또한 ‘정월떡’ 보다는 ‘갈떡’(가을떡)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충남 서산지역에서는 안택고사를 지신제라 하는 등 지역에 따라 명칭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거의 같다. 예전에는 무당이나 독경자와 같은 전문 사제자가 굿이나 독경의식으로 행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지만, 간혹 그 집안의 주부가 주재하기도 했다. 어촌에서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는 배에서 고사를 지냈는데, 이를 안택고사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특히 배에 있는 신을 경기, 충남 및 전남북 · 경남북의 모든 해안가에서 배서낭이라 하고, 강원도에서는 배성주, 그 밖의 지역에서는 지왕님 또는 당(堂)이라 일컫기도 한다. 가장 익숙한 명칭은 배서낭인데, 이 서낭은 육지에서 섬기는 ‘서낭’과는 다르다. 어촌의 안택고사 역시 집안의 평안과 풍요를 위하여 집안에서 섬기는 가신(家神)을 대상으로 지내는 의례로 정초에 주로 한다. 가을에 지내는 고사도 안택, 또는 안택고사라고 하지만, 가을고사는 주로 ‘성주고사’ 혹은, ‘천신고사’라고도 한다.

줄다리기는 거의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마을공동체, 또는 넓은 고을의 지역축제이다. 천안 병산면 병천의 줄다리기는 넓은 지역에 걸쳐 치러지는 지역축제에 해당한다. 병천장에서는 윤달이 드는 해에 병천리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주민들까지 모두 모여서 줄을 당겼다. 천안 직산읍의 줄다리기는 구 직산읍을 중심으로 근동에 위치한 4개 면이 함께 놀던 놀이다. 직산읍을 비롯하여 성환읍 · 입장면 · 성거면이 당시 북부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네 개의 면이 줄다리기에도 모두 참여하였다.

충남 남부지역에는 줄다리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지 않은데, 이것은 줄다리기를 행사를 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과거에 행해지던 것이 소멸된 채 복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특히 북부지역의 사례처럼 줄다리가 넓은 고을에 걸쳐 치러진 지역축제인 경우 일제 때 통제를 받은 경우가 많았고, 한 번 소멸되면 그만큼 복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정초의 마을 의례행사로 충남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지신밟기다. 지신제라고도 하며 특히 우물에서 오래 머물러 우물제 · 샘제 · 용왕제와 혼동되거나 또는 같은 것으로 본다. 보령지역의 사례처럼 대보름 하루만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정초부터 보름까지 하는 곳도 있고, 아산지역의 사례처럼 보름부터 2월 초하루까지 지신밟기가 계속되는 지역도 있다. 지역에 따라 칠석날 호미씻이 때나 추석 때도 지신밟기가 행해진

다. 서산시 인지면 야당리에서는 지신제와 ‘홍수매기’(홍수막이)를 겸해서 실시한다.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정월의 지신밟기는 대개 줄 제작에 필요한 짚을 모으기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하므로 줄다리기와의 관련성이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추렴을 통해 당산제 비용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마을의 동제행사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충남지역이나 전북지역의 지신밟기 중에는 줄다리기나 당산제 행사와 무관한 것이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 될 것이다. 두 지역 간에 차이가 있다면 전북지역에서는 지신밟기 대신 ‘마당밟기’란 용어를 쓴다는 점이다.

천안시 수신면 해정리 엄정말에서는 정월 열하루부터 열 사흘날까지 행하지는 ‘도구지미’는 동네 남자들이 주동이 되어 각 가정을 돌면서 터를 다지는 지신밟기의 일종인데, 다른 지역과는 용어도 다르고 내용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터를 다지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충남지역 지신밟기의 성격을 오히려 잘 드러낸다.

정월 초에는 일년 농사를 준비하는 세시풍속들이 등장한다. ‘소고뽕이드리기’도 이러한 성격의 세시풍속이다. 홍성·금산 등 충남의 내륙이나 서부해안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대개는 ‘소고뽕이드리기’라고 한다. ‘쟁기줄 만들기’·‘소줄꼬기’·‘쇠줄 드리기’·‘뭇줄드리기’ 등도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같은 내용이다

평택지역 등 충남과 가까운 경기남부지역에서는 이것을 ‘주대드리기’라고 한다. 경기지역과 가까운 천안지역이나 예산지역에서도 “주대 드린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즉 경기도에서 주로 사용하는 ‘주대드리기’는 천안과는 내륙 교통으로, 예산과는 강상교통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나 전북지역으로 내려오면 이러한 행사 자체를 잘 볼 수 없다.

충남의 남부지역과 전북, 도는 충북지역은 여러 측면을 검토해야 서로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해낼 수 있다. 예를 들면 ‘김쌈먹기’ 같은 관행은 세 지역에서 모두 널리 행해져온 관행이다. 정월 보름날 아침에 흰쌀밥을 지어 동태와 두부를 넣은 두부찌개를 먹을 때는 ‘백반먹기’라 하고, 이때 흰쌀밥의 첫술을 반드시 김에 싸서 먹으면 이를 ‘김쌈먹기’, 또는 복을 먹는다고 하여 ‘복쌈’ 이라고 한다. 세 가지 용어는 다르지만 결국 같은 내용이다.

앞서 언급된 마당밟기도 지신밟기와 용어만 다를 뿐 내용은 같다. 그러나 전북지역에서는 충남지역과 달리 정월 초사흘날 고사를 지내는 집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열 나흘날, 혹은 보름날의 화재막이와 보름날의 보름차레 등도 충남지역에서는 보기 힘들다. 뒤에 보게 될 칠석날과 백중날의 행사 내용도 두 지역간에 차이가 나타난다.

정월 열 나흘날이나 보름에 행하는 액땜 관행으로 ‘노두둑 놓기’가 있는데, 충남지역에서는 서천군 기산면·논산시 상월면·금산군 복수면 등 주로 남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에 반해 같은 날에 신수가 나쁜 식구가 있을 때에 이를 없애기 위해 행하는 거리제는 거의 충남 전 지역에서 볼 수 있다. ‘노두둑’은 노뭇돌, 즉 하마석(下馬

石)의 우리말인데 개울 건널 때 밟고 갈 수있게 징검다리로 놓은 돌의 의미로 쓰였다. 위의 충남 남부지역과 근접한 전북 군산지역에는 이를 ‘노두농기’ 라고 하는데, 두 지역 모두 신수가 안 좋은 식구를 위해 액막이 겸 적선(積善)의 의미를 담아 행해온 정월 풍속인 점은 동일하다.

충남지역 어디나 널리 행해지는 보름날 ‘벚가리 세우기’ 는 충남의 천안과 연기지역, 그리고 천안과 인접해 있는 충북의 진천지역에서는 ‘보리타작과 벚가릿대 세우기’ 라고 하여 보리농사와 벼농사가 합쳐진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경북 안동지역에서도 벚가리와는 다른 유형의 보리타작이라는 풍속이 있다.

충북 진천군 문백면 문덕리에서는 정월 열나흘날 저녁에 수수깡 속을 가지고 쌀·보리·콩 등의 곡식모양을 만들어 잿간에 꽂아 두었다가 보름날 아침에 잿간에 있는 것을 거두어 마당에 놓고 타작하는 시늉을 하면서 한 해 풍년을 기원한다. 또 정월 열나흘날 저녁에는 대동 차원에서 마을 공터에서 벚가릿대를 세운다. 이 둘은 아이놀이와 어른놀이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즉 보리타작은 아이놀이로, 벚가리 세우기는 어른놀이로 행해지는 지역도 있다. 당진군 송악면의 사례처럼 잿간에 수수깡 대신 짚을 꽂는 지역도 있다. 당진군 순성면 광천리 등의 경우도 유사하다. 예산 삽교읍 하포리에서는 이를 ‘잿간에 모심기’ 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보리농사와 관련이 있는 보리타작이 순수 벼농사지역에 와서 벼타작으로 그 내용이 바뀐 예라고 할 수 있다.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에서는 정월에 머슴을 들일 경우 보름 안에 미리 들인다. 즉 일 년 머슴 살리 들어갈 때는 정월 보름을 주인집에서 쇠게 된다. 직산 군동리 구역 말에서도 음력 이월 말일경이 되면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므로 그전에 머슴을 들인다. 간혹은 정월에 들어서 밥만 먹여주고 땔나무 일을 시키는 머슴을 두기도 한다. 머슴을 빨리 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농사일을 시작하는 시점이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지역에서는 겨울철에 머슴에게 시킬 일이 많아 이전 해 늦가을부터 계약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충남지역에서는 드문 것 같다.

‘목서리 해주기’ 라고 하여 보름밤에 원새끼를 꼬아 복숭아가지와 함께 소의 목에 걸어 주는 풍속도 충남지역의 한 특징으로 여겨진다. ‘소밤참주기’도 유사한 풍속인데, 충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제천의 의림지 등 충북지역과 전북의 저수지 부근 마을에서 볼 수 있다.

모내기를 마친 후에 씨레를 깨끗하게 닦아서 보관한 후 갖는 행사인 ‘씨레부심’, 혹은 씨레씻이는 호미씻이만큼 보편적이지 않다. 특히 이것은 주대드리기나 ‘소고뽕이드리기’와 마찬가지로 소와 관련이 있고, 나아가 소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것은 북으로는 김포지역에서부터 남으로는 강진 지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소가 귀한 전라도 지방보다는 충청도 지역에 해당 사례가 많은 편이다. 특히 아산 지역의 경우 대농장의 지주집에서 이

런 풍속이 행해왔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굴이 많이 나는 음력 4월경에 충남 서해안의 섬마을과 해변 마을에서 1950~60년대까지 처녀들 사이에서 행해졌다는 ‘등바루놀이’는 선달그믐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행하던 ‘등불써기놀이’와 함께 일종의 풍어놀이라고 한다. 그런데 놀이가 갖는 의미나 타 지역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다.

떡을 들고 논으로 가서 물꼬 밑과 논둑 밑에 한 덩이씩 놓아두는 유두일의 논고사, 혹은 물꼬고사는 유두 행사의 변형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흔하지 않다는 점에서 충남지역에서는 농사력의 하나로서 일정한 의미를 갖게 된 것 같다.

충북지역에서는 참외재배 농가에서 참외제를 지내고 밤에 불을 밝히고 들기름 냄새가 나도록 부침개를 부치는데, 이는 충남지역에서도 널리 퍼져 있다.¹⁵⁾ 즉 유두일의 논고사는 두 지역을 구분하지만 참외제와 부침개로 기름냄새 피우기는 두 지역을 연결한다.

칠성신을 위하는 7월 칠석(7일)과 농사일이 끝나는 백중일(15일) 사이는 8일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농사력에 따라 칠석날 이미 호미씻이를 끝낸 지역에서는 백중보다 칠석날 행사가 더 크다. 천안지역의 경우가 그러한데 백중보다는 칠석날 칠성을 위하는 풍속이 강하여 직산면 군동리 구역말의 경우 칠석에 두레잔치를 열지만 같은 천안의 수신면 해정리와는 달리 백중날에는 머슴에게 용돈을 주고 하루 쉬게 하는 정도로 끝난다.¹⁶⁾

호미씻이만 놓고 보았을 때 전북 군산지역에서는 호미씻이는 ‘술뻘이’라고 하며 칠석과 백중 두 차례에 걸쳐 갖는다. 또한 칠석 때 ‘쌈제’, 즉 우물고사를 치르고 백중 때 호미씻이를 하는 곳도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남쪽 아래로는 칠석날엔 특별한 행사가 없고 백중 때가 되어 ‘술뻘이’ 행사를 갖는다. 즉 모내기 시기가 늦은 남쪽지방의 사정이 정확히 반영된 것이다.

충남지역에서는 추석에 천신(薦新) 또는 ‘올벼천신’·‘올베천신’·‘이른벼 천신’이라 하여 아직 충분히 익지 않은 벼를 홀태로 훑어 명석에 사나흘 동안 말린 다음에 도정하여 메를 지어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기도 하고 성주·터주·조왕을 위하기도 한다. 전남지역의 경우는 올벼라 해도 이미 잘 익은 상태로, 이것과 잘 익은 벼·수수·조 등을 한 줍 베어다가 기둥이나 대문 위에 묶어 걸어두는데 이것을 ‘올게심니’, 또는 ‘올벼심리’라고 한다. 올게심니를 한 곡식의 낱알은 떡을 해서 사당에 천신하거나 터주에 올렸다가 먹는다. 또 다음해에 씨로도 쓰는데 풍년을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다.

15) 충남 부여, 청양과 공주에서는 이를 여우제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풍속은 여우들이 참외의 단맛을 좋아하여 참외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의 예방책으로 보인다.

16) 부여군 일대에서 백중날 머슴들에게 장노자(장에 가서 쓸 용돈)를 주고 하루를 장에 가서 즐기도록 하여 머슴들의 명절이라 불렀다.

올벼천신은 충남의 경우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조금씩 날이 당겨져 대개 추석전에 하고, 전북지역에 오면 백중 때 행하는 곳도 있다. 일반 벼의 수확시기가 모내기 시점에 맞추어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늦어지는 반면 올벼의 수확 시기는 모내기 시점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남쪽의 올벼 생산이 더 빠르고 올벼천신의 시기도 당겨진 것이다.

경기도와 충청도 등 중부지방 농촌에서 추석날 저녁에 노는 소놀이나 거북놀이는 올벼 생산과 관련이 있는 민속놀이이다. 소놀이는 황해도 지역에서 주로 분포되어 있던 반면 거북놀이는 경기지역에서 행해지던 놀이다. 두 놀이 모두 농사일을 마친 농부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이듬해의 풍작을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는 추석 이전에 올벼를 수확하여 추석 음식을 장만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 가난한 농가의 청년들이 부농을 상대로 떡 등 먹을 것을 얻고자 만든 놀이였다. 충북 진천군 문백면 문덕리 미래마을에서는 추석날이 아니라 정월 보름 전날 밤에 동네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사랑방에 모여서 놀다가 배가 고프면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오곡밥과 묶은 나물을 훔쳐서 같이 나누어 먹는다고 한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은 오곡밥을 이웃과 나누어 먹어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날은 으레 오곡밥을 많이 준비하여 술 안에 오곡밥을 넣어둔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들은 진천과 가까운 천안을 비롯하여 그 서쪽의 아산지역과 남쪽의 연기지역 등의 충남 내 지역에서도 볼 수 있다. 병천면 병천리에서는 열 나흘날에 살림이 넉넉한 집에서 일찍 저녁을 먹고 남은 오곡밥을 술 안에 넣어두면 사랑방에 모여서 놀던 마실꾼¹⁷⁾들이 주인 몰래 밥을 훔쳐다 먹는다고 한다. 같은 천안의 직산면 군동리에서는 보름날 저녁에 아이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오곡밥을 훔쳐다가 연자방앗간에서 먹는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관행은 연기군 금남면 대박리의 사례에서와 같이 아홉 번 먹는 밥을 연자방앗간에서 먹어야 효험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즉 충남 남부지역에서처럼 거북놀이가 추석이 아니라 정월보름에 행해지게 되었을 뿐 이것과 아홉 번 밥먹기, 그리고 보름밥 훔쳐먹기 등 세 가지가 단지 형태와 방식에서 차이가 날 뿐 그 동기나 목적 등에서는 서로 상통하는 관행이었던 것이다.

중부이남 지방에서는 추석이 지나야 추수를 하기 때문에 추석 전에 추석차례에 올릴 소량의 햅쌀을 얻을 목적으로 조그만 땅땡이에 올벼를 심는다. 그러나 경기도 이천지역처럼 좋은 토질을 믿고 올벼 재배면적을 넓혀 추석 직전에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수확량을 내는 지역이 있었으며, 이러한 조건 속에서 추석날 거북놀이가

17) 마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담소를 즐기거나 놀이를 하던 풍속으로 ‘마실’ 역시 마을을 뜻하여 마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던 행태에서 ‘마실간다’로 전해오고 있다.

행해졌다. 그러다가 점차 쌀 생산량의 증가로 식량난으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되면서 거북놀이의 분포도 확대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거북놀이는 경기도와 충청도의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만 행해지던 추석놀이였던 것이 충남의 남부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올벼 생산의 양에 따라 추석날에 행하는 지역과 정월 보름에 행하는 지역으로 나뉘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결과 충남 중에서도 주로 내포지역에서는 경기지역과 마찬가지로 8월 보름에 거북놀이를 했던 반면 그보다 아래인 당진군 순성면과 청양군 정산면 등에서는 정월 보름에 거북놀이를 행했다. 즉 거북놀이가 올벼 재배의 규모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부여·서천 등지에서 7, 8월경에 각 마을의 여자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 매일 밤 모시를 짜면서 노는 ‘모시두레’ 또한 충남의 지역성을 반영하는 세시풍속으로서 특기할 만하다. 충남이 경기나 전라남북도와 공유하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의 하나는 모두 서쪽에 바다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어종으로는 조기와 송어가 모두 이들 지역의 문화에 등장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예컨대 조기의 경우 전북지역에서는 ‘조구심니’라고 하여 4월에 새 조기가 나면 조상에게 먼저 올리는 의미로 성주 상에 조기와 밥을 차려놓는 천신의례가 있다고 하는데, 경기나 충남지역에도 이러한 천신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송어 역시 서해안 일대에서는 제사상의 필수 어종으로 알려져 있다.

2) 충남의 전통신앙¹⁸⁾

충남지역에서는 경객(經客)이 앉아서 북과 양판을 두드리며 경문을 암송하는 앉은 곳이 대체로 우세하다. 어느 곳에서나 천존을 최고의 신으로, 옥추경을 최고의 경전으로 꼽으며 인간의 문제를 잡귀를 몰아냄으로써 해결하는 곳의 형태는 유사하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독경의 절차가 생략되거나 지역주민의 필요성에 따라 의례가 추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는 충남 부여·공주·청양·금산 등 내륙지역과 서산·당진·홍성·예산 등 내포지역으로 나누어서 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충남의 내포지역과 금강유역에서의 곳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안택의 절차이다. 내륙지역의 안택에서는 법사가 부엌에서 조왕경을 마친 후에, 장독 혹은 장광에서 당산경 혹은 터주경을 한 석 진행하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독경을 한다. 그러나 서산·태안·당진 등 해안지역에서는 대체로 법사가 부엌에서 조왕경을 마친 후에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가서 곳을 진행한다. 대신 안방에서 성주대가름을 한 후에 성주신의 의사에 따라서 터주지신을 위하는 경문을 읽을지 여부가 결정된다.

내륙지역과 달리 해안지역에서는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필요성에 따라 뱃고사

18) 이 부분은 주로 「충청남도지 제18권」의 임승범 글을 인용하였다.

등의 의례가 추가되기도 하고, 이에 따른 경문 및 축문이 더해진다. 지역에 따라 법사들이 짚는 경문도 다르다. 내륙지역 법사들은 대체로 옥추경을 중심으로 옥갑경, 기문경, 천지팔양경을 4대 경문으로 여긴다. 반면에 내포지역의 법사들은 옥추경, 천지팔양경, 광본태세경, 지신다리니경을 주로 짚는다. 법사들은 이러한 경문을 대경(大經)이라 하여, 환자 치료를 위한 병경(病經)으로 주로 쓴다. 이러한 차이는 그 지역의 주민들과 법사 혹은 보살들이 오랜 기간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형한 지역의 문화에서 비롯된다.

한편, 충남지역 앓은곳은 과거에 비해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과거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속인들은 자신의 신당에 위목 형태로 신령을 모셨다. 그러나 점차 서울 및 다른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위목은 무신도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굿에 쓰이는 무구도 직접 제작하지 않고 불교용품점에서 구입해서 쓰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충남지역만의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굿의 진행도 이제 일반 가정집에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체로 계룡산 등 지역의 명산이나 법사 혹은 보살이 설립한 굿당에서 굿을 한다. 아무래도 일반 가정집에서 굿을 하다보면 이웃 및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 및 이북지역의 선굿과 혼합되어 굿 진행이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예컨대 대잡이의 소멸과 선굿 무당들이 굿에 개입함에 따라 보살이 대를 직접 잡고 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공수가 굿에 삽입되기도 하고, 심지어 법사들은 선굿 무당들의 고장잡이로 전락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충남지역에서는 앓은굿 형태의 굿을 선호하는 정서는 여전하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선굿 무당이 공수를 내리더라도 대잡이처럼 신장대를 손에 든 채 진행한다. 또, 굿을 할 때 쓰는 음악도 법사가 독경을 할 때 쓰는 장단에 맞추어진다.

3) 충남의 음식¹⁹⁾

충남의 음식문화는 내포권과 서해안 섬을 중심으로 한 해안지방과, 강경과 그 주변을 연결해주는 내륙지방으로 크게 나누어 다른 양상을 보인다. 내포지방은 싱겁고 맵게 먹지 않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김치에도 고춧가루를 별로 쓰지 않는다. 이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굴과 새우젓·조기젓·황새기(황석어)젓을 김치에 넣는 특성이 있으므로 굴깍두기가 유명하고, 백김치에는 새우젓·조기젓·황새기젓을 넣되 멸치젓은 사용하지 않는다. 대두 생산량이 적어 강경권에 비하여 간장·된장은 비교적 담아 먹지 않는다. 간을 낼 때에는 새우젓을 간장대용으로 쓴다. 해피젓(바지락+소금), 새우젓(새

19) 이 부분은 주로 「충청남도지 제18권」의 김상보 글을 인용하였다.

우+소금), 박하지(꽃게보다 작고 단단한 게+소금), 사시랭이젓(꽃게새끼+소금) 등과 같은 거의 모든 것같은 해산물에 소금만을 넣고 담았다. 그러나 당진의 어리굴젓은 굴+소금+고춧가루이고, 서산의 어리굴젓은 굴+소금+고춧가루+조밥을 넣는 특징이 있다.

내포권을 포함한 해안지방에서는 계절별로 다양한 생선을 먹었는데, 봄에는 중하·새우·삼치·조기·송어를, 여름에는 대하·파래를, 가을에는 새우·전어·낙지·쭈꾸미·준치를, 겨울에는 굴·새우·뽕대이·송어·망둥어·꽃게·김을 즐겨 먹었다. 이들 생선들은 회로 먹기도 하였고, 소금간을 하여 절여먹거나 말려서 먹었다. 제철 생선은 소금을 약간 뿌려서 살짝 말린 다음 찢어서 먹는 자반류 외에 말린 생선으로 찢어서 먹는 건어물찜이 풍부하다. 술로는 면천의 두견주와 아산의 연엽주는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쌀과 대두 그리고 나물이 귀한 도서지역은 보리밥을 많이 해 먹고, 고추장도 보리나 밀가루에 소금, 고춧가루와 엿기름을 섞어 만들되 메주가루를 넣지 않는 특징을 지닌다. 음식의 간은 까나리액젓이나 기타 다린 젓국을 간장 대용으로 사용하였다. 해안지방에서는 깨·녹두·팥·마늘·고추·쪽파·양파·고구마를 많이 재배하므로 쪽파나 마늘·고추 등을 재료로 한 파김치나 마늘쫑 장아찌를 많이 만들어 먹는다. 고추 사용은 내포권보다 비교적 많은데 특히 마늘쫑 장아찌는 간장에 담는 것이 아니라 까나리액젓에 담는다. 해안지방에서는 나물반찬이 귀하므로 쪽파김치나 마늘쫑 장아찌·양파 등이 나물을 대신하여 밥상에 자주 오른다. 작은 소라새끼를 소금에 절인 무룩젓·조갯살을 소금에 절인 입조개젓, 굴을 소금에 절인 어리굴젓과 같이 것같은 해산물에 소금만을 넣고 담는다. 해안지방에서는 뱃고사를 많이 지내기 때문에 무르떡(백설기)·고물떡(팔시루떡) 외에 액막이 떡인 수수경단도 자주 만들어 먹었다.

내포권²⁰⁾에 비하여 훨씬 짜고 맵게 먹는 강경을 포함하는 내륙권은 대두·모과·무·곡식 생산량이 풍부하다. 뿐만 아니라 공주·대전 등은 목화산지, 한산·부여 등은 모시산지로 부자가 많이 살던 곳이었다. 또 내륙지방은 강경으로부터 금강줄기를 타고 질 좋은 소금과 조기 그리고 각종 젓갈을 비교적 손쉽게 구입하여 조달되었던 지역이었다. 풍부한 소금과 대두가 어우러져 간장·된장·진장·증장·지름장(지레 먹는 장)·각종 고추장이 발달하였고, 맛 좋은 간장으로 논의 벼포기에서 잡은 논게(참게)를 재료로 하여 젓갈을 담아 만들어 낸 ‘민물게장’이 유명했던 지역이다.

한산을 중심으로 무를 크게 썰어 담근 ‘섞박지’ 김치가 유명했다. 조기젓·황새기젓·새우젓을 김치에 넣었으나 최근 들어 멸치젓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금강으로 에워싸여 있어 먹조개(부여 백마강에서 잡힌 조개)로 만든 먹조개국, 잉어·가물치·

20) 내포권에 대한 공간범위는 문헌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강경, 부여, 공주까지도 내포(內浦)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헌은 예산, 당진, 서산, 홍성, 보령, 서천에 이르는 지역을 내포지역으로 보고 있다.

붕어로 만든 잉어국·가물치국·잉어회·가물치회·붕어찜을 즐겨 먹었다. 붕어는 원산에서 들여와 조선 후기부터 강경포구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여건 때문에 강경주변은 명태(붕어) 짬아찌도 전통음식 중 하나가 되었다. 가을철에는 감을 각종 장에 박아 삭혀 먹는 감장아찌도 유명하다. 금산이 충청남도에 편입된 이후로는 인삼을 재료로 하는 잉어찜(잉어+인삼)·묘삼나박김치(묘삼+소금+오이+실고추)·묘삼나물·묘삼생채도 지역성을 보여주는 음식문화가 되었다.

공주, 회덕, 유성 등지에는 쌀과 찰쌀을 다른 음식재료로 사용하였다. 특히 공주에서는 깍두기를 담글 때 예부터 찰쌀풀과 꿀을 넣었으며, 충남 일대에는 찰쌀로 만든 고급 가양주였던 백일주, 송순주, 소국주와 국화주 등이 유명하다. 이상과 같이 생선과 젓갈을 중심으로 하여 발달한 충청남도의 음식문화는 지역별로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명절음식은 그 명칭만으로 보았을 때는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4) 충남의 예술²¹⁾

충남은 서해안을 끼고 있는 내포지역과 충청의 젓줄 역할을 해온 금강 유역으로 크게 구분된다. 금강 유역에서는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동기 유적은 부여 송국리 유적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충남의 역사는 백제문화를 원류로 하고 있다. 일찍이 김부식은 부여의 왕궁터를 돌아보고 검이불루 화이불사(儉而不陋 華而不侈) 즉,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는 말로 백제문화를 총평하였다. 부여에서 1993년 발견된 금동향로에서 알 수 있듯이 백제의 정밀한 기술은 가히 당대 최첨단이었음을 보여준다. 그 수준이 가히 화(華)로 치장되었으되, 분에 넘치지 않았으니(不侈) 이 고장의 절제(儉)와 자연미가 느껴진다.

흔히 백제사, 백제문화는 망국의 한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지구상에 출현했던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 로마제국과 몽골제국이 그랬고, 잉카제국과 고대 이집트가 그랬다. 이와 같이 무수히 많은 국가 가운데 하나처럼 백제도 망한 것에 불과하다. 고구려도 망하고 신라도 망하고 고려도 망하고 조선도 망했는데, 우리는 유독 백제가 망한 것에 대해 강한 미련과 아쉬움을 갖는다. 그 이유는 찬란했던 백제문화가 망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망했기 때문일 것이다. 부여에서 중흥하던 백제는 전쟁다운 전쟁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나당연합군의 기습공격에 의해 갑자기 망하고 있다. 따라서 백제의 멸망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

21) 이 부분은 주로 임선빈, 2008, “충남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이러한 망국의 한은 백제가 패망한 이후부터 불려지기 시작한 「산유화가」에 실려 있다. 노랫말은 백제멸망 이후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지만, 가락은 이 지방에서 오래전부터 불려오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옛 가락에 백제멸망의 한을 실어 노랫말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충남 부여지방은 백제의 옛 도읍으로서 백마강을 끼고 주변에 평야가 발달해 있어서 벼농사가 성행하였다. 「산유화가」 가락은 이러한 상황에서 부여를 중심으로 형성된 농요의 한 유형이다. 여기에 백제멸망의 한을 담아 노랫말을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근대에 들어서서, 충남의 문화적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시조창(時調唱)이다. 시조창은 대체로 조선 중기 이후 각 지방의 독특한 억양을 따라 발달하게 되었는데, 한양과 경기도 일대에서 불려진 경제(京制), 전라도 일대에서 불려진 완제(完制), 경상도 일대에서 불려진 영제(嶺制)와 함께 충남의 내포지방을 중심으로 불려진 내포제(內浦制)가 그것이다. 홍성과 서천 일대에서 형성되어 20세기 초 청양과 부여로 전파된 내포제 시조창은 사설을 중심으로 음운이 근중한 것이 특징이다. 즉, 사설의 각 절마다 마지막 운을 눌러 받음함으로써 선비의 근중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전라도의 완제 시조창은 목이 감기고, 경상도의 영제는 밋밋하며, 경제는 질러대는 운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전통예술에서 충남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분야는 시조창이다.²²⁾ 시조(時調)는 ‘신조(新調)’, 또는 ‘시절가(時節歌)’로 불렸다. 가락이 소박하고 평이(平易)하며 느린 듯한 장단이지만 소리의 굴곡과 꾸미는 시김새가 부드럽다. 게다가 격조 있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 자연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노랫말과 함께 부르는 가락이 어울리는 노래이기도 하다. 3음의 음계에 초·중·종장의 3장에 각 장마다 5박 8박의 장단 형식으로 글자수 3~4자를 슬기롭게 짜 맞추는 노래 숨씨와 글 채주를 함께 만들어 내는 대화의 노래이다.

창법의 종류로는 평으로 부르는 ‘평시조’, 앞머리 첫 부분을 높은 음으로 부른다 하여 ‘지름시조’, 각 음을 길게 부르는 것보다는 한 음에 노랫말이 자주자주 나와 사설을 많이 부른다 하여 ‘사설시조(辭說時調)’, 그 외에도 ‘사설지름시조’·‘잔각시조’ 등이 있으나 모두 형식이 조금씩 다를 뿐이다. 언어가 각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듯 말을 사용하는 가락이 조금씩 다르게 되기 마련이다. 시조창도 각 지방 사투리가 있듯 강·약, 억양, 표현상의 토착화로 선율 변화와 그에 따른 음악적 특징이 있게 마련이다. 시조는 지방의 언어특색을 인정하며 부르는 성악곡으로 발전하여 경기지방의 시조를 경제(京制), 충청도지역의 시조를 내포제(內浦制), 호남지역의 시조를 완제(完制), 경상도지역의 시조를 영제(嶺制)라 하며, 각 지방의 언어의 특징에 따라 음악의 창법이 조금씩 다르다.

22) 이 부분은 주로 「충청남도지 제19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에 보면, ‘내포(內浦)’는 서해로 연결된 물길로 배가 드나드는 지역의 ‘내륙의 포구’를 뜻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내포지역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충청도는 내포(內浦)를 제일 좋은 곳으로 삼는다. 공주에서 서북쪽으로 이 백리 지점에 가야산이 있고 서쪽은 바다요 북쪽은 경기도의 해읍(海邑)과 한 큰 만(灣)을 사이에 두고 있는 데 곧 서해가 쑥 들어온 곳이다. 동쪽은 대 평야를 이루고 평야 한편에 또한 큰 포구(浦口)가 있는데 유궁진(由宮津, 지금의 아산만 남쪽포구)이라 한다. …… 북쪽에는 결성(興城) 해미가 있고 서쪽에는 큰 만을 두고 안면도가 있다. 세 읍은 가야산 서쪽에 있고 북쪽은 태안 서산이 있어 강화도와 하나의 작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서투 마주 본다. 서산 동쪽은 오천 당진이고 큰 만을 사이에 두고 아산을 마주한다. 가야산 북쪽의 홍주 덕산은 유궁진의 서쪽에 자리잡고 포동(浦東)의 예산 신창과 함께 뱃길로 한양에 왕래하면 대단히 빠르다. 홍주 동남은 대흥·청양인데 대흥은 곧 백제 때의 임존성이다(이중환 저, 노도양 역, 1987, 『택리지(擇里志)』, 신명문화사, 126~130쪽).

내포지역은 가야산을 중심으로 결성·해미·안면도·태안·서산·오천·당진·홍주·덕산·대흥·청양의 지역을 기록한 곳을 볼 수 있으나, 서해의 내륙포구는 금강을 끼고 부여와 공주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택리지에 기록한 바와 같이 내포지역은 포구와 평야가 있어서 물자가 부족하지 않고 서해바다가 인접하여 소금 등의 생산물이 나오는 까닭으로 생활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지역이 외저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지 않고 물자가 넉넉하여 대(代)를 이어 사는 사대부가 많았다. 이러한 내포의 경제적·지리적 조건과 면모는 시조창을 하는 풍류가객들에게 좋은 여건이 되었을 것이다.

충청남도에는 각 지역에 ‘시우회’가 있어 가객의 계보를 알 수 있는 이름이 더러 전해지고 있다. 원래 청양군 미당면의 윤종선은 부여의 소동규로 이어지는 내포제 시조 계보로 알려져 있다. 미당과 부여는 백마강을 사이에 두고 내포와 충남 내륙을 이어주는 길목에 해당한다.

내포제 시조의 음악적 특징은 장식하는 시김새, 강약 조절, 모음의 처리가 2장의 첫 부분인 ‘소치는’(경제에서는 소오 치이는)과 종장 첫 부분인 ‘재넘어’(경제에서는 자이 넘어) 등 글자 붙임이나 모음을 발음할 때 분리하지 않고, 높은 음을 낼 때 가성을 사용하질 않아 가곡창법에 가까운 점, 경제(京制)의 고음 황(潢)을 임(林)으로 내려서 부르며 요성(搖聲)이나 전성(轉聲), 퇴성(退聲) 등에서 지방색의 가락표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내포제는 충청남도의 부여·공주·천안·홍성·조치원·예산·청양·서천·보령 등지에서 활발하게 불려지고 있다. 내포제의 특징은 다른 제에 비하여 창(唱)의 고저(高低)와 완급이 자연 합리적인데 이것이 마치 천지의 이치와 같다는 것이다. 내포제를 전승하고 체계화한 명인은 청양의 윤종선으로 그는 덕망과 재질을 겸비하고 평생을 후배양성에 진

력하였고 소동규를 수제자로 두었다. 충남에서 전승되는 시조는 경제(京制)와도 다른 지역 향제와도 달라서 내포제(內浦制)시조 명창이 많았겠지만 가객의 이름만 더러 전해지고 있다. 내포제 시조의 명인으로 청양의 윤종선·강진호, 예산의 윤도영, 서산의 이문교 등 극소수만이 기록에 전하고 있다. 근래에는 윤종선의 수제자인 부여의 소동규가 구전으로만 전승되어 오던 내포제 시조창을 악보로 집대성하고 이를 부활시켰다. 소동규는 개인재산과 일부 찬조를 받아 부여에 우리나라 최초로 시우회관을 건립하는 등 내포제 시조보급을 위해 일생을 바쳤는데, 1980년대 후반부터는 매년 전국의 제자들을 부여 시우회관으로 불러 사재로 내포제 시조강습회(일종의 재교육)를 열어오던 중 1995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타계하였다. 내포제 계보는 소동규의 제자인 김원실로 이어졌고, 김원실이 작고하자 다시 소동규의 제자인 김연소로 이어졌다.

〈표 3-19〉 충남 내포제 시조창의 전승계보

성 명	내 용
윤 종 선(尹從善)	19세기 말 내포제 시조 명인으로 인정받음
소 동 규(蘇東奎) (초대 인간문화재)	윤종선의 제자로 내포제 시조악보를 집대성하고 최초로 내포제시조 기능보유자(인간문화재 제17호)가 됨.
김 원 실(金元實) (제2대 인간문화재)	소동규의 제자로 내포제 시조 충남 기능보유자(인간문화재)를 승계함.
김 연 소(金演韶) (제3대 인간문화재)	소동규의 제자로 김원실로부터 충남 기능보유자(인간문화재)를 승계함.

지금은 충청남도에도 석암제 시조가 널리 알려져 내포제는 몇 곳만을 제외하고는 위축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방 무형문화재(제17호 내포제 예능보유자)로 소동규를 지정하여 김원실을 후계자로 두고 내포제 시조의 보급과 연구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5) 충남의 언어(충청도 사투리)²³⁾

충청도는 한반도 중앙에 위치하고 억양이 강한 경상도와 전라도와 접하고 있어서 다소 고유의 특성을 찾기는 어려우나 타 지역에 비해 어휘자체가 은유적이며 정감이

23) 이 부분은 최종진, (연도미상), “충청도 사투리에 대한 소고”에서 발췌한 것임.

있고 느긋해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최종진, ?). 특히 충청도는 한반도 중앙에 위치하여 한반도 북방과 남방을 연결하는 길목에 있어서 예부터 역양이 혼합된 특성을 보여주었다.

삼국시대엔 이곳이 전략적 요충으로 빈번한 전쟁에 휩싸이곤 하였다. 그 후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개성, 한양 사람들과 교류가 빈번했던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방언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지금도 그 지역 고유의 방언이 많이 남아있는 곳은 대부분 산간벽지로 외부사람들과의 왕래와 접촉이 없었던 곳으로 자신들의 말을 간직하며 살아온 지방이라 할 수 있다. 방언, 즉 사투리는 산맥과 산천을 경계로 교통, 교류가 외부와 차단된 지역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하겠다.²⁴⁾

충청도 사투리는 느리다는 평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충청도 사투리의 함축적 의미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즉, 충청도 사투리는 군더더기 없는 실체어로 느린 행동을 보전해준다. 더하지도, 그렇다고 궁색하지도 않은 선비의 절제된 마음가짐이 충청도 사투리에 녹아 있다.

5. 충남인의 시간활용방식²⁵⁾

조선조 숙종 때 사람 이중환(李重煥)은 택리지(擇里志)의 인심조(人心條)에서 충청도 인심을 『권세와 이익에 쏠리는 경향이 짙다(專趨勢利·전추세리)』고 했다. 또 『산과 강이 평탄하고 아름다우며 서울의 남쪽 가까이 있어서 사대부(士大夫)가 모여 사는 곳이 되었다』는 지리적 여건과 함께 『서울의 세가(世家)들이 이곳에다 전답과 집을 두는 등 생활의 근거지로 삼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 풍습이 서울과 가까워서 별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살 곳을 택하기에 가장 적당하다』고 인문적 여건을 덧붙이고 있다.

헌종 때 실학자 이규경(李圭景)은 「五洲衍文長箋散稿(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충청도 사람의 특징을 『湖西(호서·충청)는 이익과 권세를 노린다(勢利獐虐)』고 평했다. 이중환(李重煥)과 비슷한 견해다. 이 같은 평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문제가 없지 않으나, 우리 조상들이 누천년을 두고 겪어온 경험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무시할 수 없고,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은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누가 어떠한 상황에서 그런 표현을 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24) 그 실례로 일본의 경우 작은 현이라도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으면 전혀 틀린 사투리를 구사해 같은 언어군을 형성하여도 서로 알아듣지 못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한다(최종진, ?).

25) 이 부분은 조남준, 2001, “충청인의 기질론(월간조선 2001년 12월호)”에서 발췌한 것이다.

충청인을 「전주세리」나 「세리장학」이라 한 것은 이 지역이 조선조 후기 사회를 전횡(專橫)하다시피 할 정도로 많은 벼슬아치를 배출한 데에 대한 부정적인 평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정된 벼슬을 놓고 경쟁하고 이 과정에서 잠시 머물다 벼슬길에 오르는 모습은 벼슬길이 순탄치 못했던 이중환(李重煥)에게 「전주세리(專趨勢利)」나 「세리장학(勢利獐獮)」으로 비쳐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충남을 드나들던 벼슬아치들은 충남에 오랫동안 머물러 산 사람이라기보다는 잠시 거처하며 기회를 엿보던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전주세리(專趨勢利)」나 「세리장학(勢利獐獮)」이라는 표현은 진정한 충남 사람의 기질은 아니다. 오히려 충남인은 의리에 어긋나는 경우 과감히 벼슬을 떨치고 초야에 드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한편 충청인의 특징은 「청풍명월(淸風明月)」이라는 성어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청풍명월이 상징하는 이미지는 「맑음」, 「고요함」, 「여유로움」과 「한가로움」이다. 충청도 사람들은 언행이 젊잖다. 공손하다. 급하지 않다. 서두르지 않는다. 날카로운 면이 적다. 모나지 않다. 두루뭉술하게 아무하고나 잘 어울린다. 무덤덤하고 싱겁다.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래서 온건 보수주의적 성향을 띠게 된다. 충청인의 기질은 물리적 중간이 아니라 가치중립적 성향이 짙다.

혹자는 이 지역이 처했던 역사적 상황에서 중립, 무색 성향의 논거를 대기도 한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정립시기에는 이 지역이 삼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친 곳이었다. 예컨대 충북 청주 상당산성(上黨山城)의 북쪽은 고구려였고 서쪽은 백제, 동쪽은 신라였다. 그리고 충남 북부를 포함한 한강 일대의 경우, 백제 초기에는 백제 땅이었고, 고구려 전성기에는 고구려 땅, 신라 전성기에는 신라 땅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누구의 편임을 쉽게 드러냈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졌든, 겉으로는 어느 쪽에도 고개를 숙이고 순응하는 척이라도 해야 생존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순응 잘 하는 기질 때문에 조선조 이후 최근까지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면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보는 곳이 충청도였다. 이러한 시간대응 방식은 흔히 ‘느림’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느림은 순응의 다른 표현이다. 빠름은 선수치는 것이고, 주도권 쟁탈에 앞장서기 위한 시간활용방식이며 흔히 줄속으로 방향 감각을 잃기 쉽다. 즉, ‘느림’은 여유의 다른 표현이다. 그러한 여유는 상황을 온전한 파악하기 전까지는 기존 맥락을 흐트리지 않는다.

6. 충남의 시간함수 종합

충남의 시간함수는 이 지역의 역사, 인물, 유물과 유적, 세시풍속과 신앙, 음식, 예

술, 언어 등으로 이루어진 문화를 통해 내부의 동일성과 항상성, 그리고 외부와의 차별성을 포함하고 있다. 충남의 역사는 유구하되 일단 이롭다고 판단한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방성이 있고, 충남의 인물은 자신에겐 엄격했지만 남을 배려하는데 소홀함이 없었으며, 큰 뜻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충의정신을 타고 났다.

충남의 유물과 유적은 검이불루 화이불사(儉而不陋 華而不侈)로 표현된다. 즉,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아니하다. 군더더기 없는 절제미가 충남의 유적에서 느껴진다. 이러한 느낌은 언어 즉, 충청도 사투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충청도 사투리는 느리다는 평을 많이 받아 왔지만 충청도 사투리의 함축적 의미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즉, 충청도 사투리는 군더더기 없는 실체어로 느린 행동을 보전해준다. 더하지도, 그렇다고 공색하지도 않은 선비의 절제된 마음가짐이 충청도 사투리에 녹아 있다.

충남의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여유’이고, 충남의 격식은 남에게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기 위한 규율이며, 충남의 운율은 거드름이 아니라 진정성을 전하기 위한 확신을 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시조창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홍성과 서천 일대에서 형성되어 20세기 초 청양과 부여로 전파된 내포제(內浦制) 시조창은 사설을 중심으로 음운이 근중한 것이 특징이다. 즉, 사설의 각 절마다 마지막 운을 눌러 발음함으로써 선비의 근중함을 표현하고 확신을 표현한다. 이에 비해 전라도의 완제(完制) 시조창은 목이 감기고, 경상도의 영제(嶺制)는 밋밋하며, 경제(京制)는 질러대는 운으로 알려져 있다.

제4장 충남 정체성의 공간함수

1. 충남의 위치와 면적²⁶⁾

위치는 그 지역의 기후·산업·생활 방식 등을 결정짓는 기본 요인이 된다. 또 인접지역과의 위치 여하에 따라 그 지역이 갖는 의미나 기능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한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 행태,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동일한 위치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동질성이 기대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위치는 보통 수리적 위치와 관계적 위치로 나눈다. 수리적 위치란 경·위도상의 위치를 말하는 것으로, 일명 절대적 위치라고도 한다. 관계적 위치란 한 지역을 타 지역과 관련지어 말하는 위치로, 일명 상대적 위치라고도 한다.

〈표 4-1〉 충청남도의 수리적 위치

도청소재지	단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지명	극점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번지	동단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북위 36°01'47" 동경 127°38'31"	동서간 187.7km 남북간 120.8km
	서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북위 36°36'37" 동경 125°32'21"	
	남단	금산군 남일면 신동리	북위 35°58'30" 동경 127°29'15"	
	북단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	북위 37°03'44" 동경 126°25'46"	

26) 이 부분은 주로 「충청남도지 제1권」과 임선빈(2008) “충남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근거하여 정리하였다.

충청남도의 수리적 위치는 〈표 4-1〉과 같아서 동서방향으로 187.7km, 남부방향으로 120.8km에 걸쳐있다. 충청남도의 지리적 위치는 남단이 북위 35° 58' 30" (금산군 남일면 신동리), 북단이 북위 37° 03' 44"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 동단이 동경 127° 38' 31"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서단이 동경 125° 32' 21"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에 걸쳐 있다.

이러한 수리적 위치로 인해 충청남도는 한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고, 사계절이 뚜렷하며 기온이 온화한 중위도 온대 계절풍지대에 속한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우리나라의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중간적인 기후특색을 나타낸다. 충남의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충청남도의 연평균 기온은 12.6℃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서귀포의 15.8℃, 가장 추운 중강진의 3.9℃에 비교하면 중간정도의 기온에 해당한다. 충청남도의 연평균 강수량은 1,200mm 정도로 기온분포와 강수량에 있어서 한반도의 중간적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또 우리나라를 북부지방·중부지방·남부지방과 같이 크게 분류 할 때 충청남도는 중부지방에 속하지만, 작은 공간단위 차원에서는 차령산맥을 경계로 하여 그 북부는 기호지방에, 그 남부는 호남지방에 가까운 곳이다. 따라서 교통이 불편하였던 과거에는 차령산맥은 충남의 북서부와 동남부 사이의 지형적 장애로 작용하여 왔고, 문화적으로는 양 지역 간에 가옥구조 등 생활양식의 차이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리하여 차령산맥은 예부터 기호지방과 호남지방의 문화권을 나누는 자연적 경계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충청남도는 자연적으로나 인문적으로 우리나라의 중간적 특성, 즉, 남북의 점이적(漸移的) 특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충청남도는 북으로는 대체로 아산만을 경계로 경기도의 평택시·안성군과 접하고, 동으로는 충청북도의 진천군·청원군,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의 보은군·영동군과 접하고 있으며, 남으로는 주로 금강을 경계로 전라북도의 군산시·익산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과 접경하고 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바다에 면하여 황해와 접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충청남도는 서해와 아산만에 면한 북서부 지역은 대체로 수도권과의 관계가 밀접한 반면에, 금강 유역에 속한 남동부 지역은 호남지방과의 관계가 깊다.

충청남도는 삼한시대에는 마한(馬韓)의 땅이었고, 삼국시대에는 백제(百濟)의 땅으로서 웅진(公倌)과 사비(부여)를 중심으로 찬란한 문화를 가꾸었다. 즉, 충남은 백제문화의 중심지였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당나라에 연결하는 교두보적 역할을 하였고, 후삼국시대에는 왕건과 견훤의 각축장이 되었던 곳이다. 고려 시대에는 하남도(河南道)의 영역이었고, 조선시대 이후로는 수도 한양에 가까워 서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조선시대 이중환(李重煥)은 『택리지(擇里志)』에서 충청도의 지리적 위치(관계적 위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남쪽의 반은 차령(車嶺) 남쪽에 위치하여 전라도와 가깝고, 반은 차령 북편에 있어 경기도와 이웃이다. 물산(物産)은 영남·호남에 미치지 못하나 산천이 평평하고 예쁘며, 서울 남쪽에 가까운 위치여서 사대부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 대를 서울에 사는 집으로서 이 도에다 전답과 주택을 마련하여 생활의 근본이 되는 곳으로 만들지 않는 집이 없다. 또 서울과 가까워서 풍속에 심한 차이가 없으므로 터를 고르면 가장 살 만하다. 충남지역은 당시 상황에서 무난한 삶의 터였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충청(忠淸)’이라는 명칭은 고려시대에 처음 등장한 것이다.²⁷⁾ 우리나라의 도명은 고려시대부터 계수관(界首官)의 머리글자를 조합하여 만들기 시작했는데, 충청지역의 도명은 고려후기에 양광충청(주)도(楊廣忠淸州道), 양광(주)도(楊廣州道), 충청(주)도(忠淸州道) 등으로 사용되다가 충숙왕 원년(1314)부터는 양광도라는 도명으로 굳어져 조선 건국초까지 이어졌다. 조선시대의 충청도(忠淸道)는 조선초기인 1395년(태조 4)에 종전의 양광도(楊廣道)가 바뀐 것이다. 양광도가 충청도로 개칭된 이유는 태조 4년에 도읍을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기고, 양주(楊州)·광주(廣州) 관할 군(郡)·현(縣)을 양광도에서 갈라 경기(京畿)에 옮겨 붙이게 되자, 더 이상 양광도라는 도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충청도의 권역은 이때부터 진정한 의미를 지니기 시작한다. 조선시대 충청도의 도명은 충주·청주·공주·홍주 등 계수관 고을의 승강에 따른 일시적인 개호가 8도 가운데 가장 자주 있었다. 충청도라는 명칭 외에도 조선전기에는 충공도(忠公道)·청공도(淸公道)·청홍도(淸洪道)라는 도명이 사용되었으며, 조선후기에는 충홍도(忠洪道)·공홍도(公洪道)·공청도(公淸道)·홍청도(洪淸道)·충공도(忠公道)·공충도(公忠道)·홍충도(洪忠道) 등의 도명이 사용되었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영남, 호남처럼 충청도 지역을 호서(湖西)라고도 불렀다. 흔히 호서는 제천의 의림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서쪽이라는 개념으로 알려져 왔다. 의림지는 우리나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저수지로 손꼽힌다. 제방의 축조 시기는 서력 기원전후까지 소급되며, 삼국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보수하여 사용했던 큰 저수지이다. 이같은 의림지의 위치로 보아 호서의 ‘호(湖)’는 의림지를 지칭한다는 설이 일반적이다. 한편, 호서라는 명칭이 금강 이남을 지칭하는 호남의 대칭으로 시작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즉 충청도의 별칭인 호서라는 명칭은 전라도 호남이란 별칭이 널리 사용된 이후 생긴 명칭이고, 호남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다분히 금강 이남이라는 데서 연유하기 때문에, 충청도도 의림지의 서쪽이라는 견해보다는 호남과 대칭적으로 짝지어진 데서 유래하였다고 보고 있다.

조선시대에 사용되기 시작한 호서라는 표현은 조선후기에 이르면 보편화되고 있다. 이는 이때에 이르러 명실상부하게 충청도 전체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의미를 지니기

27) 이 부분은 임선빈(2008) “충남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근거하고 있다.

시작했다는 반증일 것이다. 충청도 내부의 전통 문화권은 크게 서해안의 내포지역, 금강 유역, 남한강 유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남한강 유역인 충주지역과 금강 유역인 청주지역은 한남금북정맥으로 격리되고, 금강유역과 내포지역은 금북정맥으로 나뉘며, 금남정맥은 금강이 계룡산을 휘감아 흐르면서 동서 지역이 모두 금강 유역권에 포함된다.

조선시대의 충청도에는 관찰사가 한 사람만 파견되어 통치되었으나, 행정상 편의에 의하여 충주·청주 관할권은 충청좌도, 공주·홍주 관할권은 충청우도로 나누어 부르기도 하였다. 그런데 1896년에 종전의 8도를 13도로 나눌 때 충청좌도를 충청북도로, 충청우도를 충청남도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후에는 충청남·북도가 드디어 완전히 구분되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충청남·북도가 등장한 것은 100여년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 이후 충청남도는 1989년에 대전과 분리되었으며, 현재의 충남지역은 16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청남도는 남한의 중앙부에 속하므로 예로부터 영남과 호남으로 통하는 삼남의 관문으로 서울, 부산, 목포로 통하는 1번 국도, 경부·호남선의 철도, 경부·호남고속도로, 경부·호남고속철도와 서해안 고속도로 등이 통과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통의 요지이다. 그러므로 수도 서울까지는 1시간대, 부산이나 목포까지는 3시간대의 위치에 있다.

충청남도의 총면적은 2006년 현재 8,598㎢로서 전국 총면적(99,617 ㎢)의 8.6%를 차지하며, 경상북도,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기도에 이어 6번째이다. 시군별 면적을 보면 공주시가 940.7 ㎢로 가장 넓고, 계룡시가 60.7 ㎢로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

예로부터 충청도를 가리켜 ‘양반의 고장’, ‘사대부의 연수(淵藪)’라 지칭했던 것도 한양에 가까운 지리적 배경에서 나온 말이라 하겠다. 반면에 예나 지금이나 수도권 영향이 너무 커서 전답이나 주택이 서울의 세력가들에게 겸병당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만만치 않았다. 조선시대의 충청도(忠靑道)는 건양 1년(1896)에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로 나누어졌다.

충청도는 남한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교통로가 동·서로의 연결보다는 남·북으로의 연결이 중요했다. 이런 면에서도 충청도는 수도 서울에서 남부지방에 이르는 교통의 요지이다. 조선시대에도 한양에서 전라도(호남)나 경상도(영남)에 가려면 충청도에서 길이 분기했다. ‘천안 삼거리’라는 말은 이러한 배경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전이 과거의 천안 삼거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2006년 현재 충청남도의 행정구역은 7시 9군, 합해서 16개 시·군으로 되어 있다. 충남은 207개 읍·면·동(읍24, 면146, 동37), 873개 통과 4,426개 리, 23,291개 반으로 편제되어 있다. 2002년까지 충청남도의 행정구역은 6시 9군으로 15개 시·군이 었으나 2003년 9월에 계룡시가 탄생함으로써 현재는 16개 시·군으로 편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 자세한 명칭과 내용은 <표 4-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충청남도의 총면적은 8,598.2km²로, 이는 전국토 면적(99,600km²)의 8.63%(전국 6위)에 해당한다. 충남 총 면적 중 경지는 33%, 임야가 53%, 기타가 14%를 차지하고 있다. 시·군별 면적을 보면, 공주시가 941.00km²로 가장 넓고, 그 다음이 서산시 739.00km², 천안시 636.00km²의 순이고, 계룡시가 가장 작아 61.00km²이다. 이들 시·군별 행정구역은 <표 4-2>와 같다.

<표 4-2> 충청남도 행정구역

연군 시군별	면적 (km ²)	구성비 (100%)	시·군			읍·면·동		
			시	군	읍	읍	면	면
1997	8,590.21	100.00	15	6	9	211	22	147
2003	8,598.00	100.00	16	7	9	207	24	146
천안시	636.00	7.4	1	1	-	26	4	8
공주시	941.00	10.9	1	1	-	17	1	10
보령시	568.00	6.6	1	1	-	16	1	10
아산시	542.00	6.3	1	1	-	17	1	10
서산시	739.00	8.6	1	1	-	15	1	9
논산시	555.00	6.5	1	1	-	15	2	11
계룡시	61.00	0.7	1	1	-	3	-	2
금산군	576.00	6.7	1	-	1	10	1	9
연기군	361.00	4.2	1	-	1	8	1	7
부여군	625.00	7.3	1	-	1	16	1	15
서천군	358.00	4.2	1	-	1	13	2	11
청양군	480.00	5.6	1	-	1	10	1	9
홍성군	444.00	5.2	1	-	1	11	2	9
예산군	543.00	6.3	1	-	1	12	2	10
태안군	505.00	5.9	1	-	1	8	2	6
당진군	664.00	7.7	1	-	1	12	2	10

2. 충남의 지형적 특성²⁸⁾

충청남도의 지형은 저평하다. 해발 고도 1,000m 이상을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으며, 도 전체의 평균 고도가 100m로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형을 이루고 있다. 대체로 충청남도의 산지는 도의 중앙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차령산맥, 그 북서부의 내포지방을 남북으로 달리는 가야산맥, 동남부의 계룡산지, 그리고 노령산맥에 속한 충남 동남부의 금산고원으로 나누어진다. 차령산지에서는 성거산·흑성산·광덕산·무성산·칠갑산·성주산·옥마산·월명산 등이 주봉들이다. 충남 서북부지역에서 가장 높은 오서산(790.7m)은 차령산맥의 주능선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

계룡산지는 노령산지에서 떨어져 나온 잔구성 산지라고 할 수 있는데, 주봉인상봉(천황봉, 845.1m)을 비롯하여 쌀개봉·관음봉·연천봉·삼불봉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계룡산의 산세는 전체적으로 볼 때 남쪽으로 열려 있는 U자형을 이루고 있다. 계룡산은 화강암의 저지대 위로 높이 솟아 일찍부터 명산으로 꼽혀 왔다.²⁹⁾ 가야산지에서는 가야산(677.6m)을 주봉으로 하여 석문봉·옥양봉·덕숭산·삼준산·일월산 등이 주봉들인데, 이들 산지로 연속되는 가야산지는 남북으로 달리면서 충남의 북서부지방을 내포지역과 태안반도지역으로 분리하는 자연적 경계선 역할을 한다.

금산고원은 진안고원과 함께 노령산지에 속하여, 금산군의 경계지대에는 500~800m급의 높은 산들이 연봉지어 둘러싸고 있다. 충남에서 가장 높은 서대산(903.7m)과 도립공원인 대둔산(877.7m)은 노령산지의 주봉들이다. 금산읍은 이러한 산지들로 둘러싸인 분지를 이루며, 금산읍 주변에서는 200m정도의 구릉지가 많다. 금강은 금산군의 남동 모퉁이를 심하게 감입곡류하면서 흐른다.

충남의 하천수계 역시 차령산맥을 경계로 하여 그 동남부의 금강수계와 그 북서부의 삽교천수계로 나누어지고 있다. 금강(錦江)은 전북 장수에서 발원하여 처음에는 북서방향으로 흐르다가 대청댐을 지나면서 방향을 남서로 튼다. 신탄진 부근에서 갑천을 합류하고 연기군 남면 부근에서 미호천을 합류한 다음, 공주 부근에서 정안천과 유구천, 부여 부근에서 은산천과 금천, 강경 부근에서 논산천을 합류하여 서해로 들어간다. 금강의 길이는 401.4km, 유역면적은 9,885.77km²이지만,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충남지역에 자리하여, 크고 작은 평야를 형성하여 충남의 곡창지대를 이루고 각종 용수를 비롯한 충남의 젖줄 역할을 한다. 부여 금천 유역의 구룡평야, 논산·강경의 논산평야, 서천일대의 금강하류평야 등은 금강유역의 주요 평야들이다. 삽교천(插橋川)은

28) 이 부분은 주로 「충청남도지 제1권」에 근거하여 필자가 정리하였다.

29) 옛사람들은 계룡산의 산과 물이 태극모양을 이루어 감돌고 있다고 보국도를 정하려 했던 일, 그 후 정감록 신봉자들이나 유사종교들의 집합지로 유명했던 일 등은 계룡산지의 지형적 특성 때문이었다(충청남도지 제1권).

성주산과 오서산 부근에서 발원하여 북으로 흘러 예산군 신암면 부근에서 무한천, 아산시 인주면 부근에서 곡교천을 합류하여 아산만으로 유입하는데, 삽교천·무한천·곡교천이 합류하는 지역은 예당평야를 이루어 역시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다.

충남의 해안선은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으로 총길이가 1,217km나 되는데, 수산업과 간척지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천수만은 천해의 어장 조건을 이루어 각종 어류와 조개류의 산란장소와 서식지로 적합하다. 아산만에서 태안반도를 거쳐 보령과 서천에 이르는 해안지역에는 크고 작은 간석지와 해변·사구의 발달이 많다. 간석지는 농지·염전·양식장 등으로 이용되고, 해변은 해수욕장으로 이용된다. 간석지를 개발하는 간척사업은 오랜 옛날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특히 1970년대 이후부터 대형화하였다. 아산만방조제, 삽교방조제, 대호방조제, 서산A·B지구방조제 등은 해안선의 출입을 단순하게 만든 대형방조제들이다. 한편 먼 바다에 노출되어 큰 파랑이 접근하는 해안에는 사빈과 사구가 널리 발달되어 있다.

충남의 해안선은 출입이 매우 심하다. 따라서 해안사구의 발달로 해수욕장이 개발되었다. 만리포·연포·몽산포·대천·무창포 등은 주요 해수욕장들이다. 충남의 해안지대에서는 아산만 개발이나 대산공업단지와 같이 대규모 임해공업단지도 들어서고 있는데, 이들 임해공업단지들은 동남아 및 북방교역의 교두보내지 서해안시대의 발전기로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대체로 충남의 지형은 거칠지 않고 온후하며, 군데군데 텃밭과 너른 뜨락과 완만한 경사지 밭을 펼쳐놓은 듯하다. 크게 넉넉지는 않지만 크게 부족하지도 않을 만큼의 자연과 지리를 펼쳐놓은 곳이 충남이다. 구태여 남을 이용하여 자신을 내세울 필요가 없는 자연을 가지고 있고, 남을 시샘하여 자신을 돋우어야 할 구차함도 타고나지 않은 곳이 충남이다. 그래서 충남엔 그대로 머물고도 난처하지 않을 아늑함이 스며있다.

3. 충남의 인문환경³⁰⁾

특정 지역의 인문환경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분포나 구조, 이동성향으로 표현된다. 사람들은 살면서 활동하고, 활동하면서 집단을 이룬다. 사람의 집단은 개별 특성을 함하여 표출되지만 일단 표출된 집단성향은 개별 구성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조와 기능은 서로 맞물려 총체적인 지역의 인문환경을 형성하게 된다.

1) 충남의 인구분포

30) 이 부분은 주로 「충청남도지 제2권」과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근거하여 필자가 정리하였다.

인구지표는 어떤 지역의 인문환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유용한 자료로 사용된다. 인구지표는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인자이기 때문이다. 인구의 증가나 감소는 일정 지역에서의 사회, 경제, 정치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다. 이들 인구지표는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다음 과정으로 이어지는 인과율(causality)을 포함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에서 인구지표를 가장 기본적인 수요로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구지표는 지역 역량의 공급체계와 연계하여 발전 잠재력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즉, 인구지표는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독립변수이기도 하고, 인문환경으로부터 비롯된 종속변수이기도 하다.

한 지역의 인구규모 변화는 자연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인구의 자연적 변화는 출생률, 사망률의 종속변수이고, 사회적 변화는 삶의 질과 관련한 요소들, 즉, 자녀교육여건, 일자리, 생활환경, 사회기반시설 등의 종속변수에 속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실정은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의 자연변화가 거의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지역의 인문환경은 인구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인구현황 분석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복잡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흔히 미래 인구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자연증가와 사회적 증감의 독립변수들을 도출하고 이의 개별 추세를 종합하는 인구추계조성법이 활용되고 있다.

충청남도는 7개 시, 9개 군, 총 1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9월 현재 충청남도의 주민등록상 총 인구수는 2,096,670명이다. 세대수는 839,270세대로서 세대 당 인구는 평균 2.50명이다. 충청남도에 소재한 7개 시의 인구총계는 1,401,274명으로 충남 전체인구의 66.8%를 차지하고 있다. 세대수는 7개 시 총계가 549,323 세대로 충남 전체 세대수의 65.45%에 해당하여 농촌지역에서 오히려 핵가족화가 더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독거노인과 노인부부가 농촌에 주로 거주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충남 시(市)부의 세대 당 인구규모는 2.55명, 군(郡)부의 세대 당 인구규모는 2.40명으로 나타났다. 즉, 군(郡)부의 세대는 도시에 비해 작고, 단조롭다.

시군별로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은 천안시로 2010년 9월 말 현재 563,050명이고 다음은 아산시로 269,709명이며, 서산시가 161,943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이어 논산시 인구는 129,059명, 공주시가 126,342명, 보령시가 108,101명이고, 계룡시는 인구가 시부에서 가장 적어 43,070명이다. 군(郡)부에서는 당진군 인구가 146,158명으로 가장 많은데, 이는 수도권 규제를 피해 이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하여 나타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충남 군(郡)부 인구규모는 당진군에 이어 홍성군이 88,896명, 예산군이 87,704명, 연기군이 83,050명, 부여군이 75,508명, 태안군이 63,654명, 서천군이 60,477명, 금산군이 57,145명 그리고 청양군은 가장 적은 32,804명을 나타내고

있다. 대체로 충남의 인구분포는 대도시와 수도권으로부터 기업이 이전되어 온 서북부 지역으로 편중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 당진군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도 수도권 기업이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시군별 세대수는 역시 천안시가 217,436세대로 가장 많고, 아산시가 107,587세대, 서산시가 62,933세대, 당진군이 60,782세대로 뒤를 잇고 있다. 세대별 인구수는 지역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지역의 특성은 개인별 행위의 종합이기도 하지만, 세대를 기본 요소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세대 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은 계룡시로 세대당 3.01명이었고, 다음은 천안시로 세대 당 2.59명을 기록하고 있다. 세대 당 인구규모가 가장 적은 곳은 서천군과 태안군이다. 남녀별 인구분포는 계룡시(남자 21,216명, 여자 21,683명), 서천군(남자 29,476명, 여자 30,257명) 그리고 홍성군(남자 43,558명, 여자 43,971명)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이와 같이 시·군별 성비가 나라 전체의 성별구조와 다른 이유는 대체로 여성이 대도시를 선호하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 4-3〉 충청남도 시·군별 세대 및 인구(2010년 9월 현재)

시·군	세 대	총인구	남	여	세대 당 인구
합 계	839,270	2,096,270	1,064,168	1,032,502	2.50
천안시	217,463	563,050	286,248	276,802	2.59
공주시	49,901	126,342	63,750	62,592	2.53
보령시	44,553	108,101	54,836	53,265	2.43
아산시	107,587	269,709	138,199	131,510	2.51
서산시	62,933	161,943	82,645	79,298	2.57
논산시	52,611	129,059	64,850	64,209	2.45
계룡시	14,302	43,070	21,286	21,784	3.01
금산군	23,976	57,145	28,991	28,154	2.38
연기군	33,869	83,050	42,579	40,471	2.45
부여군	31,594	75,508	37,764	37,744	2.39
서천군	26,259	60,477	29,924	30,553	2.30
청양군	14,022	32,804	16,518	16,286	2.34
홍성군	35,837	88,896	44,340	44,556	2.48
예산군	35,879	87,704	44,159	43,545	2.44
태안군	27,729	63,654	32,008	31,646	2.30
당진군	60,782	146,158	76,071	70,087	2.40

자료: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여 저자가 작성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수도 2010년 9월 현재 40,592명으로 이 중에서 남성은 24,523명, 여성은 16,069명으로 편차가 심했다. 이는 주로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외국인 주로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천안시 11,841명, 아산시 8,712명, 당진군 3,309명 순이다.

인구밀도는 한정된 공간의 인구부양력을 나타내주기도 한다. 특히 인구밀도는 공간 수요의 대용지표이기도 하다. 2004년 충남의 인구밀도(229.4명/km²)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천안시 801.1명/km², 계룡시 515.2명/km², 아산시 378.2명/km²로 인구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논산시(246명/km²) 만이 충남의 평균치를 상회하는 지역이다, 반면에 200명/km² 이상은 홍성군(206.6명/km²), 서산시(204.1명/km²)이며 다른 지역은 200명/km²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곳은 청양군으로 74.7명/km²에 불과하다. 이상에서와 같이 충남의 인구는 북동부지역(천안·아산), 남동부(계룡·논산) 지역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충남의 북서부지역(천안·아산·당진·사산)의 인구가 충남 전체 인구의 49.9%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 이후로 서산, 당진공단건설과 천안·아산이 수도권과 연계되면서 인구의 증가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충남의 인구밀도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가 2005년 이후 수도권 규제에 따라 기업이 충남의 서북부 지역 주로 천안, 아산, 당진으로 이전하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즉, 1990년대부터 기업이전과 함께 충남의 서북부지역으로 전입 하던 인구의 사회적 증가가 2005년을 기점으로 여타 다른 지역에서의 인구 사회적 감소(전출)를 만회하여 전체적인 인구증가현상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인구밀도가 다시 상승하게 되었다.

2) 충남의 인구증감³¹⁾

우리나라의 인구조사는 한사군 때의 것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부정확하였고, 서기 원년 경 우리나라 총 인구는 약 25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비교적 정확한 것은 조선시대 정조 때의 조사로서 1789년의 전국 인구는 740만 명이고, 그 때 충청남도의 인구는 약 53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호구의 누락, 행정구역의 변경 및 불확실성, 행정력의 미흡, 조사방법의 차이 등 시대에 따른 제반 사정 등으로 오늘날과 같은 지역별 인구증감 상태를 비교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센서스 조사가 시작된 것은 1925년 일이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해외귀환 인구의 대량 유입으로

31) 이 부분은 주로 「충청남도지 제2권」에 근거하여 필자가 정리하였다.

인한 사회적 증가와 전쟁 후의 높은 자연 증가율(소위 베이비 붐 세대)을 거쳐, 1960년대 이후에는 산업화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커다란 변화를 겪어 왔다. 1962년 이후 가족계획사업 및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출산력이 빠르게 저하되었으며, 의학의 발달로 사망률 또한 계속 낮아짐으로써 인구증가율은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급변하던 인구변동은 1980년대 후반 선진국형의 안정 상태에 접근하고 있는데, 특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2000년 합계 출산율은 1.47%로 선진국보다 낮아지면서, 그동안 강력히 시행되어 온 인구증가 억제정책은 폐지되고,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1970년 이후 충남의 인구를 살펴보면 1970년에 2,324,444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서서 1980년 2,152,831명, 1990년에 2,013,926명이었으며, 이후 200만 명 선이 무너진 후, 2000년 1,390,234명, 2004년 1,972,553명 수준으로 낮아졌다가 2010년 9월 현재 다시 200만 명을 넘어서 2,096,670명을 기록하고 있다. 1960년 말부터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인구의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 등으로 충남 대부분 시·군에서 인구밀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수도권규제가 강화되었던 1990년대 이후 규제를 피해 충남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충남 서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인구의 사회적 유입이 증가하고 있었지만, 충남의 다른 지방으로부터의 사회적 진출인구가 전입인구를 초과하여 2005년까지 계속 충남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었다. 충남의 인구증가 현상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제시대에는 매년 말 인구조사가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1925년 이후에는 5년 주기로 인구센서스 조사가 행해졌으므로, 인구파악이 비교적 용이하다.

〈표 4-4〉 충청남도의 인구 증감(1925~1944년)

구분	1925	1935	1944	증감현황
합계	1,184,629	1,399,995	1,514,518	지속 증가(+329,889)
공주군	118,434	129,006	153,736	지속 증가(+35,302)
논산군	121,984	144,970	152,513	지속 증가(+30,529)
당진군	77,478	93,024	104,125	지속 증가(+26,647)
보령군	74,940	86,930	93,246	지속 증가(+18,306)
부여군	103,488	122,626	132,310	지속 증가(+28,822)
서산군	138,452	156,720	176,876	지속 증가(+38,424)
서천군	84,156	103,246	114,853	지속 증가(+30,697)
아산군	77,203	90,980	102,485	지속 증가(+25,282)
연기군	58,798	69,237	71,840	지속 증가(+13,042)
예산군	93,029	109,997	120,564	지속 증가(+27,535)
천안군	89,726	123,006	122,890	1935년부터 1944년까지 감소(+33,164)
청양군	64,888	72,699	79,582	지속 증가(+14,694)
홍성군	82,053	96,554	107,498	지속 증가(+25,445)

자료: 「충청남도지 제2권」에서 재편집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5년부터 1944년까지 이르는 20년 동안 충남의 인구는 약 33만 명이 증가하였다. 당시 천안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안군은 1925년부터 1935년까지 10년간 33,280명이 늘어났으나 1935년부터 1944년까지 오히려 116명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1925년부터 1944년까지 전체적으로는 천안군의 인구가 33,164명 늘어났다. 같은 기간 공주군의 인구는 35,302명, 논산군은 30,529명, 당진군은 26,647명, 보령군은 18,306명, 부여군은 28,822명, 서산군은 38,424명, 서천군은 30,697명, 아산군은 25,282명, 연기군은 13,042명, 예산군은 27,535명, 청양군은 14,694명, 홍성군은 25,445명 늘어났다.

다른 한편 1944년 이후 1970년까지의 인구센서스 분석결과는 <표 4-5>와 같다.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4년부터 1955년까지 11년 동안 충남의 인구는 약 42만 5천여 명이 증가하여 매년 4만 2천 명씩 증가한 셈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2.6%를 나타냈다. 이 기간 동안 충남의 연평균 증감률(2.6%)보다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논산군(5.1%), 아산군(3.0%), 연기군(2.8%), 서산군(2.7%), 천안군(2.6%)이다. 특히 괄목할 만한 군은 논산군인데, 이는 1951년 논산훈련소를 구자곡면에 설치함에 따라 인구가 급속히 전입되었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기간 중에는 1945년 8·15 광복, 1950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전후에 많은 월남피난민과 난민들의 정착, 그리고 전후 ‘베이비 붐’ 현상에 의한 인구의 급증을 보였다.

<표 4-5> 충청남도의 인구 증감(1944~1970년)

구분	1944	1955	1966	1970	비고
합계	1,514,518	1,939,397	2,346,408	2,322,428	
천안시				78,134	시승격
공주군	135,736	169,325	202,635	184,131	
금산군				122,461	전북에서 편입
논산군	152,513	237,523	259,540	242,713	
당진군	104,125	135,209	185,453	172,991	
보령군	93,246	118,166	150,338	148,533	
부여군	132,310	159,773	194,995	177,834	
서산군	176,876	228,929	273,581	263,852	
서천군	114,853	136,022	161,159	149,227	
아산군	102,485	136,817	171,858	161,209	
연기군	71,840	93,690	108,945	103,071	
예산군	120,564	148,705	176,202	161,199	
천안(원)군	122,890	158,280	204,129	120,975	천안시 인구 전출
청양군	79,582	91,623	105,211	92,484	
홍성군	107,498	125,065	152,362	143,614	

자료: 「충청남도지 제2권」에서 재편집

1953년 휴전 이후 사회적·정치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월남피난민이나 해외 귀환자 등 인구분포를 변화시킬 요인들이 거의 배제되고, 자연증감에 의한 인구변동만 있었다.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5년부터 1966년에 이르는 약 10년 동안 충남의 인구는 40만 명 정도가 증가하여 매년 4만 명씩 증가한 셈이다. 따라서 이 기간도 전기(1944~1955년)에 이어 계속적인 인구 증가현상을 나타냈다. 이 기간 중의 인구분포의 특징은 우리나라에서 공업화·도시화가 아직 크게 일어나기 전이므로 농촌지역에 인구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 기간 중에 특히 인구의 증가율이 높았던 곳은 당진군(3.4%)과 천안군(2.6%), 보령군(2.5%), 아산군(2.3%), 홍성군(2.0%) 순이었다.

<표 4-5>에서처럼 1966년부터 1970년에 이르는 4년 동안 충남의 인구는 약 14만 8천여 명이 감소해서 매년 1만 4천 명씩 감소한 셈이며, 연평균 감소율은 -1.5%를 나타냈다. 이 기간 동안 충남의 인구는 천안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감소하였는데, 충남의 연평균 증감율보다(-1.5%) 감소율이 높은 지역은 청양군(-3.0%), 공주군(-2.3%), 천원군(-2.3%), 부여군(-2.2%), 예산군(-2.1%), 서천군(-1.9%), 당진군(-1.7%), 논산군(-1.6%) 순이다. 이 시기는 농어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소위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이 전국에 걸쳐 일어났던 시기다.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어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확산되어 농촌으로부터 많은 공장 근로자가 필요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과 부산, 울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에서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서 농촌으로부터 많은 인구를 흡수하고 있었다.

<표 4-6>과 같이 1970년부터 1980년까지 10년 동안 충남의 인구는 약 17만 명이 감소해서 매년 1만 7천 명씩 감소한 셈이며, 연평균 감소율은 -0.7%를 나타냈다. 전기(1966~1970)에 비해서는 감소율이 둔화되었지만, 지역별로 감소율이 증가된 곳도 많았다. 같은 기간 충남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한 곳은 천안시·보령군 등이며, 반면에 인구의 감소가 특히 두드러진 곳은 청양군(-2.1%), 금산군(-1.5%), 부여군(-1.4%), 논산군(-1.4%), 서천군(-1.3%) 등이고, 나머지 지역들도 전기(1966~1970)에 비하여 인구의 감소율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70년대 후반부터 도시인구 집중현상이 두드러진 것과 관련되어 있다.

<표 4-6>에서처럼 1990~2000년에 이르는 10년 동안 충남의 인구는 약 17만 3천여 명이 감소해서 매년 1만 7천여 명이 감소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연평균 감소율은 -0.9%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충남의 인구는 전기(1980~1990)에 비하여 인구의 감소율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천안·아산을 제외한 지역이 감소하였는데, 충남의 연평균 증감률(-0.7%)보다 감소율이 높은 지역은 서천군이 -3.3%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금산군(-3.1%), 부여군(-2.9%), 청양군(-2.8%), 보령시(-2.5%), 예산군(-2.4%), 태안군(-2.1%)순으로 -2.0%가 넘는 인구감소를 경험하였다.

충남북서부지역은 1995년 이래 공업단지 조성으로 인구의 유입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아산과 천안지역은 수도권의 배후지역으로 개발기대가 높아지면서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충남의 인구는 1970년 이래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수도권과 남동임해지역 중심의 경제육성정책에 따른 인구유출과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농촌인구의 대도시로의 전출이 더욱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청·장년층의 인구감소 원인은 농업을 기피하고, 외부 산업근로자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전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충남에서는 생산연령층의 부족과 노년층이 증가하여 농촌에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충남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기업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표 4-6〉 충청남도의 인구 증감(1970~2000년)

구분	1970	1980	1990	2000	비고
합계	2,322,428	2,151,279	2,013,270	1,840,410	
천안시	78,134	120,441	211,269	415,818	도농복합시
공주군(시)	184,131	167,331	158,030	130,223	도농복합시
금산군	122,461	103,978	84,058	57,775	
논산군(시)	242,713	207,128	187,358	164,261	도농복합시
당진군	172,991	150,768	131,732	117,447	
보령군(시)	148,533	151,203	145,975	109,423	도농복합시
부여군	177,834	153,739	116,898	83,571	
서산군(시)	263,852	249,187	231,973	142,972	도농복합시
서천군	149,227	129,457	100,500	66,852	
아산군(시)	161,209	157,846	164,882	179,900	도농복합시
연기군	103,071	97,328	90,493	79,745	
예산군	161,199	147,650	128,694	128,694	
천원군	120,975	110,472	102,303		천안시와 통합
청양군	92,484	72,674	53,744	38,544	
홍성군	143,614	132,077	105,361	90,470	

자료: 「충청남도지 제2권」에서 재편집

3) 충남의 인구이동³²⁾

인구이동은 사람의 공간 선호도를 나타낸다. 물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나, 이러한 현상도 보편적이라기보다는 상대적

32) 이 부분은 주로 「충청남도지 제2권」에 근거하여 필자가 정리하였다.

공간 선호도를 포함하고 있다. 어느 지역의 인구증감은 인구의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의 결과이다. 그 중에서 최근에는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적 증감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그 원인은 교통발달, 산업의 변화, 전쟁 등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이후 해외교포귀환과 전쟁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대거 남하, 1962년부터 공업화로 인하여 인구가 대도시로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 주민등록법 제정 이후부터 인구이동통계가 작성되고 있으므로 그 이전의 조사통계가 없어 어느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어느 곳으로 이동하였는지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인구의 이동에는 통근이나 통학·여행·계절적 이동·노동인구의 이동 등이 있으며, 일정한 지역의 사람들이 특정 경계지역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는 이주의 개념이 일반적이다. 최근의 인구이동은 주로 경제적 이유와 자녀의 교육문제 등으로 농어촌지역에서 도시지역이나 상공업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농어촌인구의 도시지향이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7년 주민등록법 제정 이후에나 인구이동 통계를 작성하였으며, 그 이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인구이동 조사통계가 없어서 다만 인구센서스 보고서에 의거 지역별 인구의 증감상태를 파악하여 간접적으로 인구이동을 추정할 뿐이다. 과거 인구의 국내이동이 있었음은 사실이나 어느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어느 곳으로 이동했는지 파악하기 곤란하다. 해방 이후 충남의 인구증가가 전국 평균 인구비율을 능가한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 많은 이주자들이 정착하였으리라고 추정된다.

<표 4-7> 5년 전 충청남도 전출자의 현 거주지별 인구(1970~1980)

현거주지	5년 전 거주지 충남(%)		
	1970	1975	1980
서울	195,158(48.0)	150,726(39.5)	156,154(32.8)
부산	7,772(2.0)	10,515(2.8)	13,728(2.9)
경기	61,074(15.0)	72,070(18.9)	102,323(21.5)
강원	7,190(1.8)	5,042(1.3)	6,203(1.3)
충북	9,756(2.4)	12,566(3.3)	13,624(2.7)
충남	98,093(24.2)	100,538(26.3)	143,859(30.2)
전북	10,929(2.7)	10,742(2.8)	10,198(2.1)
전남	3,303(1.0)	2,552(0.7)	3,832(0.8)
경북	8,208(2.0)	10,888(2.9)	14,910(2.1)
경남	3,540(1.0)	5,774(1.5)	10,628(2.2)
제주	642(0.1)	625(0.1)	857(0.2)
계	405,665(100.0)	281,768(100.0)	475,716(100.0)

1970년에서 1980년 사이의 인구이동을 인구센서스 자료(5년 전 거주지 및 현 거주지별 인구)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보면, 5년 전 충남에 거주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동한 인구수는(대전 포함) 405,000여 명으로 이 중 충남의 관내 이동이 98,000여 명으로 전체의 24.2%이고, 나머지 75.8%인 307,000여 명은 서울(48%)·경기(15%)·전북(2.7%)·충북(2.4%)·부산(2.0%)·경북(2.0%)·강원(1.8%)·전남(1%)·경남(1%)·제주(0.1%) 등지로 전출하였다. 특히 수도권 지역으로 전체 전출인구의 63%가 집중하였다(<표 4-7> 참조).

한편 충남지방으로 전입된 인구의 5년 전 거주지별 인구를 살펴보면 <표 4-8>과 같다. 5년 전 타지방에서 거주하다가 충남지방으로 전입한 인구수는 관내를 포함하여 196,000여 명이다. 그 중 관내 이동이 전체의 49.8%인 98,000여 명이고, 나머지 50.2%는 충북(11.3%)·서울(9.7%)·전북(7.6%)·경기(5.4%)·경북(4.4%)·전남(3.4%) 등의 순이다. 충남에서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전출한 인구는 380,000여 명이고, 타 지방에서 살다가 충남으로 전입한 인구는 98,000여 명으로 같은 기간에 21만 명의 전출 초과현상을 보였다.

<표 4-8> 충청남도 전입자의 5년 전 거주지별 인구(1970~1980)

년전 거주지	현 거주지 충남(%)		
	1970	1975	1980
서울	19,045(9.7)	35,242(15.7)	50,451(16.3)
부산	3,134(1.6)	3,753(1.7)	5,669(1.8)
경기	10,677(5.4)	18,476(8.2)	24,353(7.9)
강원	6,402(3.3)	6,520(2.9)	8,495(2.7)
충북	22,290(11.3)	21,112(9.4)	30,806(9.9)
충남	98,093(49.8)	100,538(44.9)	143,859(46.4)
전북	14,943(7.6)	15,146(6.8)	16,745(5.4)
전남	6,774(3.4)	7,809(3.5)	9,664(3.1)
경북	8,751(4.4)	9,509(4.2)	12,506(4.0)
경남	4,215(2.1)	3,895(1.7)	4,993(1.6)
제주	310(0.2)	1,181(0.5)	664(0.2)
계	196,867(100.0)	224,022(100.0)	1,852(0.6)

<표 4-7>과 <표 4-8>에서 보듯이 1970년에서 1980년 사이 전출인구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나, 점차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반면에 도내 이동 및 인접도 지역으로 그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충남으로의 전입인구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의 유입이 증가하는 반면에 같은 기간 충남 내의 전입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현재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통계를 연도별로 남·여별, 시·도내, 시·도외별 전

입과 전출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표 4-9> 참조). <표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남의 인구가동상황은 1995년에 253,838 명이 전입하였고, 251,923명이 외지로 전출하였다. 1997년의 전입인구는 전년에 비해 증가한 2만 5천 명이 증가한 283,331명이었고 전출은 전년에 비해 2만 여 명이 증가한 269,231명으로 전출인구가 전입보다 1만 4천 명이 많았다. 1999년 총 전입인구는 280,280명으로 약 1만 8천 명 이상이 증가했으며, 전출인구는 약 3만 명이 증가한 283,195명이었다. 2001년은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 전입과 전출인구가 증가하여 전입 266,541명과 전출 278,169명으로 1만 명 이상 전출이 많았다. 2003년 총 전입은 312,737명으로 약 4만 명 정도 늘고 전출은 약 2만 명 정도 증가한 310,057명으로 전입이 98년 이후 5년 만에 많아졌다.

<표 4-9> 충청남도의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1995~2005)

시점	총전입	총전출	시·군구 내	시·군간		시·도간	
				전입	전출	전입	전출
1995	253,838	251,923	102,131	34,069	34,069	117,638	115,723
1996	258,224	246,037	93,796	35,171	35,171	129,257	117,070
1997	283,331	269,231	105,856	39,005	39,005	138,470	124,370
1998	262,993	253,628	100,168	37,902	37,902	124,923	115,558
1999	280,280	283,195	110,572	40,510	40,510	129,198	132,113
2000	265,599	273,341	105,655	40,738	40,738	119,206	126,948
2001	266,541	278,169	107,937	40,822	40,822	117,782	129,410
2002	274,820	288,445	110,326	44,765	44,765	119,729	133,354
2003	312,739	310,057	121,576	51,492	51,492	139,671	136,989
2004	364,482	329,499	126,074	64,138	64,138	174,270	139,287

<표 4-10> 충청남도의 연령별 인구이동(1995~2004)

구 분	1995			2004		
연 령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0-9세	49,582	42,885	6,697	57,178	52,022	5,156
10-19세	30,311	31,377	-1,066	44,108	38,918	5,190
20-29세	68,381	81,974	-13,593	91,441	83,914	7,527
30-39세	57,359	51,150	6,209	79,399	71,477	7,922
40-49세	20,597	18,847	1,750	46,566	41,162	5,404
50-59세	11,320	10,220	1,100	19,579	17,140	2,475
60-69세	9,068	8,473	595	14,830	13,611	1,219
70세 이상	7,220	6,997	223	11,381	11,291	90

자료: 「충청남도지 제2권」

충남의 인구이동 흐름에서 장거리 이동보다는 단거리 이동이 우세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충남의 연령별 인구이동을 보면 1995년과 2004년 약 10년을 10세 단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동률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20~29세와 30~39세 연령층이며, 50세 이후는 상대적으로 이동률이 낮다. 0~9세 연령층 이동률이 높은 것은 가족이동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현재 연령별 인구이동을 보면 총 이동자 중에서 20대 및 30대가 각 총전입 170,840명, 총전출 155,391명으로 1995년은 20대 및 30대가 총전입 125,740명, 총전출 133,124명으로 전입 45,100명이 증가, 전출은 22,267명이 증가하였다. 연령별 중에서 20대 연령은 학업·취업·결혼 등으로 인하여 이동률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30대 연령으로서 10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주택사정 등으로 동반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높은 이동률을 보이고 있다. <표 4-10>에서 인구이동의 특징을 보면 20~29세의 연령층의 인구이동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4. 충남의 지역인식

충남의 지역인식은 지역구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리 접근된다. 지역은 공간요소의 동질성에 근거한 경계선과 공간요소의 차별성에 근거한 상호작용 거점을 통해 인식된다. 동질성에 의한 지역구분은 정태적이지만 정체성을 확인하기가 쉽고, 상호작용에 의한 지역구분은 동태적 교류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이러한 교류가 이질적 요소간 연계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에 정체성을 공유하기가 어렵다.

우선 공간요소에 의한 충남의 지역구분은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지 제2권」은 충남을 천안시와 아산시 등 북동내륙지방, 당진군, 서산시와 태안군으로 이루어진 북서해안지방, 예산군과 홍성군으로 이루어진 북서내륙지방, 공주시와 청양군으로 형성된 중부내륙지방, 부여군과 논산시로 이루어진 남부내륙지방, 보령시와 서천군으로 이루어진 서남해안지방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구분은 생활권과도 관계가 없고, 정치적 선거구와도 관계가 없는 것이라서 실익이 없다.

또 다른 공간요소의 동질성에 의한 충남의 지역구분은 금강수계와 내포지방, 그리고 기타 북부지역을 들 수 있다. 즉, 해안선을 따라 홍성, 보령, 서천, 부여, 청양에 이르는 내포지방과³³⁾, 공주, 논산, 연기 등의 금강수계, 그리고 천안, 아산, 예산, 서산, 당진, 태안 등 충남의 북부지방과 남부의 금산이 기타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주로 수운(水運)에 기초한 이러한 지역구분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주민들의 생활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33) 부여는 내포지방과 금강수계가 겹치는 곳에 위치해있다. 따라서 부여는 금강수계로 분류되기도 하고, 내포지방에 포함되기도 한다.

동질성에 근거한 충남의 또 다른 지역구분은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수정계획은 충남을 천안, 아산, 서산 일부, 당진으로 구성된 북부권, 태안, 보령, 서천과 서산의 일부, 홍성의 일부로 구성된 서해안권, 공주, 계룡, 연기, 예산, 청양, 홍성의 대부분으로 구성된 내륙권, 그리고 부여, 논산 및 금산으로 구성된 금강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구분은 동질성 기준의 자의적 지표에 의한 것으로 서산과 당진의 교류, 부여와 공주의 교류, 부여와 청양의 교류, 서천과 부여의 교류, 홍성과 청양의 교류, 공주와 천안의 교류, 공주와 논산의 교류, 그리고 대전에 의존적인 금산의 교류를 감안할 경우 지역구분의 실익을 담보하지 못한다.

한편 상호작용에 근거한 충남의 지역구분은 도종합계획에서 주로 미래형 공간구조 구상에서 제시되고 있다. 즉 상호작용에 의한 지역구분은 지역발전을 연계하려는 의도에서 시도되고 있다. 지역은 개방체계로서 사람과 물류의 이동방향과 빈도에 의해 결합하고 통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은 실질적인 지역 간 교류에 근거하여 서해안고속도로, 평택-공주, 안성-연기를 잇는 남북축과 당진(태안)-천안, 보령-공주, 공주-청원을 잇는 고속도로를 신설하여 동서축을 형성하고, 대산(당진)-대전, 서천-공주를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X축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 충남의 공간합수 종합

이상의 충남 공간합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충남의 지형은 응집력이 있으며, 폐쇄적이지 아니하고, 해안선은 굴곡이 심하되 거칠지 아니하며, 산은 순하되 무르지 않다. 물은 굽이 흐르되, 넘치지 아니하고, 뜰은 편편히 자리 잡되, 웅졸하지 아니하다. 차령은 하늘높이를 헤아리고, 금강은 땅 길이를 마름질한다. 수많은 포구는 가늘게 뻗어있지만, 넓은 바닷길을 이어주고, 짧은 계곡은 긴 여울로 땅을 적신다.

수도권과 지방을 이어주는 충남의 위상은 부족하면 채우고 남으면 건네주는 일종의 안전장치와도 같다. 사통팔달의 교통로는 균형을 이루기 위한 조절장치로 옛 것과 새 것을 구분하고, 큰 것과 작은 것을 연계한다. 따라서 충남은 호남권, 영남권, 수도권의 무게중심을 이룬다.

제 5 장 결론

충남의 정체성은 시간함수에 속하는 지역의 역사, 인물, 유물과 유적, 문화와 공간함수인 위치와 면적, 지형, 인문환경(인구분포, 인구증감, 인구이동성향 등), 지역인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정체성은 현실과 의지를 결합한 지수로 단순한 인지가 아니라 의도된 표상으로 표현되고, 발현된다. 시간함수와 공간함수는 오랜 동안 상호 작용하여 지역과 관련한 동일성과 차별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정체성의 시간함수는 시계열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과 관습을 통해 구성원끼리의 동일성을 강조하고, 공간함수는 주로 환경결정론 입장에서 인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요소의 차별성을 드러낸다.

충남의 역사는 유구하되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방성이 있고, 충남의 인물은 자신에겐 엄격했지만 남을 배려하는데 소홀함이 없었으며, 큰 뜻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희생정신을 타고 났다. 충남의 유물과 유적은 정교하되 날카롭지 아니하고, 단아하되 결코 작아 보이지 않는 깊이를 포함하고 있다. 즉, 충남의 유적과 유물은 군더더기 없는 절제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절제미는 이 지역의 언어 즉, 충청도 사투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충청도 사투리는 느리다는 평을 많이 받아 왔지만 함축적이어서 많은 말을 하지 않고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즉, 충청도 사투리는 군더더기 없는 실체어로 느린 행동을 보전해준다. 더하지도, 그렇다고 궁색하지도 않은 선비의 절제된 마음가짐이 충청도 사투리에 녹아 있다.

충남의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여유’이고, 충남의 격식은 남에게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기 위한 규율이며, 충남의 운율은 거드름이 아니라 확신을 전하기 위한 간절함이다. 이러한 특징은 시조창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홍성과 서천 일대에서 형성되어 20세기 초 청양과 부여로 전파된 내포계 시조창은 사설을 중심으로 음운이 근중한 것이 특징이다. 즉, 사설의 각 절마다 마지막 운을 눌러 발음함으로써 선비의 근중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전라도의 완제 시조창은 목이 감기고, 경상도의 영제는 밋밋하며, 서울지역의 경제는 질러대는 운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충남의 공간함수는 위치와 지형, 수계와 수구(水口), 인구 유인력과 지역인식으로 표현된다. 충남의 지형은 응집력이 있으며, 폐쇄적이지 아니하고, 해안선은 굴곡이 심하되 거칠지 아니하며, 산은 순하되 무르지 않다. 물은 굽이 흐르되, 넘치지 아니하고, 뜰은 편편히 자리 잡되, 웅졸하지 아니하다. 수많은 포구는 가늘게 뻗어있지

만, 넓은 바탕을 이어주고, 짧은 계곡은 긴 여울로 땅을 적신다.

남을 탓하지 않을 만큼의 먹거리와 남을 험하지 않을 만큼의 공간유산을 타고 난 곳이 충남이고, 그렇다고 남을 크게 부려 원망을 살 일도 없는 곳이 충남이다. 수도권과 지방을 이어주는 충남의 위상은 부족하면 채우고 남으면 건네주는 일종의 안전장치와도 같다. 사통팔달의 교통로는 균형을 이루기 위한 조절장치로 옛 것과 새 것을 구분하고, 큰 것과 작은 것을 연계한다. 따라서 충남은 호남권, 영남권, 수도권을 연계하고 전체의 무게중심을 이룬다.

이러한 맥락에서 충남의 시간함수는 ‘느림의 여유’로, 공간함수는 ‘절제된 단순미’로 요약된다. 김부식은 백제의 왕궁터를 돌아보고 검이불루 화이불사(儉而不陋 華而不侈)로 느낌을 표현한 바 있다. ‘느림의 여유’는 흔히 양반기질로 표현되고, ‘절제된 단순미’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생활방식으로 표현된다. 충청도 사투리는 서두르지 않되 함축적이고, 남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는 유보적 묵음을 포함한다. 즉, 충남의 정체성은 ‘느림’의 여유와 선비의 올곧음, 그리고 허세부리지 않는 절제미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충남의 정체성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참 고 문 헌

- 엄기철(1995), 2005, “충남의 역사와 백제문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계기석, 2001, 「지방화시대의 도시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국립문화재 연구소, 2002, 『충청남도 세시풍속』.
- 서정원, 1994, “충청지역의 건축물과 자연환경에 대한 색채조사 및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진광, 2010, “창조적 도시개발과 지역정체성”, 한국지역개발학회 추계학술세미나 발표논문(2010년 11월 20일, 단국대학교).
- 소진광, 2010,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정체성 활용방안”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최 전국 지방자치단체 실국장 워크숍 발제 논문(제주시, 2010년 1월 29일).
- 양병창, 2008, “대전·충남지역 주민의 자기개념과 지역정체성 분석”,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사회과학연구」 제18권 겨울호, pp.81-112.
- 이성무, 2003, “한국 유교문화의 현대적 계승 가능성과 전망”,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제3회 심포지엄, 기조발표 논문(2003년 10월8일, 건양대학교).
- 이은하 외, 2006, 「충남 여성의 자원활동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이장희, 『조선시대 선비연구』, 1989, 박영사
- 이주행, 2005, 「한국어 사회방언과 지역방언의 이해」, 한국문화사.
- 이중환 저, 노도양 역, 1987, 『택리지(擇里志)』, 신명문화사.
- 임병조, 2010, 「지역정체성과 제도화: 지역지리학의 새로운 모색, 내포지역 연구」, 한울아카데미.
- 임선빈, 2003, “충남 유교문화자원 실태와 활용방안”,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제3회 심포지엄, 기조발표 논문(2003년 10월8일, 건양대학교).
- 임선빈, 2008, “충남의 역사와 전통문화”, 특강자료.
- 임오연, 이충훈, 2009, 「충청남도 정체성을 위한 환경색채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편.
- 정낙원, 차경희, 2009, 「향토음식」, 교문사.

최봉영, 1997, 『조선시대 유교문화』, 사계절.

최종진, ?, “충청도 사투리에 대한 소고: 조상들이 물려준 언어의 보고“ 출판사 미상.

충청남도, 2009, 「충남발전 장기비전 2020.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충남발전연구원 편.

충청남도, 1996, 『충남의 얼과 맥』, 공신사.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06, 『충청남도지』, 제1권.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06, 『충청남도지』, 제2권.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10, 『충청남도지』, 제16권.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10, 『충청남도지』, 제18권.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10, 『충청남도지』, 제19권.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10, 『충청남도지』, 제20권.

황의동, 2003, “충남 유교문화의 특성과 위상”,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제3회 심포지엄, 발표 논문(2003년 10월8일, 건양대학교).

Dreier, Peter, John Mollenkopf & Todo Swannstrom, 2001, Place matters: Metropolitc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KANSAS.

Gore, Charles, 1984, Regions in question, Methuen & Co. Ltd.

Harrison, Lawrence E. & Samuel P. Huntington, eds, 2000, Culture matters: How values shape human progress, Basic Books.

Kidd, Warren, 2002, Culture and Identity, palgrave.

■ 집 필 자 ■

연구책임 · 경원대학교 소진광 교수

공동연구 · 충남발전연구원 박철희 연구위원

기획연구 2010-09 · 충남의 지역정체성 연구

글쓴이 · 소진광, 박철희 / 발행자 · 박진도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10년 12월 31일 / 발행 · 2010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금홍동 101 (314-140)

전화 · 041-840-1142(직통)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169-4 03350

<http://www.cdi.re.kr>

© 2010,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